



# 대한민국예술원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류정아




# 대한민국예술원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류정아







**연구책임** 류 정 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김 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복 길 화 (마포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주임)

**연구참여** 이 정 은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허 준 영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

박 주 미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한 설 아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 서 문

경제 발전으로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이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의 문화·예술도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 현장에서는 창조 및 향유활동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기존 장르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비문화예술 분야와 다양한 방식으로 융복합되는 현상이 흔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들도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상징 기관인 대한민국예술원 역시 미션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창작과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예술인들을 우대·지원하고 이들의 식견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예술원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여 예술원의 위상에 적합한 역할 및 전략들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예술원의 현황과 국내외 유사 기관의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예술원의 운영기반 확보, 회원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방향 개선, 사회적 이미지 구축 등과 관련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대한민국예술원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우리나라의 예술 진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과 사회적인 상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김 정 만





연구개요 ● ●





## 1. 서론

###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경제 개발이 최우선의 과제이던 시기에서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반면 예술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함
- 예술은 기술이 발달하고 장르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서로 융복합되어 점차 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예술원은 한국 예술인의 상징 기관으로 법률적 위상은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및 일반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음
- 예술원의 여건이 예술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한 상황임

####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원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예술원 미션, 내부 회원과 외부의 인식, 해외 유사기관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예술원의 기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 예술원의 효과적인 발전전략을 고민하면서 아울러 예술이 국민의 삶과 사회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나. 연구 방법

- 예술원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적 근거인 법령자료, 국가고시 현황 자료, 예술원 현황 자료 및 동향에 관한 국내·외 문헌과 문화예술 저널 등의 자료 조사를 통해 분석
- 국내 및 해외의 유사 기관 사례 조사를 통해 각 기관의 정체성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장점을 분석하여 예술원의 발전을 위한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제도 구축 방안을 제시함
- 예술원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예술원에 대한 미션과 역할, 위상 강화 및 인지도 제고 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를 실시함

## 다. 연구의 활용 및 기대효과

- 국내·외 유사 기관 사례 및 예술원 환경 여건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맞는 증장기 운영 방안 및 전략적인 발전방향 설정에 활용
-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운영 체계화에 기여하며, 예술원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대시설 및 예산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운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 인력 및 인프라 지원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함
- 향후 역할의 중요성이 재조명 예술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장기적인 비전 수립에 있어 주요 참고 자료로 제공될 것임

## 2. 대한민국예술원의 현황과 발전전략 주요 논점

### 가. 대한민국예술원의 설립 배경 및 운영 현황

- 예술원은 1952년 8월 7일 공포되어 시행된 문화보호법에 근거하여 1954년 7월 17일에 설립.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의 연구와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예술작품의 제작과 연구 조성에 관하여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기관’으로 규정됨
- 미션은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예술발전을 위하여 1)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2)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및 5)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들을 수행하고 있음
- 예술원 회원은 총 정원 100이 선출되어 운영되며 문학분과 28명, 미술분과 25명, 음악분과 22명, 연극·영화·무용분과 25명으로 구성됨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정부기관으로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임원회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음

### 나. 발전전략 수립 관련 주요 논점

- (운영시스템) 대한민국예술원은 공무원 및 내부회원 중심의 운영으로 미술관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전통적 예술 장르 중심으로 분과가 구분되어 있어 새로운 장르의 예술가 진입이 제한적임
- (회원제도)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회원 선출 방식으로 인해 회원구조가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임기제도(4년)가 불명확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예우 및 지원체계) 중요한 사업인 대한민국예술원상의 선정 절차 등의 문제로 사회적 권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회원들에게 있어 지원금 외 사회적 우대 방안이 미흡하다고 여겨짐
- (역할과 위상) 현재 예술원의 중장기적 비전이 부재하며, 독립 청사를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더불어 예술원의 낮은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3. 유사기관 및 정책 사례에 따른 시사점

#### 가. 국내외 유사기관

- 유사기관 사례는 대한민국학술원을 비롯하여 일본예술원, 프랑스 아카데미 데 보자르 등 총 8개의 기관을 살펴보았음
- 대한민국학술원 및 일본예술원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기관으로서 재원도 국가에서 충당되는 반면,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은 민간 설립형태로 운영되며 재원도 기부금과 운영수익 등으로 다양함
- 모든 나라에서 회원의 자격은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현저한 공헌을 이룬 사람이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기준이 있었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예우 방식이었음. 동양권의 기관에서는 정액수당과 정액수당 외 지원 사항이 있는 반면, 유럽과 미국 기관에서는 정액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음
- 주요 역할 및 추진 사업은 나라별로 다양함. 대한민국학술원과 일본 예술원은 회원의 예우 차원의 사업을 위주로, 프랑스는 문화유산 보존

및 예술가 지원, 독일은 국가 문화유산 보존 및 아카이빙 예술연구, 영국은 교육사업, 미국은 다양한 시상제도로 다양성을 확보함

#### 나. 국외 예술인 예우 장례 시스템

- 프랑스 팡테옹, 영국 시인의 공간, 독일 발할라 명예의 전당 총 3가지의 사례를 살펴봄
- 세 공간 모두 문화와 예술 발전에 공헌한 인문들의 묘가 안장되어 있지만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명소로 유명하며, 자국의 역사를 기록하여 문화를 홍보하고 국가의 위상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예우 장례 시스템은 각 국의 저명한 인사들의 예우를 강화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도 점진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4.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목표 및 발전전략 방향

#### 가. 대한민국예술원의 미션 및 비전 수립

- 보다 효율적이고 실리적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예술원 회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리적인 예술 진흥 시스템을 만들어 후학을 계승·발전시켜야 함
- ‘생활문화예술의 시대’ 도래에 따라 예술인들의 예술적 표현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예술원의 미션으로 자리 잡는다면 예술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
- 중장기 목표의 기본방향은 ‘예우’, ‘기여’, ‘기반조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뉘볼 수 있으며, ① 회원 아카이브를 통한 예술의 사회적 기여 ② 회원 예우 내실화로 예술원의 위상 강화 ③ 정책 자문 및 시상

제도 강화로 예술 진흥에 이바지 ④ 현장 예술인 및 대중과의 격이 없는 소통으로 운영기반을 마련함

- 즉 예술원의 중장기비전은 “예술원 회원이 공유하는 예술문화의 전승·보존”과 “예술원이 직접 참여하는 예술활동의 나눔” 및 “생활문화 예술 시대의 선도하는 예술원”이라는 새로운 미션을 바탕으로 중장기 비전을 도출함

#### 나. 예술원 운영 기반 확보

- 예산 및 재원마련의 경우, 현재 고려해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예술원이 보유한 자료관과 미술관을 유료로 전환하여 입장료 수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유료화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를 위해서는 원로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후학 및 현장 예술인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할 것임
- 운영조직은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며, 활발한 예술진흥사업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함
- 현재 예술원은 대한민국의학술원 건물의 일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원 회원과 현장 예술가,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시범적으로 마련하여 후에 독립적인 예술원만의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필요함

#### 다. 회원 관리 시스템의 보완

- 현재 예우의 방법이나 방식에 있어서 수당 지급이라는 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왔음. 향후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회원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인이라는 인식과 일반인들의 예술원 회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들 회원들이 사회적인 존경심을 받는 예술분야의 어른이라는 인식 제고가 필요함

- 해외의 경우 회원의 사후 예우에 더욱 중요한 방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례로 제시되었던 프랑스 팡테옹, 영국의 시인의 공간, 독일 발할라 전당과 같이 예술원 유고 회원들의 기념 조형물 설치, 생가 보존 등으로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동시에, 예술가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
- 회원제도 운영의 경우, 새로운 장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해체되는 현시대 예술 분야의 흐름을 직시하여 예술원의 분과도 현재의 보수적인 틀을 깨고 다양한 해석을 통해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음

## 라. 예술원의 단절적 사업방향 개선

- 기존 사업 이외에 예술원 회원과 함께하는 예술콘텐츠 개발 및 나눔 지원 사업, 예술원 공간 지원 사업, 정책제안 사업을 제안함
- 회원과 일반인이 함께하는 후학 및 창작활동 프로그램으로 ‘예술콘텐츠 개발 및 나눔 지원 사업’, 회원의 창작 공간 확장, 대중들과의 토론 공간 등의 사업으로 ‘예술원 공간 지원 사업’, 회원들이 문화·예술 전문가로서 토론과 담론 등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 가치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제안 사업’ 총 3가지의 사업을 통하여 대외적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음
- 현재 예술원은 국제 교류 활동으로 매년 2명의 회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학술교류로 해외 유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회원의 업적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예술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등 한국 예술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단계적인 계획수립과 예산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 예술사인 예술원 회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아카이빙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음. 이는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원로 예술가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뿌리를 찾고, 예술인을 정성으로 예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마. 예술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구축

- 예술원이 주관하는 가장 큰 사업인 대한민국예술원상의 권위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최종 선정 절차는 회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선정위원회 구성, 온/오프라인 홍보 등으로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강화시키면서 인지도를 제고해야 본래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음
- 예술원의 사업을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주요 문화예술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후학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 예술원 사업에 대한 대내외 홍보가 필수적인데, 현재 예술원은 홍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콘텐츠 등이 모두 부족함. 따라서 전방위적인 홍보 방식보다는 적시적소에 대응하는 사업별 영업 홍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세미나 및 국제교류, 창작 활동 지원, 강연회 등의 홍보를 위해서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SNS를 적극 활용하고 영문 홈페이지 개설과 같은 해외 홍보 창구의 역할도 고려되어야 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6
제3절 연구의 활용 및 기대효과 .....	9
<b>제2장 대한민국예술원의 위상과 현황</b> .....	<b>11</b>
제1절 대한민국예술원의 시대적 변화 및 위상 .....	13
1. 대한민국예술원 설립 배경 .....	13
2. 대한민국예술원의 시대별 변천 .....	14
3. 대한민국예술원의 위상 .....	20
제2절 대한민국예술원의 관련 정책 및 법제도 .....	24
1. 「문화보호법」 주요 내용 .....	24
2. 「대한민국예술원법」 주요 내용 .....	25
제3절 대한민국예술원의 운영 현황 .....	28
1. 대한민국예술원의 미션 및 역할 .....	28
2. 대한민국예술원의 조직 및 회원제도 .....	30
2. 예술원 회원제도 .....	33
3. 운영예산 및 청사 .....	39
4. 주요 추진사업 및 성과 .....	41
<b>제3장 대한민국예술원 발전전략 수립 관련 주요 논점</b> .....	<b>51</b>
제1절 대한민국예술원 운영시스템 .....	53
1. 사무국 중심의 운영과 전문 인력 수요 .....	53
2. 예술원 조직 및 분과의 제한적 범위 .....	54
3. 예술진흥사업 예산의 부족 .....	55
제2절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선출과 유지 .....	57
1.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회원 선출 방식 .....	57
2. 회원 임기제도의 불명확성 .....	58

제3절 예술인 예우 및 지원체계 .....	59
1. 대한민국예술원상의 사회적 권위 부족 .....	59
2. 지원금 외 사회적 우대 방안 미흡 .....	61
제4절 대한민국예술원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 .....	62
1. 중장기적 비전의 설정 필요 .....	62
2. 독립 청사 마련으로 예술원 위상 재정립 필요 .....	63
3. 대한민국예술원의 국민적 인지도 제고 필요 .....	64
<b>제4장 대한민국예술원의 예술 환경과 예술 패러다임 변화 .....</b>	<b>67</b>
제1절 예술창작 패러다임의 다변화 .....	69
1. 예술의 수요·공급 변화 .....	69
2. 예술의 영역 확대 .....	70
제2절 예술의 환경 변화 .....	71
1. 문화예술향수의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 .....	71
2. 예술시장의 규모 확대 및 상업화 경향 .....	72
제3절 국내 예술지원 정책 현황 .....	76
1.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 .....	76
2. 문화예술에 대한 사적 지원 .....	78
<b>제5장 유사기관 및 정책 사례와 시사점 .....</b>	<b>81</b>
제1절 국내·외 유사기관 정책 사례 .....	83
1. 대한민국학술원 .....	83
2. 일본예술원 .....	92
3. 중국 문화부 아·퇴직 인원 서비스센터 .....	101
4. 중국예술원 .....	109
5. 프랑스 아카데미 데 보자르 .....	113
6. 영국 왕립 미술 아카데미 .....	121
7. 독일예술원 .....	131
8. 미국 예술·문학 아카데미 .....	144

제2절 해외 국가 예술인 예우 사례 .....	152
1. 프랑스의 팡테옹 .....	152
2.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시인의 공간 .....	160
3. 독일 발할라(Walhalla) 명예의 전당 .....	164
제3절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170
1.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 시사점 .....	170
2. 국외 예술인 예우 장례 시스템 시사점 .....	175
<b>제6장 대한민국예술원 인식 및 의견조사 .....</b>	<b>177</b>
제1절 조사개요 .....	179
1. 조사 목적과 필요성 .....	179
2. 설문조사 개요 .....	180
3. 설문조사 내용 및 조사표 .....	180
제2절 설문조사 결과 .....	183
1. 예술원 발전 가능성 .....	184
2. 예술원 회원제도의 만족도 .....	189
3. 예술원 회원의 역할 인식 정도 .....	192
4. 분과구성 .....	194
제3절 의견종합 및 시사점 .....	196
<b>제7장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목표 및 발전전략 방향 .....</b>	<b>199</b>
제1절 대한민국예술원의 미션 및 비전 수립 .....	201
1. 대한민국예술원 미션 재정립 .....	201
2.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적 비전 수립 .....	205
3.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 .....	207
제2절 예술원 운영 기반 확보 .....	210
1. 예산 및 자원 마련 .....	210
2. 예술원 운영조직 개선 .....	212
3. 청사 및 부대시설 공간 확보 .....	215

# CONTENTS

제3절 회원 관리 시스템의 보완 .....	217
1. 체계적 예술 원로 예우 시스템 구축 .....	217
2. 예술원 회원제도 운영 방안 개선 .....	220
제4절 예술원의 단절적 사업방향 개선 .....	223
1. 대외적 사업 확대 및 외부 예술활동 지원 .....	223
2.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 활성화 .....	225
3. 예술원 아카이브를 활용한 대중의 정보접근성 확대 .....	227
제5절 예술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	229
1. 예술원상 권위 확보 및 시상식 활성화 .....	229
2.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230
3. 대한민국예술원의 대내외적 홍보 강화 .....	231
<b>제8장 결 론 .....</b>	<b>233</b>
<b>참고문헌 .....</b>	<b>238</b>
<b>ABSTRACT .....</b>	<b>242</b>
<b>부 록 .....</b>	<b>244</b>

표 목차

〈표 1-1〉 대한민국예술원 발전전략을 위한 기초연구 체계도 ..... 8

〈표 2-1〉 1954년 선출된 초대회원 명단 ..... 15

〈표 2-2〉 1988년 대한민국예술원법 중 회원제도 관련 사항 ..... 17

〈표 2-3〉 국내 예술 환경 변화와 예술원의 활동 ..... 19

〈표 2-4〉 대한민국예술원 주요 연혁 ..... 20

〈표 2-5〉 2014년도 국립 문화예술기관 재정 현황 ..... 22

〈표 2-6〉 『문화보호법』(시행 1952. 8. 7)의 주요 내용 ..... 24

〈표 2-7〉 『대한민국예술원법』 전문 ..... 26

〈표 2-8〉 사무국 직원 현황 ..... 31

〈표 2-9〉 대한민국예술원 위원회의 성격 ..... 32

〈표 2-10〉 연도별 정원·현원 변화 (2016년 8월 기준) ..... 34

〈표 2-11〉 회원선출 진행 과정 ..... 35

〈표 2-12〉 회원 구분 및 임기의 변천 ..... 36

〈표 2-13〉 회원의 성별 구성 ..... 37

〈표 2-14〉 대한민국예술원 2016년도 편성 예산 ..... 40

〈표 2-15〉 예술원상 개요 ..... 42

〈표 2-16〉 연도별 회원세미나 개최 현황 ..... 43

〈표 2-17〉 최근 3년 간 예술활동 지원 내역 ..... 45

〈표 2-18〉 예술도서 발간 사업 ..... 47

〈표 3-1〉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공무원 정원 ..... 53

〈표 3-2〉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 현황(1955년-2015년) ..... 60

〈표 4-1〉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추이 ..... 71

〈표 4-2〉 연도별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 수 추이 ..... 74

〈표 4-3〉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재정 편성 추이 ..... 77

〈표 4-4〉 정부 총예산 대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문화예산 비율 ..... 77

〈표 4-5〉 기업의 사회공헌 분야별 대비 문화예술 및 체육 지출비율 추이 .. 78

〈표 5-1〉 대한민국학술원 주요 연혁 ..... 84

〈표 5-2〉 2015년 대한민국학술원 예산 현황 ..... 84

〈표 5-3〉 학술원·예술원 청사 사용현황 ..... 86

〈표 5-4〉 학술원 회원의 구분 및 자격 ..... 87

〈표 5-5〉 학술원 회원 현황 ..... 88

# CONTENTS

〈표 5-6〉 학술원 명예회원 현황 .....	88
〈표 5-7〉 일본예술원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 .....	97
〈표 5-8〉 2015년도(제72회) 수상자 명단 .....	98
〈표 5-9〉 아이 꿈·아트 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	100
〈표 5-10〉 이퇴직 인원 서비스 부문 예산 및 문화부 전체 예산 .....	103
〈표 5-11〉 이퇴직 인원 서비스센터 조직 및 업무 .....	104
〈표 5-12〉 프랑스 아카데미 보자르의 조직구성 .....	116
〈표 5-13〉 아카데미 보자르 회원 현황 .....	117
〈표 5-14〉 아카데미 보자르의 구성원 자격 .....	117
〈표 5-15〉 정회원 현황 .....	118
〈표 5-16〉 왕립 미술 아카데미 회원 구성 .....	127
〈표 5-17〉 왕립 미술 아카데미 회원 예우방식 .....	127
〈표 5-18〉 독일예술원의 연간예산(2008) .....	134
〈표 5-19〉 독일예술원 아카이브 자료 수집 주제 .....	138
〈표 5-20〉 독일예술원 분과별 현원 .....	140
〈표 5-21〉 회원 분과별 평균 재임기간 .....	147
〈표 5-22〉 아카데미 회원 구성 및 현황 .....	147
〈표 5-23〉 아카데미 유고 회원 현황 .....	148
〈표 5-24〉 팡테옹에 안치된 위인 현황 .....	157
〈표 5-25〉 팡테옹 메세나에 대한 혜택 .....	158
〈표 5-26〉 발할라전당에 안치된 주요인물 .....	165
〈표 5-27〉 발할라 전당 조직도 .....	169
〈표 5-28〉 국내·외 문화예술기관 비교 .....	174
〈표 5-29〉 해외 예술인 예우 장례 시스템 비교 .....	176
〈표 6-1〉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인식조사 개요 .....	180
〈표 6-2〉 예술원 회원 대상 만족도 및 활동인지도 평가 항목 .....	180
〈표 6-3〉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대상 만족도 및 활동인지도 평가 항목 .....	182
〈표 6-4〉 설문 응답자 인적사항 .....	183
〈표 6-5〉 미션(기능)의 수행정도 평가 .....	184
〈표 6-6〉 미션(기능)의 달성정도 평가 .....	185
〈표 6-7〉 현재 추진 사업의 중요도 평가 .....	185
〈표 6-8〉 정책 및 사업의 수행정도 평가 .....	186
〈표 6-9〉 발전을 위해 예술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 .....	187



〈표 6-10〉 예술원 발전을 위해 뒷받침 되어야 할 정부 지원 사항 ..... 187

〈표 6-11〉 예술원 인지도 평가 ..... 188

〈표 6-13〉 회원 선출 방식 평가 ..... 190

〈표 6-14〉 회원 연임제도 평가 ..... 190

〈표 6-15〉 회원 수당 지원 평가 ..... 191

〈표 6-16〉 회원 수당 외 지원 평가 ..... 191

〈표 6-17〉 회원의 예우 및 자부심 금지 평가 ..... 192

〈표 6-18〉 회원의 책임감에 대한 평가 ..... 192

〈표 6-19〉 회원의 역할 인식수준 평가 ..... 193

〈표 6-20〉 예술원 회원의 현재 중점 역할(회원, 전문가 공통) ..... 193

〈표 6-21〉 예술원 회원이 기대하는 중점 역할(회원 문항) ..... 194

〈표 6-22〉 추가 분과구성 평가 ..... 194

〈표 7-1〉 책임운영기관 관리 방식 ..... 214

〈표 부록-1〉 2016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현황 ..... 245

〈표 부록-2〉 예술원상 수상자 심사 절차 ..... 246

〈표 부록-3〉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규정 총칙의 세부 내용 ..... 247

## 그림 목차

[그림 2-1] 대한민국예술원의 설립과정 .....	13
[그림 2-2] 대한민국예술원의 법률적 위상 .....	21
[그림 2-3]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예산 구성 비율 .....	23
[그림 2-4] 대한민국예술원 조직구조 .....	30
[그림 2-5]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원 변화 .....	33
[그림 2-6] 분과별 회원 수의 변화 .....	37
[그림 2-7] 문학분과 구성 .....	38
[그림 2-8] 미술분과 구성 .....	38
[그림 2-9] 음악분과 구성 .....	38
[그림 2-10] 연극·무용·영화분과 구성 .....	38
[그림 2-11] 예술원 예술진흥사업예산 변동 추이 .....	40
[그림 2-12] 대한민국학술원·예술원 청사 전경 .....	41
[그림 2-13]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 분과별 비율 .....	43
[그림 2-14] 제34회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현황 .....	46
[그림 3-1] 대한민국예술원 예산 구성 .....	55
[그림 3-2] 대한민국예술원 언론보도 및 기사 언급 추이 .....	65
[그림 3-3] 대한민국예술원 언론보도 및 기사 연관 이슈 .....	66
[그림 4-1] 예술행사 관람 의향 .....	72
[그림 4-2] 연도별 주요유통영역 시장 규모추이 .....	73
[그림 4-3] 공연시설 및 단체 매출액 추이 .....	74
[그림 4-4] 기업의 사회공헌 분야별 사업비 지출 비중 .....	79
[그림 5-1] 대한민국학술원 조직도 .....	85
[그림 5-2] 일본예술원 예산현황 .....	93
[그림 5-3] 일본예술원 조직도 .....	94
[그림 5-4] 일본예술원 청사 전경 및 전시실 모습 .....	95
[그림 5-5] 일본예술원 예산 내용(2014년-2015년) .....	98
[그림 5-6] 일본예술원 회원의 예술원상 수상 비율 .....	101
[그림 5-7] 문화부 원로예술가 서화 사진 작품전 개막식 .....	107
[그림 5-8] 중국노년문화(中国老年文化) 표지 .....	108
[그림 5-9] 아카데미 프랑스의 연간 세레모니 .....	119
[그림 5-10] 왕립 미술 아카데미의 지출 비율 .....	123

[그림 5-11] 영국 왕립 미술 아카데미 청사 ..... 125

[그림 5-12] 독일예술원 청사 ..... 137

[그림 5-13] 미국 예술·문학 아카데미 전경 및 전시장 모습 ..... 146

[그림 5-14] 팡테옹 전경과 전면부의 글귀 ..... 154

[그림 5-15] 팡테옹에서 이루어진 장례 세레모니 장면 ..... 157

[그림 5-16] 팡테옹 메세나에 대한 보상 ..... 159

[그림 5-17]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시인의 공간 전경 ..... 160

[그림 5-18] 찰스 디킨스의 묘비 ..... 163

[그림 5-19] 레겐스부르크 시 발할라(Walhalla)전당 전경 ..... 164

[그림 5-20] 설립자 바이에른 루드비히 1세 전신상 ..... 166

[그림 5-21] 1842년 발할라 전당 개회식 ..... 166

[그림 5-22] 발할라 전당 내부 ..... 168

[그림 6-1] 회원 설문 응답자의 소속 분과 ..... 183

[그림 6-2] 미션(기능) 수행정도 평가 ..... 184

[그림 7-1] 대한민국예술원 미션 재정립 ..... 204

[그림 7-2] 예술원의 기존 중장기 목표의 기본 방향 ..... 205

[그림 7-3] 대한민국예술원의 중장기 비전 ..... 207

[그림 7-4] 현존 문화예술 조직의 4층 모형 ..... 213

[그림 7-5] 대통령의 이름을 딴 돌레길 ..... 219

[그림 7-6] 대통령길 ..... 219

[그림 부록-1] 대한민국학술원상 선정절차 ..... 248



제1장 ●●

# 서론





## 제1절

##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 사회·경제 및 문화예술 환경 변화에 따른 예술원의 역할 필요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창작과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예술인들을 우대·지원하고 이들의 식견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되어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인 기관이다. 예술원이 설립된 1954년 이후 경제 개발이 최우선의 과제이던 시기로부터 이제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저변도 넓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예술원이 설립되었던 60여 년 전과 비교했을 때 21세기 예술은 기술이 발달하고, 장르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서로 융·복합되어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 발전으로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삶의 질과 문화향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을 공급하는 공공부문과 시장이 활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한류 열풍 및 각종 해외 영화제 수상 등 한국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주목 받는 사례가 증가하여 한국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지나친 예술의 상업화 경향으로 인해 예술의 진정성과 순수한 역할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현 시점에 부합하는 예술원의 역할에 대한 다면적인 진단과 논의 및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나. 예술원의 법률적 위상과 명성에 부합하는 미션과 비전 수립

예술원은 설립된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예술인들로 구성된 기관으로 한국 예술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의 법률적 위상과 회원 개개인의 명성은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 예술인 및 일반 대중들에게 예술원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까지 예술원의 여건이 예술계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공식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변화하는 예술계의 수요와 사회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예술원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전략에 따른 사업개발 등 개선방안 모색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술원이 그 위상과 명성에 부합하여 우리나라 예술 발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미션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션을 성취할 수 있는 비전의 수립을 뒷받침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국회와 언론은 예술원 회원 선정 및 예술원상 시상 등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운영 폐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따라서 국가의 예술인 지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모델사례로서 예술원 운영 체계를 점검하여, 성과를 공개하는 투명성 있는 관리체계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 연구를 통해 예술원의 운영방안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적 수요를 고려한 예술원의 미션과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임시방편적 개선방안으로는 예술원의 획기적인 변화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술계와 사회에 대한 기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정립된 미션과 비전이 예술원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 그리고 그에 걸 맞는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줌으로써, 예술원은 미래 한국 예술의 주요 철학과 실천을 선도하는 중심적인 기구와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이다.

#### 다. 지식과 경험 전수를 할 수 있는 발전전략 도출

예술의 본질과 순수예술의 전통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는 예술계의 수요와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유지가 힘들어 점차 활동



경력이 짧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예술인들이 적절한 방향을 찾아가는데 원로 예술인들의 경험과 식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sup>1)</sup> 따라서 예술원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예술원 미션, 내부 회원과 외부의 인식, 해외 유사기관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예술원의 구성원인 명망 있는 원로 예술인들에게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조직과 기관으로서의 예술원이 시대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전략을 수립할 것도 요망된다.

우리나라 예술계를 대표하는 원로들을 위한 기관으로서 그들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장려할 뿐 아니라, 우리 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예술의 본질에 대한 균형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 창의성과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회기여도가 높은 예술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제안과 실천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예술원의 존재 가치와 의의를 점검하고, 지속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가치를 산출할 예술계 원로들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예술원 발전 전략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예술 진흥에 이바지하며, 예술이 국민의 삶과 사회에 정신적, 물질적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고 목적이다.

1)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경력은 '10~20년 미만'이 31.3%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미만'이 26.0%, '20년~30년 미만'이 21.3%, '30~40년 미만'이 14.1%, 40년 이상이 7.4%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제2절

##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예술원이 시대적으로 담당해온 역할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그 추이를 살펴보고,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헌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술원의 공공적 역할, 기관과 관련된 지원 체계, 예술원의 동향에 대한 국내·외 문헌과 문화예술 저널 등을 폭넓게 검토하였다. 또한 예술원의 내부 여건 및 외부 환경의 구체적인 변화 사항을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정책적 근거자료 및 법령자료, 국가고시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 등을 참고하여 벤치마킹할 사항들을 추출하였고, 예술원 내부 구성원의 설문조사와 전문가들의 심층인터뷰 조사를 통해 예술원에 대한 내·외부수요도 파악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유사사례와 회원 설문조사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예술원의 비전과 발전 전략의 근거가 되는 논리와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이렇게 도출된 사회 환경과 예술원에 대한 수요 및 유사기관들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예술원의 발전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 가. 문헌연구

예술원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정책적 근거인 법령자료, 국가고시 현황 자료를 검토하고, 예술원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예술원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였다. 덧붙여 각종 정부 발간 보고서와 예술원의 공공적 역할, 관련 지원체계, 동향에 관한 국내·외 문헌과 문화예술 저널 등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 나. 국내·외 사례 연구

국내 및 해외의 유사기관 사례 조사를 통해 각 기관의 정체성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장점을 분석하여 예술원의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다. 회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문가 대상 집단 면접조사

예술원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들과 문제점들을 통해 향후 해결해야 하는 선결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예술원에 대한 미션과 역할, 위상 강화 및 인지도 제고 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대상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의 예술원 사업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발전전략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라.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예술원의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회의 실시하여 예술원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표 1-1〉 대한민국예술원 발전전략을 위한 기초연구 체계도



## 제3절

## 연구의 활용 및 기대효과

## 가. 예술원 역할 재조명 및 장기적 비전 수립

성취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인 대표기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앞으로 더욱 역할이 재조명될 원로 예술인들에 대한 정책설계용 핵심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나. 예술원의 중장기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국내·외 유사 기관 사례 및 예술원 환경 여건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맞는 중장기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국가기관으로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원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부대 시설 및 예산 증대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 다. 예술원 운영 환경 개선 및 사업 추진 지원 근거 마련

예술원 운영 현황 분석과 주요 국가 지원 정책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운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 인력 및 인프라 지원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예술원 사업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하고 현실부합성이 높은 효과적인 사업 환경과 기관운영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로 예술인 정책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추진 사업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 ●●

대한민국예술원의 위상과 현황







## 제1절

## 대한민국예술원의 시대적 변화 및 위상

1. 대한민국예술원 설립 배경<sup>2)</sup>

## 가. 대한민국예술원의 설립 과정

대한민국예술원은 1952년 8월 7일에 공포되어 시행된 「문화보호법」에 근거하여 1954년 7월 17일에 설립되었다.<sup>3)</sup>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에 그 설립 목적이 있다.

「문화보호법」 제2장과 제3장에서, 예술원은 ‘국내·외에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의 연구와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예술작품의 제작과 연구 조성에 관하여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림 2-1] 대한민국예술원의 설립과정

- 2) 본 내용은 대한민국예술원(2004), 『예술원 50년사』와 대한민국예술원(2014), 『예술원 60년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 3) 「문화보호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인의 지위 향상, 민족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공포·시행된 법률로,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문화인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1952년 8월 7일이 공포·시행되었다.

예술원이 창립될 때, 기관의 운영방식은 재정 기반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국립’의 방식이 채택되었다. 문교부에서는 예술원 창립을 위해 박종화, 서항석, 채동선, 현제명, 도상봉, 갈홍기(정부 측), 김정식(국회 측), 7명을 창립준비위원회로 위촉하였고, 창립준비위원회의 입안에 의해 1953년 4월 14일 대통령령 733호로 ‘문화인등록령’이 공포되었다. 1953년 5월부터 ‘문화인등록령’에 의한 문화인 등록 과정을 통해 신청자에 대한 예술가자격심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 문학 106명, 미술 149명, 음악 92명, 연예 97명 등 총 444명이 문화인으로 인정되어 회원선거를 통해 1954년 7월 17일에 학술원과 예술원이 공동으로 개원식을 치루면서 발족하였다.

## 2. 대한민국예술원의 시대별 변천

### 가. 준비기(해방 직후) ~ 1950년대 후반기

1950년 6월 25일 발생한 6.25전쟁을 겪으며 우리나라는 물리적 충격과 함께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1952년 8월 7일 예술원 설치에 관한 ‘문화보호법’이 제정되어 공포되었고, 예술원 창립을 위해 문교부에서 예술원 창립 준비 위원을 선정, 위촉한 후 2년의 준비기간을 두었다.

회원의 경우에는 선거회원, 추천회원, 종신회원 등 세 종류로 구분하기로 하고 문학, 미술, 음악, 연예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체 회원 수를 40명 이내로 한다는 규모를 결정했다. 1953년 4월 14일 「문화인등록령」(대통령령 제773호)이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5월부터 등록 신청을 받았다. 문학 120명, 미술 168명, 음악 106명, 연예 206명 등 모두 600명이 등록하였고, 문교부장관이 1953년 9월 14일에 예술가 자격 심사위원<sup>4)</sup>을 위촉하여 1954년 1월 26일과 2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sup>5)</sup> 1954년 1월 23일 대통령령 제864호로 예술원 및 학술원「회원선거령」(대통령령 재 864호)이 공포되었고, 동 선거령에 따라 전국 14개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1954년 3월 25일 초대 예술원 회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를 통해 총 25명을 선출하였고 1954년 4월 6일자로 선거령 제30조에 의거하여 당선자를 발표하였다.

〈표 2-1〉 1954년 선출된 초대회원 명단

분야	회원명
제1류(문학/7명)	박종화, 염상섭, 윤백남, 김동리, 조연현, 서정주, 유치환
제2류(미술/7명)	고희동, 이상범, 장발, 손재형, 김환기, 윤희중, 배림
제3류(음악/6명)	현재명, 성경린, 김성태, 김동진, 박태준, 이주환
제4류(연예/6명)	유치진, 이해랑, 오영진, 안종화, 이규환

자료: 대한민국예술원(2015), 『예술원 50년사』, p. 45를 토대로 재구성

이후 학술원과 예술원이 국가 기관이라는 점을 뚜렷이 하기 위해 기관의 관리권자를 문교부장관으로 하고 문화인등록제도를 폐지하였다. 1957년에는 학술원, 예술원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보호법 개정이 추진되어 1957년에 공식 공포되었다.

예술원의 공식적인 활동은 1955년부터 본격 시작되었으며, 특히 1955년 6월 『예술원보』 창간을 필두로 7월에는 ‘제1회 예술원상’을 제정하고 시상함으로써 국내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예술원보는 연1회 발행을 전제로 회원들의 작품과 에세이, 예술원의 각종 행사 및 활동 상황을 원내외로 알리는 홍보 기사, 관계 법규, 일지 및 회원 동정 등을 집중적으로 게재하였다.

1차 개정된 문화보호법 이후 예술원의 기존 선거회원제를 폐지하였고, 정원 10명이 추가로 증원되어 정원은 50명 이내, 추천회원 임기는

4) 문교부장관은 1953년 9월 14일자로 고희동, 장발, 박종화, 염상섭, 유치진, 현재명, 이주환을 예술가자격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다.

5) 대한민국예술원(2005), 『대한민국예술원 50년사』, p45

6년으로 정하였으며 임명회원의 임기는 종신으로 하였다.

#### 나. 1960년대 ~ 1970년대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던 1960년대와 70년대 사회적으로는 ‘근대화’, ‘산업화’의 변화 속에서 정부의 강한 지원 하에 예술원 조직이 공고해졌으며 서울 삼청동에 있던 대한교련 소유 청사를 빌려 1960년부터 자체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임시 총회를 통해 회원을 선출하면서 예술원 조직의 외연이 넓어지고 구성원도 다양한 경향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1960년 3월 25일 제 3대 회원선출은 선거회원제의 폐지로 증원된 10명과 3년의 임기를 마친 제2대 선거회원 25명, 6년의 임기를 마친 초대 추천회원 10명의 공석을 두고 이루어졌다. 선거회원제 폐지로 증원된 10명은 각 분과별 합의에 따라 1명을 공석으로 두고 모두 9명을 선출하여 3대 회원 선출을 통해 44명과 임명회원 4명을 포함하여 모두 48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예술원보〉가 5.16 이후 1963년과 1964년 2년간 잠시 중단됨에 따라 원보를 대신하여 예술논문집이 발행되었다가 1965년에 예술원보는 속간으로 출판하였고, 예술논문집 역시 예술원보와 더불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1회 발행하였다. 1966년 3월 14일 제4대 회원을 선출하였는데 특히 제3대 예술원 회원 중 임명회원(종신회원)을 제외한 추천 회원의 임기가 1966년 4월로 만료되기 때문에 현 회원 42명과 부족한 정원 8명의 추천을 확정하여 선출하였다.

한국 사회의 대변혁기인 1970년대의 예술원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체계를 다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안정되는 시기를 보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원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고 국제예술심포지엄, 예술원미술전도 개최하였다.

### 다. 1980년대 ~ 1990년대

1980년대는 한국 예술이 양적으로 확장되고 대중적 확산이 빠르게 진행된 시기였으며, 이 시기 예술원 활동은 종전과 다름없이 지속되었다. 학·예술원의 성격을 바꾸고 개편하는 신문화보호법 개정안은 학·예술원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1981년 4월 13일에 전면 공포·시행되었으나 1988년에 폐지되었다. 신문화보호법은 예술원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회원의 구분을 원로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세분화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준회원은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의 예술원 활동은 종전과 다름없이 지속되어 예술원보, 예술논문집은 계속 발간되었으며, 한국예술의 전반에 걸친 연구논문 및 논저들의 자료를 정리하는 <예술총람>의 발간을 기획하고 1983년에 전 3권을 발간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1984년에는 한국예술사총집 4권을 완간하였으며, 1985년에는 한국예술사전 전 4권(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영화)을 발간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2년부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매년 10여 회의 예술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988년 12월 대한민국예술원법이 공포되어 학술원과 예술원이 통합으로 규정되어 있던 「문화보호법」을 「예술원법」과 「학술원법」으로 각각 분리 제정하였다.

〈표 2-2〉 1988년 대한민국예술원법 중 회원제도 관련 사항

구분	회원
회원정수	75명
조직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
선출	회원 또는 예술원이 지명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회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선출함
자격	예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년 이상 예술경력을 가진 자거나 기타 예술경력이 30년 이상인 자
임기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예술원(2015), 『예술원 50년사』, p.173

## 라. 1990년대~2000년대

격변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예술원은 1국 2과의 예술원사무국을 신설하고, 순수예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기존의 사업(대한민국예술원상, 회원세미나, 국제예술심포지엄, 예술강연회 등)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오늘의 한국예술을 바르게 살피고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한국예술총집 발간사업은 1986년 ‘미술편 I’을 발간하였고, 이후 매년 연차적으로 1권씩 발간하고 있다.

1996년 12월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으로 회원 정원이 75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고, 2000년대에는 예술원의 조직이나 의제 및 사업을 새롭게 정비하고 성숙한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회원들이 적극 현장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부터 한국 예술의 국제적 감각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원국제교류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예술원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50주년 기념 회원 자료전’을 개최한 바 있다.

## 마. 2010년대의 활동

2010년대에는 변모하는 예술 환경 속에서 확장되고 다듬어진 조직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특히 2011년 10월 예술원은 한일 예술원 교류전을 개최하였다. 2012년의 상반기에는 경복궁 수정전에서 목요 특강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한중 회원 국제교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2013년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대한민국예술원 음악회를 큰 규모로 개최하여 대내외적으로 예술원 회원의 활동과 업적을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창립 60주년인 2014년에는 유종호 회장 등 91명의 회원이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세계화와 개방 시대를 맞아 예술의 새 경향과 사조를 이해하고 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 포럼행사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예술원의 설립이후 예술계의 상황 및 예술원의 활동을 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국내 예술 환경 변화와 예술원의 활동

구분	시대적 상황	예술계 상황	예술원 활동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방과 좌우익의 대립</li> <li>- 6.25전쟁과 미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우익의 정치적 활동</li> <li>- 장르별로 여러 단체의 결성 및 해체, 단일화노력</li> <li>- 전쟁으로 인한 예술계 인사들의 월북 및 납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원개원 (1954.7.17.) 예술원보 창간</li> <li>- 제1회 예술원상 시상</li> </ul>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9 혁명</li> <li>- 경제 성장 위주의 산업화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성장 위주의 산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주제 등장</li> <li>- 4.19로 인해 확산된 자유와 민주주의, 성찰의 정신의 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보호법의 개정</li> <li>- 정원증가 및 신규회원 선출(10명)</li> <li>- 한국예술총람발행</li> <li>- 〈예술논문집〉 발행</li> </ul>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신정권</li> <li>- 급속한 경제성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문학, 분단문학 등 풍성한 문학적 결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세미나 본격 실시</li> <li>- 국제예술심포지엄 시작</li> <li>- 예술원미술전 실시</li> </ul>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신체제의 종식과 제5공화국 출범</li> <li>- 新문화보호법</li> <li>- 아시안 게임</li> <li>- 88서울올림픽 개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간의 계엄으로 인한 일시적 위축현상 및 복고의 바람</li> <li>- 마당극의 붐과 시극(詩劇)운동, 북한 대중예술의 서울 공연</li> <li>- 공연법 개정</li> <li>- 민족미술의 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총람〉 발간</li> <li>- 〈한국예술사전〉 발간</li> <li>- 예술강연회 시작</li> </ul>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구권의 몰락</li> <li>- 세계화이념의 확산</li> <li>- 신자유주의 등장 및 다원화 시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계 거목들의 타계 및 세대교체</li> <li>- 문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예술의 산업화에 대한 압박</li> <li>- 외환위기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수예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 유지 및 수행</li> <li>- 한국예술총집 발간</li> </ul>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구조(고령화) 변화</li> <li>- 문화다양성 사회로 진전</li> <li>-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향유 범위의 확장</li> <li>- 예술 매체의 다변화</li> <li>- 여가문화의 발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화시대에 맞춰 교류전, 포럼 등의 국제교류 활동 진행</li> </ul>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

〈표 2-4〉 대한민국예술원 주요 연혁

구 분	내 용
2000 년대	2011.04.1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586호)
	2008.02.29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8852호)
	2005.03.24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414호)
	2001.07.07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 수당 지급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7293호)
1990 년대	1996.12.31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의회원 수당 지급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5223호)
	1996.12.30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법률 제 5209호/정원 100명)
	1990.01.03 예술원사무국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12897호) - 예술원사무국 산설(1국 2과)
1980 년대	1989.12.30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법률 제4183호) - 예술원 지원업무 문화부 이관
	1988.12.31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법률 제4046호/회원정원 75명)
	1987.10.17 학·예술원 회관 신축 개관(서초구 반포동 신94)
	1985.08.12 학술원사무국과 예술원사무국 통합(대통령령 제11738호)
	1981.04.13 문화보호법 개정(회원정원 65명) - 원로·정·준회원 구분, 정년 70세로 규정
1960 년대	1966.04.20 제 3대 회원 추천(50명)
	1960.01.04 예술원사무국 개청(서울 종로구 삼청동)
1950 년대	1959.09.23 예술원사무국 직제 공포(대통령령 제1514호)
	1957.03.02 예술원일반회원선거규정 제정(예술원규정 제3호)
	1955.04.09 예술원상시상규정 제정(예술원규정 제1호)
	1954.07.17 예술원 개원(회원정원 : 25명)
	1954.01.24 학·예술원회원선거령 공포(대통령령 제864호)
	1952.08.07 문화보호법 공포(법률 제24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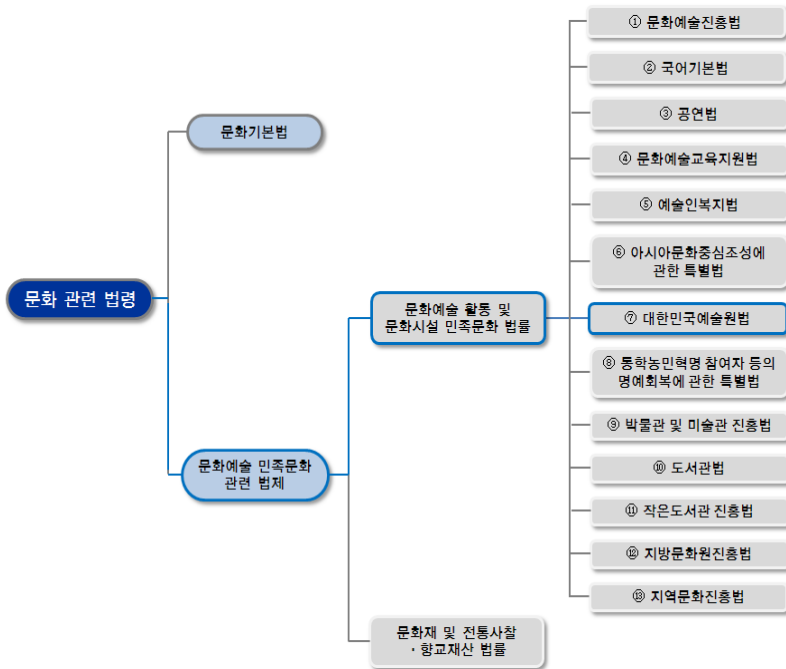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예술원(<http://www.naa.go.kr/>)

### 3. 대한민국예술원의 위상

대한민국예술원의 국내적 위상은 예술원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한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부문과 관련한 법령은 크게 「문화



기본법」과 「문화예술 민족문화 관련 법제」 두 가지로 구분된다.<sup>6)</sup> 「대한민국예술원법」은 문화부문 법체계 중, 「민족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법제」에서 우리 민족문화의 보존·계승·발전과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시설 민족문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sup>7)</sup>



[그림 2-2] 대한민국예술원의 법률적 위상

국민의 소득 수준이 증대됨에 따라 수요가 가장 크게 증대되고 있는 분야는 문화예술 분야이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자체의 문화관련 정책 수행역량 강화 및 국립문화예술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해 정부가 설립한 특수예우기관으로서 정

6) 문화관광부(2014), 『2014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88

7) 문화관광부(2014), 『2014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90

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정부기구는 아니며 회원의 신분도 공무원은 아니다. 예술원 사무국은 회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부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14개의 국립문화예술기관중의 하나이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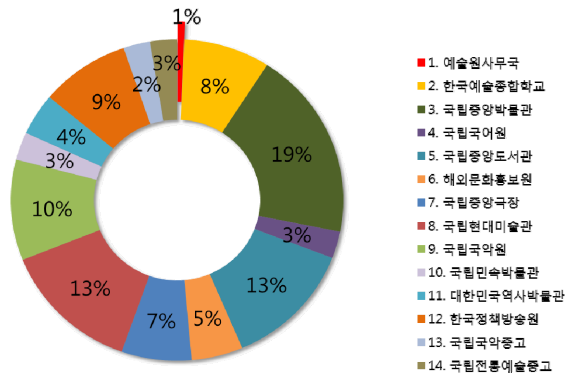
2014년도 「문화예술정책백서」에 따르면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총 예산 규모는(2014년) 총 5,240억이며, 예술원 사무국의 예산은 전체 국립문화예술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의 1%에 미달하는 37억 원이다. 2007년도의 국립문화예술기관별 예산 규모는 총 3,844억 원이었고, 이 중 예술원 사무국의 예산은 27억 원이었다.

〈표 2-5〉 2014년도 국립 문화예술기관 재정 현황

기관명	예산(단위: 백만원)	구성비(%)	비고
1. 예술원사무국	3,710	1	
2. 한국예술종합학교	44,185	8	
3. 국립중앙박물관	99,510	19	
4. 국립국어원	14,259	3	
5. 국립중앙도서관	66,727	13	
6. 해외문화홍보원	26,254	5	
7. 국립중앙극장	35,875	7	책임운영기관
8. 국립현대미술관	70,953	14	책임운영기관
9. 국립국악원	52,865	10	
10. 국립민속박물관	14,518	3	
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2,189	4	
12. 한국정책방송원	45,387	9	책임운영기관
13. 국립국악중고	13,842	3	
14. 국립전통예술중고	13,821	3	
합계	524,096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100

8)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림 2-3] 국립 문화예술기관의 예산 구성 비율

## 제2절

## 대한민국예술원의 관련 정책 및 법제도

1. 「문화보호법」 주요 내용<sup>9)</sup>

「문화보호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1952년 8월 7일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학문의 향상과 발전의 도모, 과학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학술원의 설치, 예술의 향상과 발전의 도모, 예술가를 우대하기 위해 예술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의 임기,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과학 또는 예술에 관한 우수한 연구를 한 자에게 정부가 표창을 하고 과학자 및 예술가 등에 대하여 장려금 및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자와 예술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법제화하였다. 이후 이 법은 1988년 12월 31일 「대한민국예술원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표 2-6〉 『문화보호법』 (시행 1952. 8. 7)의 주요 내용

제1장(총칙)	
제1조	본법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학자와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법에서 문화라 함은 학문과 예술을 말한다
제3장(예술원)	
제16조	예술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 예술가를 우대하기 위하여 예술원을 설치한다.
제17조	예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의 연구와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예술작품의 제작과 연구조성에 관하여 정부의 자문에 응하고 또는 정부에 건의한다.

9) 한범수(2014)가 작성한 국가기록원 자료를 토대로 작성 함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613>)

- 제18조** 예술원은 좌의 40인 이내의 회원으로서 구성한다.  
 1. 제19조의 예술가에 의하여 선거된 자 25인  
 2. 예술원의 회원에 의하여 추천된 자 10인 이내  
 3. 예술원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자 5인 이내  
 회원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수당 또는 연금을 받는다.  
 회원의 임기에 관하여서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 예술가로서 좌의 자격의 1을 가진 자는 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예술의 경력을 가진 자  
 2. 기타 예술경력 10년 이상의 자  
 예술가의 등록과 선거권행사에 관하여서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제20조** 예술원에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회장과 부회장의 직무에 관하여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자료: 법제처(<http://www.law.go.kr>)

## 2. 「대한민국예술원법」 주요 내용

「대한민국예술원법」은 「문화보호법」을 대체하여, 대한민국예술원법과 대한민국학술원법으로 분리되어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46호로 제정되었다. 이후 6차례 개정을 통해 2011년 4월 14일 현재 적용되는 법률 제10586호가 공포되었다. 전문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법률을 통해 예술원의 기능, 조직, 회원의 자격·선출·임기·대우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예술원의 설치는 예술창작에 공적을 세운 예술가들을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행함으로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원의 기능은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자문과 건의, 예술창작활동지원, 국내외 예술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등으로 대한민국예술원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예술원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7〉 『대한민국예술원법』 전문

<b>제1조(목적)</b>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2조(기능)</b>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 예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b>제3조(조직)</b>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b>제4조(회원의 자격)</b>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b>제5조(회원의 선출)</b>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b>제6조(회원의 임기 등)</b>
① 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b>제7조(회원의 대우)</b>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b>제8조(회장·부회장의 선출 등)</b>
①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b>제9조(회장·부회장의 임무)</b>
① 회장은 예술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과회장)**

- 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 ①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 ②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 ④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진력(盡力)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부담)**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5조(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국)**

- ① 예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자료: 법제처(<http://www.law.go.kr>)

## 제3절

## 대한민국예술원의 운영 현황

## 1. 대한민국예술원의 미션 및 역할

대한민국예술원의 미션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 활동 지원 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sup>10)</sup>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관이라는 예술원의 궁극적인 미션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예술원 회원들이 감당해야 할 최고의 사명이 예술의 발전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즉 예술 자체가 예술원 회원들에게는 단지 생업이거나 개인적인 취향이나 여가활동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과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인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예술원은 예술발전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정책적인 역할을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2)예술창작활동의 지원 3)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4)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및 5)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들이며, 이는 「대한민국예술원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5)항의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들은 법 제정 당시에는 고려할 수 없는 예술원의 미래지향적 역할을 대비하는 열려진 항목으로 새로운 시대에 예술원에 요구되는 역할들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예술원법」 제2조에 규정된 이 다섯 가지의 역할들은 이미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들인 예술원 회원들이 지명도에 안주하기보다는 그 공적과 지명도를 사회에 환원하여 국가와 사회가 예술발전을 추구해나갈 수 있는 문화예술자원으로 삼기 위한 신뢰와 명예와

10) 『대한민국예술원법』 (1988. 12. 31, 법률 제4046호.)



실용적 관점이 통합되어 있다.

예술원의 다섯 가지 역할의 유형과 성격을 분석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예술원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예술가로서의 근본적인 속성과 그 중에서도 탁월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창작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차원에서는 자신들만이 아니라 국가가 예술발전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 자문이나 건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술원 회원들은 예술창작의 현장에서 30년 이상 창작을 해온 전문가들로서 그들의 정보와 지식과 경험과 지혜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와 세계의 차원에서는 개별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표적인 예술가로서 국내외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에 참여하여 고유하고 탁월한 우리나라의 예술성을 세계에 전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홍보대사의 역할과 함께 그들의 예술을 통해 발전적인 창작을 할 수 있는 학습과 자극을 얻는 계기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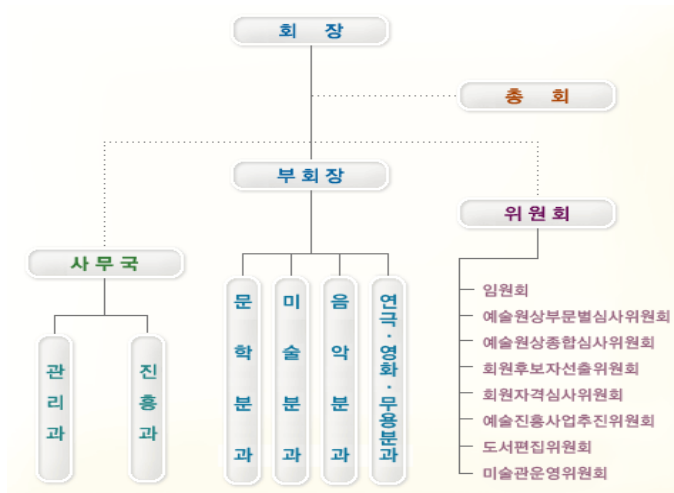
넷째, 국가가 모든 예술가들을 존중한다는 일종의 예술가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며, 예술가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사업으로 예술가들의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수상하는 대한민국예술원상이다. 모든 예술가들을 국가와 국민의 정신적 자원을 생산하는 선도자로 인식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예술가들의 개인적인 팬 그룹이나 장르별 소속 예술가단체에서 제공하는 수상에 비해 대한민국예술원상은 예술계 원로들이 추천하고 전국 단위에서 수상한다. 이는 일반 예술가들에게도 삶의 최종적인 성숙 단계에서 예술창작의 고통을 보상받는 인센티브형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겠다.

다섯째, 예측할 수 없는 국제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술원이 되기 위해 변화하는 사회적인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도 예술원의 미래지향적 역할이라고 하겠다.

## 2. 대한민국예술원의 조직 및 회원제도

### 가. 예술원 조직구성

예술원 조직은 크게 회원과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회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에는 임원회, 예술원상 부문별 심사위원회, 예술원상 종합심사위원회,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 회원자격심사위원회, 예술진흥사업 추진위원회, 도서편집위원회, 미술관운영위원회가 있다. 각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각 분과별 회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료: 대한민국예술원 (<http://www.naa.go.kr/>)

[그림 2-4] 대한민국예술원 조직구조

### 1) 회원

회원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의 네 개 분과로 구분되며, 회원의 총 정원은 100명이다.

### 2) 사무국

예술원 사무국은 회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정부기관이다.<sup>11)</sup> 사무국의 직원은 모두 국가 공무원으로,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과장은 서기관 중에서 임명된다.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예술원사무국직제규정」 및 「예술원사무국 직제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된다.

〈표 2-8〉 사무국 직원 현황

구분	고위공무원단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정원/현원	1/1	2/2	2/2	2/2	2/3	2/3	2/0	13/13
관리과	1	1	1	1	1	2	-	7
진흥과	-	1	1	1	2	1	-	6

현재 사무국은 관리과와 진흥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관리과에서는 주로 임용과 예산의 집행, 청사의 관리, 보안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진흥과는 예술원 회원과 예술 진흥 사업(예술원상 수여, 예술행사 개최, 국내외 예술교류, 정책자문, 미술관 운영 등)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3) 총회

총회는 예술원 최고 의결기관으로 예술원회원 선임, 대한민국예술원 상 수상자 결정,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제정 및 개정, 기타 중요사안

11) 대한민국예술원(2015), 『예술원요람 2015』

등 예술원 주요 의결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 4) 위원회

예술원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목적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상에 대한 심사와 선출을 진행한다. 각 위원회 조직의 구성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표 2-9〉 대한민국예술원 위원회의 성격

조직	구성	기능
임원회	- 예술원 회장, 부회장, 각 분과회장 등 총 6인으로 구성	- 총회 및 분과회에 부의할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규정에 의해 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술원상 부문별 심사위원회	- 위원장 : 위원중에서 예술원 회장이 지명 - 위원 : 예술원 회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로 구성 (외부인사 포함 가능)	- 예술원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심사 요구
예술원상 종합심사 위원회	- 15인 이내 - 위원장 : 예술원 회장, 부위원장 : 예술원 부회장 - 당연직 위원 : 각 분과회장(4인) - 선출직 위원 : 각 분과에서 선출	-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요구한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종합심사하여 총회에 제출
회원후보자 선출위원회	- 위원장 : 해당 분과회장 - 위원 : 해당 분과회원 전원	- 회원후보자 선출
회원자격 심사위원회	- 14인 - 위원장 : 예술원 회장 - 위원 : 예술원 부회장, 각 분과회장(4인), 각 분과에서 2인씩 선출	- 회원후보자 자격심사
예술진흥 사업 추진위원회	- 10인 - 위원장 : 예술원 회장 - 당연직 위원 : 예술원 부회장 각 분과 회장(4인) - 선출직 위원 : 각 분과에서 1인씩 선출(4인)	- 2개 이상의 분과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예술진흥사업의 기본계획 - 회장이 부의한 중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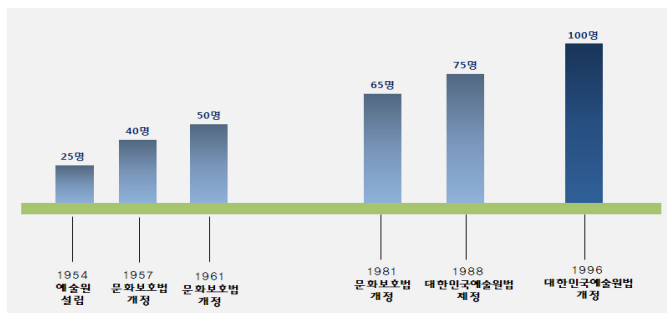
조직	구성	기능
미술관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인 이내</li> <li>- 위원장 : 미술분과 회장</li> <li>- 위원 : 미술분과 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미술작품 전시·수집·구입에 관한 사항</li> </ul>
도서편집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인</li> <li>- 위원장 : 예술원 회장, 부위원장 : 예술원 부회장</li> <li>- 당연직 위원 : 각 분과회장(4인)</li> <li>- 선출직 위원 : 각 분과에서 1인씩 선출(4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의 기본 계획수립</li> <li>- 원고집필자의 선정 및 위촉</li> <li>- 원고의 심사</li> <li>- 기타 간행물 발간에 따른 제 업무에 대한 결정</li> </ul>

자료: 대한민국예술원 (<http://www.naa.go.kr/>)

## 2. 예술원 회원제도

예술원의 회원으로 선출되면 전문 분야별로 분과에 소속되며,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의 4개의 분과로 구분된다. 예술원 설립 당시 정원은 25명이었으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원이 증원되었으며 1996년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원은 100명이다. 회원 선출 규정에 근거하여 분과별 정원은 문학 28명, 미술 25명, 음악 22명, 연극·영화·무용 25명을 최대 선출 할 수 있다. 예술원 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수당 또는 연금을 받게 된다.

### 가. 정원 및 현원



[그림 2-5]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원 변화

예술원 회원 정원은 1954년 개원 당시 25명이었으나, 법률 제·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증원되었다. 1957년과 1961년 문화보호법 개정을 통해 정원이 65명에서 75명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1996년에 다시 개정되어 정원 75명에서 100명으로 증원되었다. 분과별 회원의 수는 문학분과 28명, 미술분과 25명, 음악분과 22명, 연극·영화·무용분과 28명으로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표 2-10〉 연도별 정원·현원 변화 (2016년 8월 기준)

구분	정원	현원	분과별 현원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2016	100	91	27	19	22	28
2008	100	85	22	23	18	22
2001	100	77	21	19	17	20
1996	100	70	22	20	16	12
1988	75	48	18	10	12	8
1981	65	65	22	18	14	11
1960	50	48	15	13	11	9
1957	40	39	12	11	9	7
1954	25	25	7	7	6	5

## 나. 회원의 임기 및 변천

회원의 임기는 4년이며, 총회의 재신임을 통해 연임될 수 있다. 예술원 개원 이래 법률이 제·개정 되는 과정 속에서 기존회원이 종신회원으로 전환되거나, 연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종신제처럼 운영되고 있다. 현재의 회원 구분 및 임기는 1988년 개정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라 단일회원제, 임기 4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해 추대된 기존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하며, 임기는 종신으로 하였다<sup>12)</sup>

예술원 회원은 회원 또는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자 중,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선출된다.

〈표 2-11〉 회원선출 진행 과정

<p>회원후보자 추천의뢰 및 접수</p>	<p>추천권자 : 예술원회원,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장, 예술단체의 장 및 대학교 총·학장 필요서류 : 회원후보자 추천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회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연임절차의 경우 예외) 추천기한 : 5월 31일 전까지 추천하도록 통지하여야 함</p>
<p>분과별 회원후보자 선출</p>	<p>회원후보자 선출위원회 구성 - 분과별 『회원후보자 선출위원회』에서 결원 범위 내 회원후보자 선출 - 구성 : 분과회원 전원(위원장은 분과회장) - 의결 : 재적위원의 2/30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0이상의 찬성</p>
<p>회원선출</p>	<p>『예술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원 인준 - 각 분과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는 7일 이내에 회원후보자의 선출결과를 총회에 보고 - 선출 즉시 회원통지서 교부</p>

자료: 대한민국예술원(2015), 『예술원요람 2015』

12) 관련조항 『대한민국예술원법 부칙 (제4046호, 1988. 12.31)』에 따름. “(원로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예술원의 원로 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라고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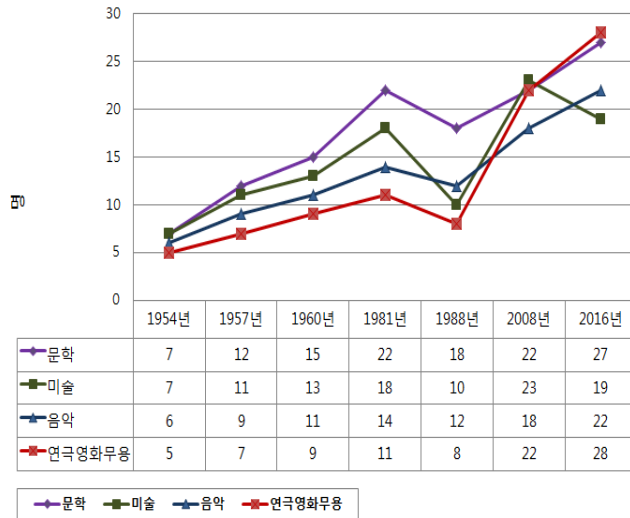
〈표 2-12〉 회원 구분 및 임기의 변천

법률근거	회원구분	임기	임명방법	정원	비고
문화보호법 제정 (법률 제248호) 1952. 8. 7	선거회원	3년	등록예술인 선거	25명	
	추천회원	6년	총회 추천	10명	
	임명회원	종신	원제청 → 대통령 임명	5명	
문화보호법 개정 (법률 제546호) 1960. 2. 4	추천회원	6년	위와 상동	50명	선거회원 폐지
	임명회원	종신	위와 상동		
문화보호법 개정 (법률 제345호) 1981. 12. 31	원로회원	종신	대통령 승인을 얻어 장관이 추대	15명	71세 이상
	정회원	4년	총회추천→장관제청 →대통령 임명	50명	정년 70세
	준회원	4년	총회추천→회장임명	150명	50세 이하
대한민국예술원법 제정 (법률 제4045호) 1988. 12. 31	회원	종신	기존의 원로회원(정원 외)	(12명)	정년제 폐지/회원 단일화
		4년 (연임 가능)	총회 인준	75명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 (법률 제5209호) 1996. 12. 30	회원	4년 (연임 가능)	위와 상동	100명	

## 라. 분과별 회원 수 및 성별

분과별 회원 수는 정원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했으며, 특히 연극·영화·무용 분과가 2000년도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즈음 우리나라 대중예술이 예술의 중요한 축으로 발돋움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예술원 회원의 전체 성별 구성은 현재 남성이 65%이며 여성의 비율은 35%이다. 이전과 비교하여 여성 예술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6] 분과별 회원 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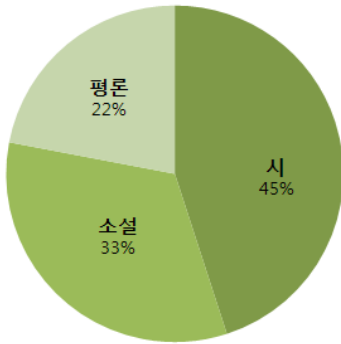
〈표 2-13〉 회원의 성별 구성

(2016. 0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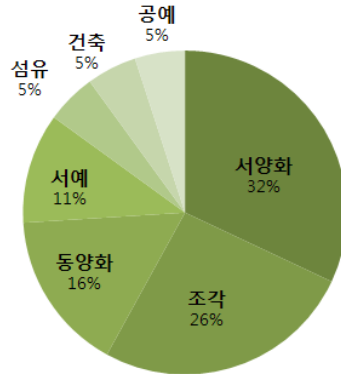
구분	계(명)	남(%)	여(%)
계	91	59(65%)	32(35%)
문학	27	20(74.5%)	7(25.5%)
미술	19	16(84%)	3(16%)
음악	22	13(59%)	9(41%)
연극·영화·무용	23	10(43%)	13(57%)

## 라. 분과 전공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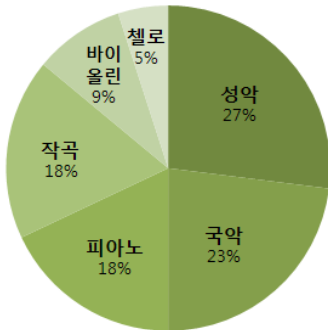
2016년 8월 현재 분과별 현원은 문학 27명, 미술 19명, 음악 18명, 연극·영화·무용이 23명으로 총 91명이 예술원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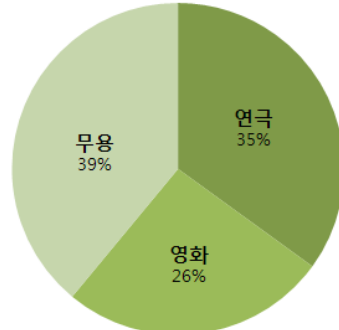
[그림 2-7] 문학분과 구성



[그림 2-8] 미술분과 구성



[그림 2-9] 음악분과 구성



[그림 2-10] 연극·무용·영화분과 구성

문학분과는 총 27명으로 시 부문이 12명(45%)으로 가장 많고, 소설이 9명(33%), 평론이 6명(22%)으로 나타났다.

미술분과는 총 19명으로 서양화 6명(32%), 조각 5명(26%), 동양화 3명(16%), 시예 2명(11%), 섬유 1명(5%), 건축 1명(5%), 공예 1명(5%)으로 나타났다. 1994년 건축 부문의 회원(이광노 건축가)이 처음 선출되었으나, 사진 및 비디오(미디어) 아트,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회원이 선출되지 않고 있다.

음악분과는 총 22명으로 성악 6명(27%), 국악 5명(23%), 피아노 4명(18%), 작곡 4명(18%), 첼로 바이올린 2명(9%), 첼로 1명(5%)이다.

연극무용영화 분과는 총 23명으로 연극 8명(35%), 영화 6명(26%), 무용 9명(39%)으로 나타났다.

### 3. 운영예산 및 청사

#### 가. 운영예산 및 현황

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정부 기구로서, 예술원 운영 및 사업에 관련한 모든 예산은 정부 예산에 계상·집행된다. 2015년 기준 예술원 예산 총액은 36억8천1백만 원이었다. 예술원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술원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 및 위로금으로 전체 예산의 56%(20억5천9백만 원)를 차지하였다. 예술원 사무국 인건비 및 기본 경비는 전체 예산의 25%(9억2천5백만 원)로 나타났다.

이밖에 예술원상과 창작 및 교류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예산의 10%(3억5천8백만 원)와 회원 예술세계 기록화 사업 3%(1억2백만 원)를 포함하여 분과별 예술진흥 사업이 5%(1억9천만 원)로 총 예산의 18%(6억5천만 원)가 예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작지원 및 예술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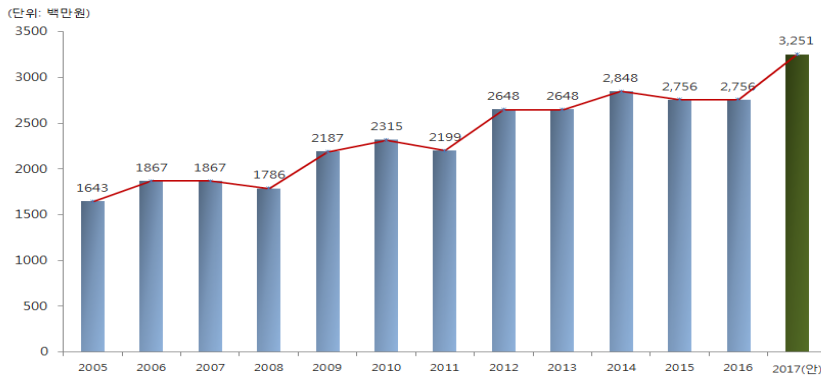
사업의 건수가 다양한 것에 비하면 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예산이 소규모로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술원 사무국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제외한 예술원 운영 예산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6년 기준 27억5천6백만 원이며, 2017년에는 32억5천1백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표 2-14〉 대한민국예술원 2016년도 편성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예산	구성비(%)
<b>1. 예술원 운영</b>	<b>2,756</b>	<b>75</b>
- 회원 정액 수당 및 위로금	2,059	56
- 신입회원 선출 및 회의 수당	47	1
- 예술창작 / 교류활동 지원	358	10
- 회원 예술세계 기록화	102	3
- 분과별 예술진흥	190	5
<b>2. 예술원 사무국 인건비</b>	<b>785</b>	<b>21</b>
<b>3. 예술원 사무국 기본경비(총액)<sup>13)</sup></b>	<b>41</b>	<b>1</b>
<b>4. 예술원 사무국 기본경비</b>	<b>99</b>	<b>3</b>
<b>총계</b>	<b>3,681</b>	<b>100</b>

자료: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 세출결산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2-11] 예술원 예술진흥사업예산 변동 추이

## 나. 예술원 청사 현황

예술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서초구 반포동에 총 건립비 약 29억 원으로 건립된 3층 규모의 신청사로 1954년 함께 창설된 학술원과

13) 예술원 사무국 기관운영에 필요한 총액 인건비 대상 경비

함께 1987년에 동시 입주하였다.<sup>14)</sup> 입주 이후 지금까지 29년 동안 학술원과 예술원이 함께 청사를 사용하고 있다.

신청사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청사 건물은 문교부(現 교육부) 소속의 국유재산으로 학술원과 예술원이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관리하였으나, 1989년 예술원이 문화공보부(現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청사 건물 운영 및 관리 업무는 학술원이 전담하게 되었고 예술원은 학술원 사무국 건물의 일부(328.4평)를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무국 사무실 및 회의실, 미술관, 자료실 등 주로 1층을 활용하고 있다.



자료: 대한민국학술원 (<http://www.nas.go.kr/intro/intro/present.jsp>)

[그림 2-12] 대한민국학술원·예술원 청사 전경

#### 4. 주요 추진사업 및 성과

예술원의 주요 사업은 크게 예술진흥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다. 예술진흥사업에는 대한민국예술원상, 예술원회원 세미나, 예술원회원 국제교류, 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술 강연회, 분과별 예술진흥 사업으로 총 6가지가 있으며 일반사업에는 예술도서 발간, 예술원 미술관 운영, 예술원 도서실 운영으로 총 3가지가 있다.

14) 대한민국학술원 홈페이지(<http://www.nas.go.kr/intro/intro/present.jsp>)

## 가. 예술진흥사업

### 1) 대한민국예술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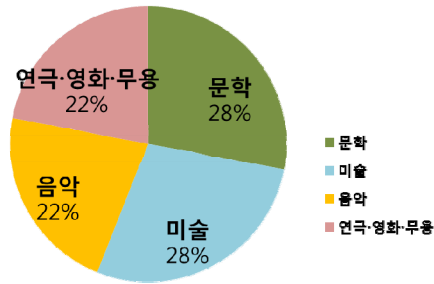
대한민국예술원상은 예술원 설립 이후, 1955년부터 시행해 온 예술진흥사업 중 대표사업이다. 국내 문화예술계 인사 중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 작품 제작 또는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시상하여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상부문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으로 총 4개 부문으로 하며, 부문별로 1인을 선정하여 매년 총 4명의 시상자를 선발한다. 2016년도까지 모두 204명에 달하며 시상내용은 상장과 휘장, 50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이 상은 대한민국학술원상과 함께 해당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상이다.

〈표 2-15〉 예술원상 개요

시상부문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4개 부문)
시상인원	부문별 각 1명(총 4명)
시상내용	상장, 휘장 및 상금 각 5천만원 상금
시상식	매년 9월 초 / 예술원 대회의실

수상자 선정은 『예술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된다. 2016년까지 총 61회의 시상식이 개최되었으며, 역대 수상자는 총 204명이며, 분야별 수상자는 문학 56명, 미술 57명, 음악 45명, 연극·영화·무용 45명이 예술원상을 수여받았다.



[그림 2-13]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 분과별 비율

〈그림 2-13〉을 통해 예술원상 수상자 부문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문학과 미술 부문이 28%, 음악과 연극·영화·무용 부문이 22%로 각 예술 분과별로 고르게 수상자를 선별한 것을 알 수 있다.

예술원 회원을 예술원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대한민국예술원상시상규정」의 개정(2007. 12. 17)에 따라 현재는 예술원 회원은 수상을 할 수 없으며, 외부 인물에게 수여를 하고 있다.

## 2) 예술원회원 세미나 개최

국내 문화예술계의 현안과 주요정책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우리 문화예술계의 현안 해결과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정책대안으로 제시코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을 대상으로 1968년부터 매년 개최(5월 중)하였으며, 2015년까지 총 50회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표 2-16〉 연도별 회원세미나 개최 현황

회수	년도	분과	주제
50	2015	미술·연극·영화·무용	세계 주요 미술관 소고, 발레란 무엇인가
49	2014	문학·연극·영화·무용	모국어의 정체성에 대하여 '시인의 사랑'(슈만)연주/바리토너 박흥수 초빙
48	2013	미술·연극·영화·무용	한국인의 색채의식, 오늘의 우리영화
47	2012	문학·음악	孤雲 崔致遠과 凡父 金鼎高 실크로드 지역 무카무(木卡姆)의 음악적 특징

회수	년도	분과	주제
46	2011	미술 · 연극	오리지널 판화 아직도 유효한가? 고도를 기다리며! 42년
중 략			
6	1973	문학	현대예술의 특질
5	1972	음악	국악의 진로
4	1971	연극	'괴테'의 논
3	1970	미술	서예의 예술성
2	1969	문학	예술행정과 예술원의 기능
1	1968	문학 · 연극 · 영화 · 무용	민족적 주체성과 예술의 문제

자료: 대한민국예술원 (<http://www.naa.go.kr/artbiz/artbiz04.asp>)

초기에는 예술에 대한 일반론적 주제를 가지고 주로 개최되었으나, 최근에는 세계 예술 흐름, 예술계 이슈 등 변화하는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토론을 주제로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3) 예술원 회원 국제교류

국제예술회의 및 주요행사 참석을 통하여 국제 예술계 동향 파악 및 한국예술 소개, 국제교류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다. 매년 2명 내외의 회원을 국제예술회의 및 주요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972년부터 국내외 저명 예술가들의 주제 발표 및 질의 토론을 통해 국제 예술계의 신경향과 사조를 이해하기 위한 국제예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2009년부터 현재는 회원 국제교류활동을 개최하고 있다.

### 4) 예술창작활동 지원

회원들의 연구논문 및 저서발간, 공연 및 전시, 작품제작 등 예술 활동 지원, 국내 학계의 연구 및 공연전시 등 문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983년부터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문화예술계 원로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분과별 창작활동 지원금을 일부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주로 저서



발간, 시낭송회, 미술전, 음악회, 연극 및 영화전 등에 활용된다.

지원 부문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으로 4개 분과이며, 연구논문, 공연, 출판, 전시회 개최, 작품제작 등의 사항에 대하여 각 분과별로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2-17〉 최근 3년 간 예술활동 지원 내역

년도	지원 내용	비고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정과 생명의 시학 - 김후란 깊이 읽기(평설집)</li> <li>- 김화영 번역수첩</li> <li>- 한국 색면 추상의 새로운 탐색</li> <li>- 장혜원 피아노 독주회</li> <li>- 바리톤 김성길 &amp; 피아니스트 달톤 발드윈 리사이틀(독창회)</li> <li>- 백성희의 삶과 연극 '연극의 정석'</li> </ul>	분과별 각 20백만원 지원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갈〉, 〈겨울골짜기〉, 〈아우라지가는 길〉</li> <li>- 바간의 꿈</li> <li>- 신리수교기록성화</li> <li>- 이영자 작품 연주회-아픈사랑의 노래-</li> <li>- 작곡가의 초상-韻 Project</li> <li>- 2014 김숙자·최원선의 춤-춤의 여정 맥을 잇다-</li> </ul>	분과별 각 20백만원 지원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처와 영광 - 내 문학세대의 정신사</li> <li>- '살다가 보면' 시선집, '추사를 흠치다' 시집</li> <li>- 회고전 작품전 및 도록집 발간</li> <li>-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Fantasies' 작곡집 발간</li> <li>- 바다의 날 기념음악회 김민&amp;바로크합주단 공연</li> <li>- 박현숙 수상화곡선집</li> <li>- 한일대역 창작시나리오 선집 발간</li> </ul>	분과별 각 20백만원 지원

자료: 대한민국예술원 (<http://www.naa.go.kr/artbiz/artbiz04.asp>)

주: 1983~2012년까지의 지원 내역은 생략하고, 최근 3년 지원 내역을 정리함.

## 5) 예술 강연회

예술원 회원들의 강연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 및 지역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매년 예술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예술원 주최로 매년 3~10월경, 지역 문화예술행사와 연계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 문화기관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여 전국 주요도시 10개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다. 특히 각 지역별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6) 분과별 예술진흥 사업

예술원 회원들의 예술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과의 소통 및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과별로 예술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추진 사업으로는 사소설 낭독회, 미술전, 음악회, 연극·영화·무용전이 있다. 특히 예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술전은 한국 현대미술의 정통성을 이어온 국내 원로작가들인 회원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전시회이다.



자료: 대한민국예술원 내부자료

[그림 2-14] 제34회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현황

음악회와 사·소설 낭독회도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예술원 청사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반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행사로 모두 국민적 예술 향유를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관련 행사의 홍보가 미비하고 전문 인력의 활용 등은 미흡한 편이기에 향후 전문적인 기획과 인력을 활용하는 등 여건을 개선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일반사업 추진

### 1) 예술도서 발간 사업

〈표 2-18〉 예술도서 발간 사업

도서명	도서의 내용과 발간 현황
예술원보	회원의 작품과 예술창작 활동, 연간 주요사업 실적을 소개하고 있으며 1955년부터 2015년까지 총 58호를 발간
예술논문집	예술원회원과 국내 학자들의 최신 연구논문을 발간하고 있으며 1962년부터 2015년까지 총 54집을 발간
한국예술총집	예술발전사 및 공로예술인의 업적과 연구논문을 소개하며 1986년부터 비정기적으로 1개 부문씩 시리즈로 총 18집까지 발간
예술원 요람	1972년부터 예술원 및 회원현황, 주요사업내역, 관련법령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매년 발간

예술발전사, 예술관련 연구논문, 공로예술인들의 업적 등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여 보존 및 보급하기 위하여 예술도서를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발간 도서로는 예술원보, 예술논문집, 한국예술총집, 예술원 요람 등이 있다.

### 2) 예술원미술관 운영

한국 미술의 경향을 이해하고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원 회원의 대표 작품을 수집하고 보전하기 위해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화 26, 서양화 44, 조각 16, 서예 11, 공예 7, 건축 3, 총 107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들 작품 중 65점은 구입하였고, 42점은 수증 받았다.

회원 작품을 구입하거나 예술원 수상자가 기증하여 작품을 확보하고 있으며, 확보된 작품들은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소장작품전, 기획전 등의 전시를 개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 3) 예술원도서관 운영

예술원 내부에 육필원고, 논문, 저서, 전시 및 영상 자료, 기획기사, 화보 등 회원의 예술창작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예술원회원 전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자료, 예술원 발간자료, 일반자료 등 ‘도서’ 약 8천여 권, DVD, 비디오테이프, CD-ROM 등 ‘비도서’ 약 89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 다. 사업추진 성과 및 분석

대한민국예술원상은 사업비 면에서 볼 때, 주요 사업 예산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예술원상의 운영의 활성화와 권위를 제고하기 위해 예술원 회원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대한민국예술원시상규정」의 개정안(2007. 12. 17)을 통해 운영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운영 변화로 인해 일반인 및 현장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예술원의 인지도 및 권위가 일정 부분 제고되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앞으로 예술원상과 예술원상 수상자에 대한 홍보를 통해 예술원상의 권위와 위상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예술원 세미나는 서로 다른 분과 회원 간, 장르 간 소통과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는 사업이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하나의 장을 마련해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한국문화예술계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예술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이 실제 정책이나 문화예술 현장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현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세미나 결과 활용을 위한 정부의 수용이나 소통의 채널 등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예술원회원 국제교류사업은 매년 2명 이내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개인 단위의 소극적인 교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원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 예술원, 문화원 및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교류와 활동이 요구된다. 주요 국제 행사 참석 및 한국 예술을 소개하기 위해 관련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교류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하고, 참여 회원들의 자율적인 수요에 기초한 좀 더 실질적이고 확대된 교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술원에서는 예술 진흥 사업뿐만 아니라 예술도서 발간 및 미술관, 도서관 운영 사업 등의 일반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술 논문집과 예술원보 등의 예술도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발간 부수가 매우 적고 배부 및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예술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발간 자료가 제목과 목차 등 일부만 예술원 홈페이지 상에 제공될 뿐 원 자료가 디지털화 되지 않아 일반인이 공유하기가 어렵다. 발간 자료에 대한 접근성 증대와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제3장 ●●

대한민국예술원 발전전략  
수립 관련 주요 논점







## 제1절

## 대한민국예술원 운영시스템

## 1. 사무국 중심의 운영과 전문 인력 수요

현재 대한민국예술원의 사무국(이하 예술원 사무국)은 정책자문 및 건의, 회원선출, 예술원상 수여, 예술행사 개최, 국내외 예술교류, 예술연구와 지원, 도서 및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및 관리, 미술관 운영,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예술원 총괄 운영 역할을 담당한다.<sup>15)</sup> 사무국은 국장 1인을 두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다. 국장은 예술원 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 통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예술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이하 공무원 12명으로 총 13명이다.<sup>16)</sup> 예술원 미술관에 대한 전문 인력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예술원이 국가의 예술발전을 선도하는 기구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예술원의 미술관과 도서관 등에 예술원 회원들과 방문객들에게 예술 관련 전문적 서비스를 매개하고 제공할 전문 인력 배치가 필수적이다.

〈표 3-1〉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공무원 정원

구분	정원(명)
계	13
일반직 계	13
고위공무원단	1
4급 이하	13 (서기관 2,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2,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1,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자료: 대한민국예술원(2015), 『예술원요람』, 대한민국예술원, p.130

15) 대한민국예술원(2015), 『예술원요람』, 대한민국예술원, p.127

16) 예술원사무국직제(2013.12.11. 대통령령 제 24953호)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총 정원의 3%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둘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 2. 예술원 조직 및 분과의 제한적 범위

대한민국예술원은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있으며, 100명의 예술원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되어 있다. 전문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으로 구분되어 총 4개 분과를 두고 있으며, 각각 약 20여명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일차적인 분과조직 구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문학, 미술, 음악 등과 달리 연극·영화·무용은 독자적인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데 묶여져 그 세 장르가 마치 한 개의 예술장르와 같이 취급되고 있는 것은 조정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7)</sup> 또한 전형적·전통적 예술 장르를 중심으로 분과가 구분되어 있고 분야별 정원이 정해져 있어, 새로운 장르의 예술가 진입과 정액 수당의 수혜자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술의 전문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으로만 한정될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에는 예술의 영역이 융복합되어 새로운 예술창작 분야가 생겨나고 있다. 예술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예술원은 4개의 분과를 한정하여 회원을 선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일부의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홍문종 국회의원 등은 올해 7월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예술원의 분과 범위 확대 및 구체화에 대한 내용을 발의하였다. 이는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예술가들을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원이 현재 문화,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의 4개 분과만 두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발의되었다.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분과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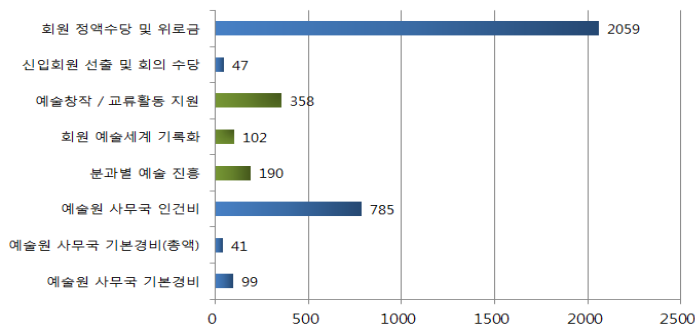
17) 김태주, 김종원, 김태원(2014), “창조적 ‘문화융성’의 구체적 실현방법이 없다”, 『공연과 리뷰』 통권86호, 현대미술사, p.14,

및 만화]”의 범위와 같이 명시하여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폭넓게 포함시키  
고자 하고 있다.<sup>18)</sup>

### 3. 예술진흥사업 예산의 부족

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정부 기구이며, 예술원과 관련한 모든  
예산은 정부 예산에서 집행된다. 2015년 기준 예술원 예산은 36억8천1백  
만 원이었다. 이 중 전체 예산의 75%인 사업비는 27억5천6백만 원이며,  
나머지 25%인 9억2천5백만 원이 사무국 인건비 및 기본 경비로 소요되었다.

(단위: 백만원)



자료: 대한민국예술원 <2015년 세출 결산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림 3-1] 대한민국예술원 예산 구성

예산 현황을 통해 주요 사업비를 살펴보면 회원수당, 예술원 회원 선출  
및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 예산 중 57%(21억6백만 원)로 가장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예술창작 및 교류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예산의  
10%(3억5천8백만 원), 회원 예술세계 기록화 사업 3%(1억2백만 원), 분과별  
예술진흥 사업 5%(1억9천만 원)로 총 예산의 18%(6억5천만 원)가 예술진흥  
사업에 소요되고 있다.

18) 아시아뉴스통신(2016.07.18.), 홍문중 국회의원,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는 전체 예산 중 창작지원 및 예술진흥사업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인다. 총 예산의 18%에 불과한 사업비 예산을 증액하여 예술원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2절

##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선출과 유지

## 1.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회원 선출 방식

대한민국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5조(회원의 선출)에 따라 해마다 예술원 회원을 선출하고 있다. 예술원 회원은 접수된 사람들 중 회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되며,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경우 총회에서 정하게 된다. 선출 요건은 분과별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에서 재적의 2/3이상이 출석하여 출석회원의 2/3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총회 인준에서 재적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회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회원의 선출 규정에 의하면 회원은 회원 또는 예술원이 지정한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회원후보자의 접수는 추천접수로 통해 이루어지며, 추천접수 후 분과별 회원후보자선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후 총회 인준을 거치는 것이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선출 절차이다. 예술원회원 선출 규정에 의한 이러한 선출절차를 거쳐 예술원은 매년 100명 정원의 결원 내에서 신입회원을 선출하고 있다.<sup>19)</sup> 2015년 기준 1명<sup>20)</sup>의 신입회원을 선출하였고, 2016년에는 7명<sup>21)</sup>의 신입회원을 선출하여 2016년 8월 현재 총 9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예술원법 제4조 회원의 자격을 살펴보면,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예술원은 누가, 어떤 업적으로 국내

19) 예술원회원 선출 규정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예술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0) 연극·영화·무용 분과 영화배우 김지미

21) 시인 신달자, 소설가 윤희길, 바이올린 연주자 김남윤, 연극배우 손숙, 한국무용가 정승희(鄭承姬), 발레리나 김민희, 현대무용가 박명숙

문화예술계에서 진정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구인데, 내부 추천접수로 진행되는 선출과정과 선정 기준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sup>22)</sup>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예술원은 회원 선출 구조의 추천 방식에 내포된 추천 근거와 논리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탄력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 2. 회원 임기제도의 불명확성

예술원과 같은 기구들은 나라마다 그 역사와 문화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문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직 구조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일례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일랜드의 한 여성 극작가는 연령이 45세임에도 아일랜드 내 예술원 기구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즉 회원들 각자는 활동을 멈춘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예술 활동 또는 저술 활동 등 어떤 보람 찬 끝맺기나 결실을 맺는 과정을 예술원을 통해 보여주며, 문화예술계의 중심(中心)을 잡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23)</sup>

이와 달리 대한민국예술원은 임기는 4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므로 종신제의 형태를 띠고 있고, 연임은 자체적인 절차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현재 정원은 100명으로 제한적인데, 내부적으로 연임을 결정할 경우, 신규 회원 선출에 한계가 있으며, 진입장벽이 생기게 된다. 이는 곧 회원 연령대의 고령화로 이어지며, 고령화된 회원들에 의해 일정부분 이상의 내외부적 활동이 제한되어 조직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번 회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자격에 대한 추가적, 정기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원 연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22) 김태주, 김종원, 김태원(2014), “창조적 ‘문화융성’의 구체적 실현방법이 없다”, 『공연과 리뷰』 통권86호, 현대미학사, p.14

23) 앞의 글(2014), p.14

## 제3절

## 예술인 예우 및 지원체계

## 1. 대한민국예술원상의 사회적 권위 부족

예술원에서 주관, 시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원상은 1954년 예술원 설립 이후 1955년부터 시행하여 온 대표 사업이다. 1955년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대한민국학술원상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해당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상으로 평가된다.

시상부문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 4개 부문으로 매년 4명 이내에서 시상되고 있으며, 시상 대상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하였거나 작품을 제작하고 또는 이에 관한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예술원 분과나 예술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예술원상과 관련하여 예술원회원이 수상자로 선출되는 구조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술원회원을 수상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시상규정을 개정하였다.<sup>24)</sup> 이에 따라 2008년부터는 예술원회원이 아닌 비회원에게 예술원상 수상의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sup>25)</sup> 이러한 시상규정 개정 등의 노력을 통해 예술원상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권위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24) 「대한민국예술원상시상규정」, 2007. 12. 17 개정안

25) 예술원 회원을 예술원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대한민국예술원상시상규정」의 개정(2007. 12. 17)에 따라 현재는 예술원 회원은 수상을 할 수 없으며, 예술원 외부 인사에게 시상하고 있다. 2015년(제60회)까지의 수상자 구성을 보면 전체 203명의 수상자 중에서 예술원 회원이 131명으로 6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 현황(1955년-2015년)

시상부문	인원	구성 비율(%)	비고
문학	56	28	
미술	57	28	
음악	45	22	
연극·영화·무용	45	22	
계	203	100	회원비율: 64.5%

자료: 대한민국예술원(2015), 「예술원요람」, 대한민국예술원, p113

하지만 심사 전체 과정에서 예술원 회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계속 되고 있으며,<sup>26)</sup> 최종 결정이 총회의 투표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결정과 관련한 일련의 심사가 요식 절차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다.<sup>27)</sup>

또한 예술 활동의 국가적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국외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매년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위주로 수상자를 선정하였고, 연령대가 높은 예술가 위주로 수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젊은 예술가들은 외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업적보다 연공서열을 우선하는 국내 다른 문화 관련 상들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이 생겨나 예술원상에 대한 사회적 권위와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예술원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권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및 예술인의 바른 경쟁과 창작 의욕을 함께 고취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예술원상 후보자 및 수상자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선정 절차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불식 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예술원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유지된 최고의 명예로운 상임으로 시상식을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대외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시상식 행사를 ‘대

26) 매일경제(2014.07.06.), “대한민국예술원 그들은 누구?”

27) 한국일보(2012.07.26.), “예술원상 ‘해프닝’ 올해는 3명뿐 왜?”



한민국예술원상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지원금 외 사회적 우대 방안 미흡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으로 선출되면 「대한민국학술원법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sup>28)</sup>에 의거하여 월 180만원의 정액수당을 받고 총회, 분과회의 등 회의 참석 시 매회 10만원, 기타 입원 시 위로금과 장례 보조비를 지급받는다.

해외의 유사 기관의 경우 회원 예우 방식은 회원이 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일종의 명예직이라고 인식된다. 또한 일본 예술원을 제외하고는 정액 수당을 통한 회원 예우는 없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금 보다는 신규 회원 선출권이나 각종 시상에서의 심사권 등을 통해서 회원의 권위와 명예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예술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에 참여하고 문화청 청장에게 의견을 적극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 기관들의 경우에도 사회공헌 사업이나 정책 자문, 컨설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원금 외의 사회적 우대 방안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8) 「대한민국학술원법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은 대통령령 제24423호로 시행되며 대한민국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학술원 및 예술원 회원에게는 매월 지급되는 정액수당과, 회원이 참석하는 회의에 대한 수당과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교육부 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4절

## 대한민국예술원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

## 1. 중장기적 비전의 설정 필요

예술원이 설립된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예술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또한 국민 소득이 향상되면서 예술 향유의 필요성과 저변도 넓어지고 문화예술과 관련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반면 문화예술의 근간이 되는 일반 예술인과 대한민국예술원의 예술인들에 대한 처우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예술원에서는 60여 년 간 같은 사업들이 거의 변함없이 시행되어 변화하는 예술계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중장기적 비전과 사업전략이 부재하고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미션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술원은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지난 2008년에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sup>29)</sup>를 통해 기존의 예술원과 관련한 정보를 정리하고, 기존의 미션을 계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충분히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또한 국가적 지원도 충분치 않아 예술원 예산이 직접적 예술창작 활동에 쓰이기보다 회원 개개인을 위한 사업비 지출에 치중되어 있고, 연구에서 제시한 청사진, 예술 활동의 장려, 환경변화와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역할 모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sup>30)</sup>

따라서 예술원에 대한 현황과 논점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새로운 중장기 목표 및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도출된 발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국 사무국의 긴밀한

29) 대한민국예술원(2008),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30) 연합뉴스(2006. 10. 01.), “예술원 예산, 회원 사업비에 치중”

협조를 토대로 기관 전체가 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독립 청사 마련으로 예술원 위상 재정립 필요

예술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1954년 함께 창설된 학술원과 함께 1987년 서초구 반포동에 3층짜리 학·예술원 신청사를 설립하여 동시에 입주한 건물이다. 설립 당시 예술원 회원은 65명, 학술원 회원은 100명(정원 기준)으로 3층짜리 건물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후로 지금까지 29년 동안 학술원과 예술원이 함께 청사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1988년 학술원법이 개정되면서 학술원의 회원 정원이 150명으로, 1996년 예술원법이 개정되면서 예술원의 회원 정원도 100명으로 늘어났다. 1980년대 후반에 비해 학술원과 예술원의 양쪽 회원을 합한 수가 100명 가까이 증원되었고,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여 양 기관은 중앙 부처에 모두 공간 부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sup>31)</sup>

예술원 미술관의 경우 130평 규모로 미술전 및 예술원 소장 작품전 등에 활용을 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며 작품을 보관하는 수장고는 10평 남짓의 공간으로 규모나 보관 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렇듯 다양한 사업(예술원 미술관과 음악회, 연극·영화·무용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청사가 자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예술 작품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또한 필수적이다.

개관 당시, 학술원과 예술원은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 산하에 함께 있었고, 건물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개념이었으나 1989년 예술원이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속이 바뀌고, 건물관리를 학술원이 전담하게 되었다. 현재 예술원은 국유재산인 학술원 사무국 건물의 일부(328.4평)를

31) 동아일보(2013.05.22.), “예술원 새 둥지 어디 없소”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무국 사무실 및 회의실, 미술관, 자료실 등 주로 1층을 활용하고 있으며, 2층과 3층은 학술원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학술원 정원의 증가로 회원 수도 예술원에 비해 훨씬 많아 공간 사용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예술원 사무국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 덕수궁 석조전과 대학로 예총회관 등을 이전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며, 실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살핀 적도 있지만 실제로 이전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다.<sup>32)</sup> 향후 회원들이 활동하기에 편리하고 대중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서로간의 소통이 활성화 될 장소로 청사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3. 대한민국예술원의 국민적 인지도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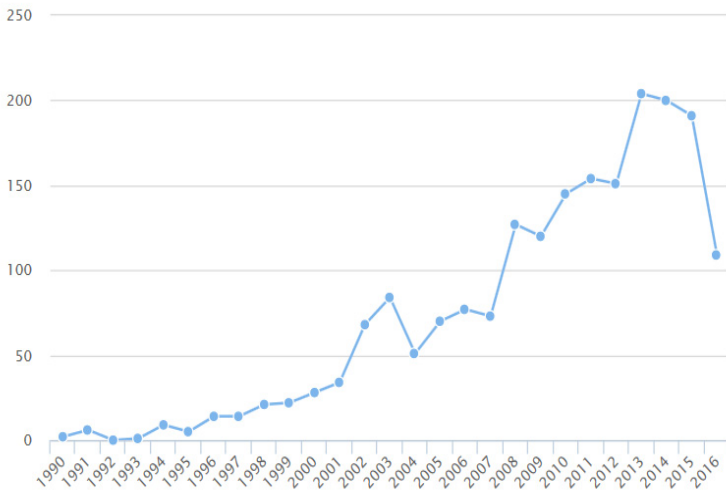
대한민국예술원 설립 60주년이 지났지만 예술원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2008년에 연구된 『대한민국 예술원 중장기 목표와 발전방향』에서 예술인 및 예술정책 전문가를 대상<sup>33)</sup>으로 조사한 예술원에 대한 인지도는 대부분 예술원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원의 구체적인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이 아닌 외부의 예술계 전문가들에게 예술원 인식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예술계 전문가보다 전문 분야에 관심이 적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을 확장한다면 전 국민적 인식은 더욱더 낮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일반인들이 예술원에 대해 주로 접하는 언론보도 내용 및 태도를 분석해 보는 것은 예술원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와 한계 및 예술원에 대한 국민 정서와 여론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예술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보도된 주요 기사를 한국언론재단이 구축한

32) 서울신문(2009.01.16.),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김수용” 인터뷰 기사

33) 각 예술 장르별 예술인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15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조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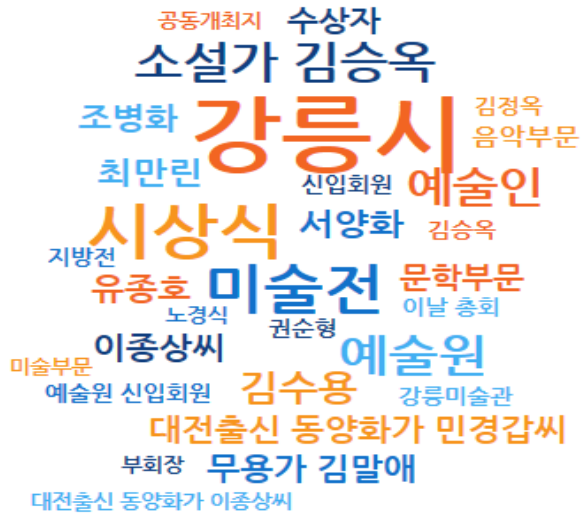
종합뉴스DB '카인즈(www.bigkinds.or.kr)'에 수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추출해보았다. 예술원과 관련된 기사는 현재(2016. 09. 01 기준) 1,982건으로 나타났으며, DB에 구축된 첫 기사는 1990년의 보도내용이다. 1990년 처음 DB에 구축된 기사부터 현재 2016년까지 총 1,982건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2건의 기사부터 시작하여, 2013년에 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 현재 109건의 언론보도 및 기사에서 예술원이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자료: 카인즈홈페이지(<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Chart.do>)

[그림 3-2] 대한민국예술원 언론보도 및 기사 언급 추이

예술원과 관련한 언론보도 및 기사 연관 이슈를 살펴보면 대체로 예술원 사업 중 미술전과 시상식이 가장 많이 노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술원 회원 선출과 관련하여 회원의 이름이나 분과별 부문의 이름이 보도되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예술원이 추진하고 있는 세미나, 음악회 등의 여러 사업과 국제 교류활동 등의 이슈들은 오히려 노출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세미나, 음악회, 전시회 등 예술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예술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자료: 카인즈홈페이지(<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Chart.do>)

[그림 3-3] 대한민국예술원 언론보도 및 기사 연관 이슈

제4장 ●●

대한민국예술원의 예술 환경과  
예술 패러다임 변화







## 제1절

## 예술창작 패러다임의 다변화

## 1. 예술의 수요·공급 변화

예술은 한 사회의 보편화된 생활양식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다.<sup>34)</sup> 유럽의 산업혁명 전 예술품은 수공업과 맞물려 실용적 공예품이나 주문 제작형 초상화, 역사적 기록화가 대부분이었고 후원자가 없으면 예술가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 시대에는 예술품은 존중받았으나 예술품을 만든 예술가는 존중받지 못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가와 상인들의 부가 축적되면서 소수 귀족층에 한정 되어 주문·생산되던 예술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해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예술작품은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투자물로서 한층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예술가의 경제적 지위와 부가 커지면서 예술가 지망생이 늘어났고, 예술의 공급도 늘어나면서 예술가의 분류도 매우 다양해졌다. 또한 소득이 정기적으로 보장된 노동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값싼 대중예술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여 예술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로 양분화 되었다.<sup>35)</sup>

대중예술의 등장으로 인해 예술가들은 대중이라는 이름 없는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들을 위해 예술작품을 만들게 되었고 예술가의 생존이 후원 가라는 사적 지원으로부터 시장이라고 불리는 불특정다수의 수요에 의한 스타시스템이라는 대중적 인기에 의한 보상 형태로 바뀌었다. 생산에서도 예술가만의 독자적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예술가-시민’이 등장하였으며, 심지어 시민 중심의 생산 방식도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sup>36)</sup> 그러나

34) 문화예술경제학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은 예술이란 인간 생명과 생활의 발전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며, 보편화된 생활양식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35) 소병희(2008),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문화예술 향수증대를 위한 정책 제언」, 『문화정책논총』, 통권 20호, pp.106-125.

36) 거제시 안전행정국 문화공보과(2013), 「거제시 문화예술인 발굴 및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대중적 인기가 적은 기초예술은 교육적이며 창의적인 외부 효과가 큰 것에 비해 지원 없이는 존속이 어려운 상태로, 정부나 민간 후원자의 지원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 2. 예술의 영역 확대

이제 예술은 개인 차원의 감상과 만족을 넘어 불특정다수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급방식과 매체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고급문화 뿐 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번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예술의 매체적 확장으로 인해 예술의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제 예술은 예술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영역들과 상호 연계하거나 교류하면서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예술분야의 융합은 주로 예술 분야 내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서서히 예술과 예술(타 장르 예술)의 융합, 예술과 비예술의 융합,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합, 예술과 컨텍스트 등 타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이종혼성의 형식을 띄고 있다. 이 때 진정한 의미의 융합예술은 새로운 합체의 덩어리들을 만들어나가는 디지털 융합(convergence)의 위상과는 달리, 융합과 분리가 언제나 유기적으로 발생하는 만남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나의 연속선상에 위치한 예술의 융합은 기존 장르예술이 가진 한계성을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 과학기술 등 타 분야 학문과 융합되는 산업화 과정을 거쳐 고부가 가치의 콘텐츠로 전환됨으로써 새로운 문화와 사회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미래 국가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sup>37)</sup> 이러한 예술의 영역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예술계에서도 이미 일반적인 현상으로 여겨지는 추세이다.

지방정책발전연구원(연구책임: 김상규)

37) 문화체육관광부(2014), 『해외 문화예술 융복합사업의 트렌드 파악을 통한 국내 융복합 문화예술사업의 구체적인 정책 제언』,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연구책임: 이재학)

## 제2절

## 예술의 환경 변화

## 1. 문화예술향수의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

경제 발전으로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생활의 양적인 조건이 갖춰지자 점차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향수가 고차원의 복지의 문제, 기본권의 문제로 점차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 예술 향유의 수준은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고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 예술행사 관람률은 2012년 69.6%보다 1.7% 증가한 71.3%로 나타났다. 2003년 62.4% 대비 8.9% 증가 하였으며, 2003년 이후 예술행사 분야별 관람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률은 전체 응답자 중 85.4%로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예술행사 관람률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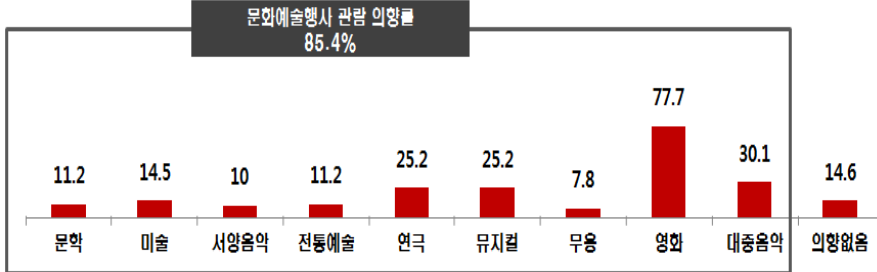
(단위: %)

예술행사	2003	2006	2008	2010	2012	2014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62.4	65.8	67.3	67.2	69.6	71.3	1.7
문학행사	4.0	4.4	4.0	3.8	6.1	6.2	0.1
미술전시회	10.4	6.8	8.4	9.5	10.2	10.6	0.4
서양음악	6.3	3.6	4.9	4.4	4.8	4.9	0.1
전통예술	5.2	4.4	4.4	5.7	6.5	5.7	-0.8
연극	11.1	8.1	11.0	11.2	11.8	12.6	0.8
뮤지컬					11.5	11.5	-
무용	1.1	1.4	0.7	1.4	2.0	2.4	0.4
영화	53.3	60.3	58.9	60.3	64.4	65.8	1.4
대중음악/연예	10.3	7.6	10.0	7.6	13.5	14.4	0.9

주) 2012년 조사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세분화하여 구성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49

(사례수: 10,03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 문화향수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28

[그림 4-1] 예술행사 관람 의향

이에 정부는 시민 중심의 문화 복지와 문화향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며 과거 소극적인 창조자 중심에서 일반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수를 위한 환경조성까지 문화정책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sup>38)</sup>

## 2. 예술시장의 규모 확대 및 상업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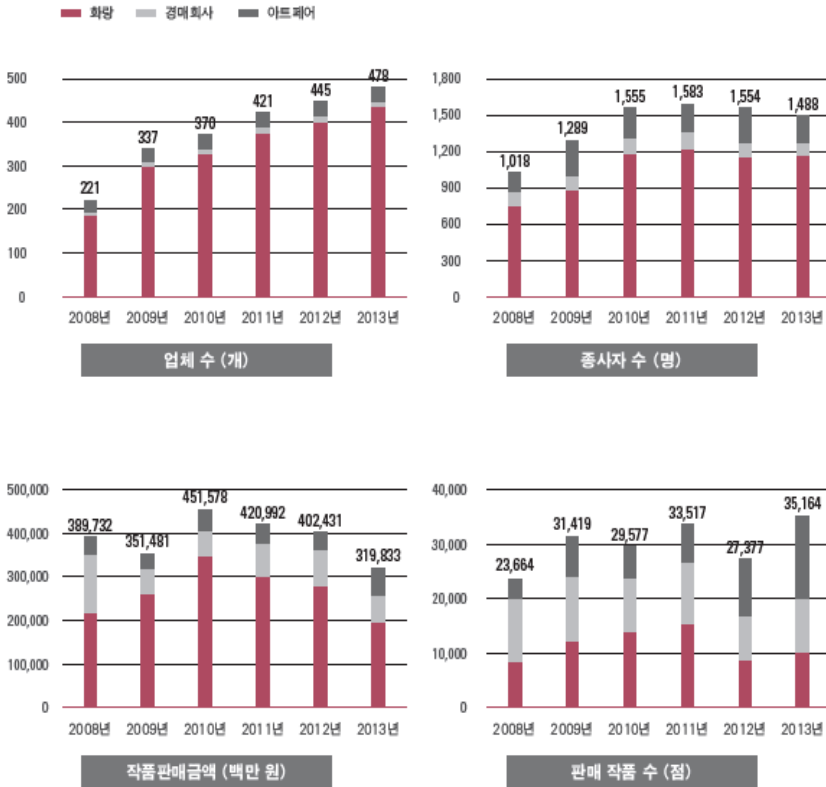
우리 사회의 경제적 변화는 예술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양과 질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정부가 지원규모를 크게 늘리면서 예술시장의 규모는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

미술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작품거래의 활성화가 시장의 호황을 의미하며<sup>39)</sup> 경매와 아트페어, 화랑의 업체 수, 종사자 수, 작품판매금액, 판매 작품 수 등으로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부분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2014년도 미술시장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2008년에 비해 주요 유통영역의 규모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8) 정철현, 황소화(2007), 「문화예술향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공연예술 수용단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통권 6호, 한국행정학회, pp.159-181

39) 문화체육관광부(2007), 「2007 문화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조현성), p.300

(단위: 개, 명, 백만원, 점)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2014), 「2014년도 미술시장실태조사」, p.37

[그림 4-2] 연도별 주요유통영역 시장 규모추이

공연시장의 경우 2014년 국내 공연시장 규모는 공연시설과 단체 매출액을 합한 금액으로 총 7,593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2년 국내 공연시장 규모 7,130억 원에 대비해 6.5% 증가한 것이다. 공연시설 매출액은 3,6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감소했으며 그 주원인은 대학로와 민간(대학로 외) 공연장 등의 매출액 감소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공연단체 매출액은 2012년 대비 16.2% 늘어난 3,904억 원이었으며, 이는 민간기획사의 매출 실적 증가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공연시설 수는 1,034개, 공연장 수는 1,280개로 전년 대비

각각 5.1%, 4.3%가 증가했으며, 공연시설 종사자 수는 1만 2,669명으로 전년 대비 7.9%가 증가했다. 공연단체 수는 2,284개로 2012년 대비 8.3%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5만 5,858명으로 9.9% 많아졌다. 전반적으로 매년 공연산업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공연시설 및 단체 수 등 양적 지표의 성장으로 공연예술기반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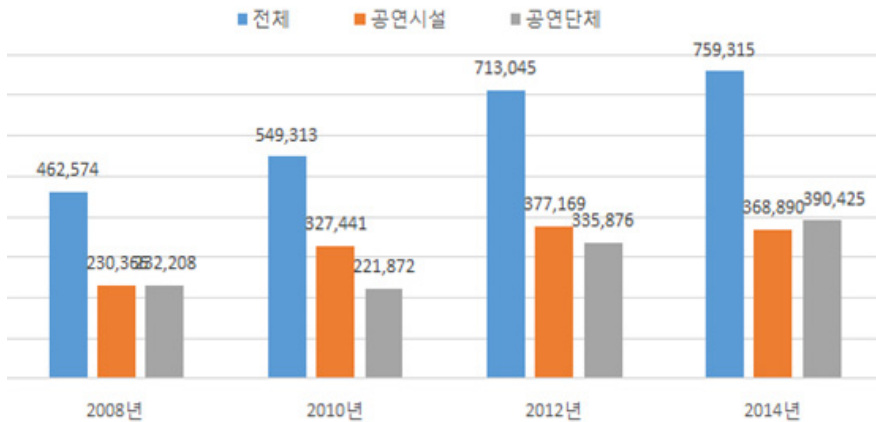
〈표 4-2〉 연도별 공연시설 및 공연단체 수 추이

(단위: 개)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4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수 (개)	증감률 (%)
공연 시설	시설수	662	732	772	820	868	944	984	1,034	50	5.1
	공연장 수	891	927	967	1,021	1,093	1,188	1,227	1,280	53	4.3
공연단체		-	2,440	-	2,214	-	2,108	-	2,284	176	8.3

자료: 최영진(2015),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단위: 백만원)



자료: 최영진(2015),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4-3] 공연시설 및 단체 매출액 추이

이러한 예술시장의 확대와 대중적인 성공은 상업적 성공이 불가능한 비영리의 영역에 속해있던 예술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으로서 다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예술이 기존에 갖고 있던 본래의 가치보다 사회적 기능이나 경제적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겨났고 이는 예술의 산업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예술의 산업화는 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예술의 자생력 및 예술발전의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술 시장의 확대와 상업화로 인한 예술계 안에서의 양극화는 현재 고착화가 된 상태이며, 소위 ‘빈익빈 부익부’ 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시장이 확대되는 초기에 대두되기 시작하여 현재 고착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크고 화려한 블록버스터 전시회나 대형 공연에 관람객과 세간의 관심, 자본, 인력, 예술가까지 모두 몰리는 현상은 지나친 예술의 상업화로 인한 예술 시장의 불편한 단면이다.

소위 문화선진국의 사례들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의 규모는 더욱 더 확대되고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산업적 또는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연이나 미술시장은 더욱 대형화되고 국제화되어 예술의 진정성과 순수한 역할 훼손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의 본질과 순수예술의 전통을 보호발전시킬 수 있도록 예술원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 제3절

## 국내 예술지원 정책 현황

## 1.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예술단체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거나 기업 및 민간재단, 개인으로부터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공공지원은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통해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한국문화진흥원이나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방송공사, 마사회로부터 지원되는 기금이나 공익자금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형태이다.<sup>40)</sup>

1990년 정부조직법 개편에 의해 문화부가 발족하자 정부차원에서 문화예술 산업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2013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총 예산은 4조 1,723억 원으로 정부 총 재정의 1.2% 규모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9년 2조 8,577억 원에서 2013년 4조 1,723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9.9%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며, 같은 기간 정부 총 재정 연평균 증가율 3.2%의 세 배에 이르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의 부문별 편성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 문화예술부문 28.8%(1조 2,023억 원), 관광부문 26.3%(1조 964억 원), 체육부문 25.8%(1조 744억 원)로 세 부문의 재정 규모가 25~30% 정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관광부문이 31.3%로 높고 체육부문이 21.6%로 낮아 현저한 차이를 보였지만 관광부문 연평균 증가율 5.2%와 체육부문 연평균 증가율 14.8%로 인해 2013년에는 세 부문의 재정 규모가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0) 양효석,(2010), 「아르코 비전 2010의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124



〈표 4-3〉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재정 편성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감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총재정	28,577	100	31,747	100	34,557	100	37,194	100	41,723	100	9.9
문화예술	7,634	26.7	9,035	28.5	9,684	28	10,882	29.3	12,023	28.8	12
문화콘텐츠	3,723	13	4,231	13.3	4,868	14.1	5,343	14.4	5,438	13	9.9
관광	8,948	31.3	8,901	28	9,257	26.8	9,829	26.4	10,964	26.3	5.2
체육	6,175	21.6	7,303	23	8,403	24.3	8,634	23.2	10,744	25.8	14.8
문화 및 관광일반	2,096	7.3	2,277	7.2	2,346	6.8	2,506	6.7	2,554	6.1	5.1

주) 각 부문별 재정규모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 기준으로 작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예산·기금 운용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표 4-4〉 정부 총예산 대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문화예산 비율

(단위: %, 조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정부	5.6(7.8)	5.0(7.0)	4.9(7.4)	5.0(7.8)	4.9(8.0)
중앙정부	1.3(3.9)	1.4(4.2)	1.4(4.6)	1.5(5.0)	1.5(5.3)

주) ()는 문화예산 금액

자료: 정보람(2014),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문화정책논총』, 제28집 2호, pp.4-24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담당할 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경기도의 「경기문화재단」 설립 이후 「서울문화재단」 과 「인천문화재단」 에 이어 「전북문화재단」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으며, 고양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등 기초자치단체들도 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재단설립의 취지와 목적은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sup>41)</sup>

41) 이현숙(2012), “문화예술 정책이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 지원제도에 따른 인식도 제고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과거 공공지원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 예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정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예술발전에 이익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와 경제적 위기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공공기금지원이 어려워져 지금은 새로운 대처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 2. 문화예술에 대한 사적 지원

우리나라는 기부에 대한 사회적인 전통이 미약한데다가 과거 정부 주도의 반강제적인 기부금 모금과 투명하지 못한 운영이 기부 금품모집 규제법 등의 제정을 불러와 전문예술법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나 개인의 기부금모금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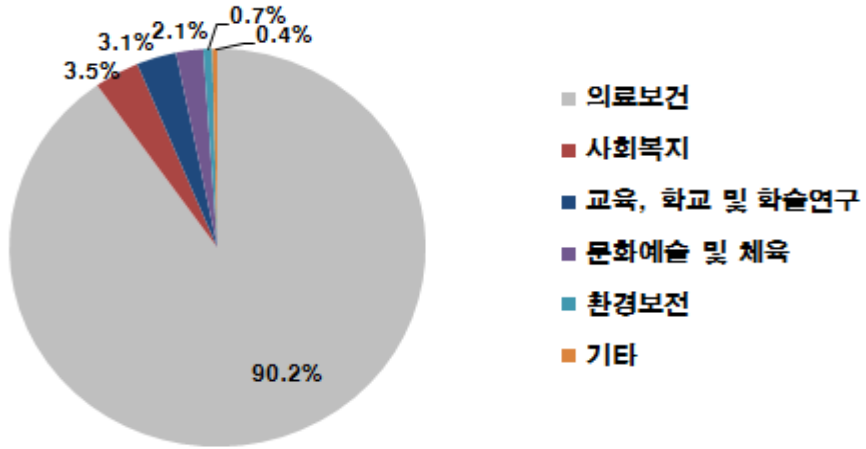
〈표 4-5〉 기업의 사회공헌 분야별 대비 문화예술 및 체육 지출비율 추이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문화예술 및 체육	9.1	7.4	11.2	12.6	12.3	6.6	11.8	11.6	11.1	12.7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14), 「2014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 p.8

기업지원의 경우 사회공헌 분야별 대비 지출비율 추이를 보면 2004년에 비해 2013년의 문화예술 및 체육의 비율을 상승하였으나 그 상승비율은 균질적이지 못하다. 이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분야가 점점 다양화되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다른 분야로 분산되거나 합쳐지거나 반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적인 예술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보다는 기업 자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일정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14), 「2014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 p.8

[그림 4-4] 기업의 사회공헌 분야별 사업비 지출 비중



제5장 ●●

유사기관 및 정책 사례와 시사점





## 제1절

## 국내·외 유사기관 정책 사례

## 1. 대한민국학술원

## 가. 일반현황

## 1) 설립목적 및 근거

대한민국학술원은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문·사회과학부문 및 자연과학부문의 학자를 국가 차원에서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와 그 지원 사업을 행함으로써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예술원과 함께 1952년 제정된 「문화보호법」에 근거해 1954년 3월 25일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7월 17일 개원했다. 1988년 12월 31일에 「대한민국학술원법」을 설립근거로 한다.

## 2) 기능

학술원의 주요 기능은 학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학술연구와 지원,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여, 기타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학술연구 지원을 위해 매년 회원들에게 학술연구 조성비를 제공한다. 연구 기간은 1년이며, 연구 결과는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하거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다. 학술원은 특히 회원들의 오랜 연구 경력과 학식을 살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1995년부터 매년 개하고 있다.

## 3) 연혁

1952년 8월 7일 제정된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초대회원 63명(정원

80명)을 선출하여 1954년 7월 17일 개원하였으며, 1960년 「문화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이 80명에서 100명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 1987년 청사를 새로 건립하여 예술원과 함께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현재의 청사로 이전하였다. 1988년 「대한민국학술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회원 정원은 100명에서 150명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표 5-1〉 대한민국학술원 주요 연혁

일자	주요 연혁 내용
2014. 04. 01	제 35대 권일숙 회장(물리학) 취임
1988. 12. 31	대한민국학술원법 제정 (회원 정원 : 100명에서 150명으로 상향)
1987. 10. 15	학술원 청사 새로 지어 옮김
1960. 02. 03	문화보호법 개정 (회원 정원 : 80명에서 100명으로 상향)
1954. 07. 17	학술원 개원
1954. 04. 23	임명회원 및 추천회원 선출(13명)
1954. 04. 06	학술원 회원 선출
1952. 08. 07	문화보호법 제정(법률 제248호, 회원정원 80명)

자료: 대한민국학술원 홈페이지(<http://www.nas.go.kr/intro/org/org.jsp>)

#### 4) 재원근거 및 운영예산 현황

학술원의 재원 근거는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6조에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학술원의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 학술원의 2015년도 예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5-2〉 2015년 대한민국학술원 예산 현황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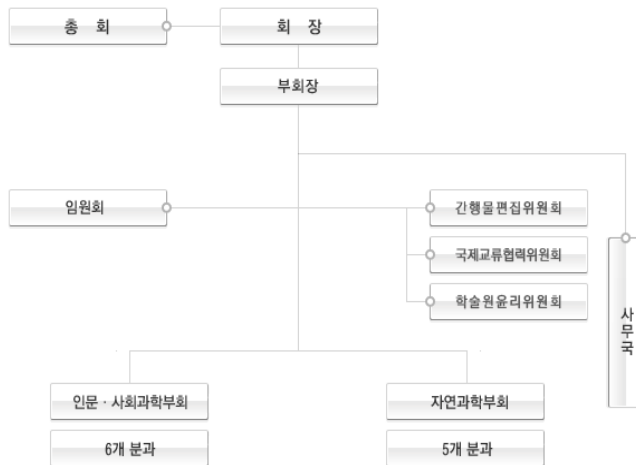
세부사업	2015년도 예산	%
<b>총 계</b>	<b>6,248,490</b>	<b>100</b>
1. 인건비	1,029,490	16
2. 학술원기본경비	4,899,000	78
- 학술원기본경비(총액대상)	71,000	
- 학술원공익근무요원 운영(총액대상)	2,000	
3. 학술원 국제학술교류 및 학술진흥지원	320,000	5



## 나. 조직

### 1) 운영 조직 구성

학술원 조직은 크게 회원과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인문·사회과학부회 산하 6개 분과와 자연과학부회 산하의 5개 분과 중 하나에 소속된다. 기구로는 총회, 부회, 분과회가 있고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다. 회원의 정수(定數)는 150인이다. 총회는 학술원 회원으로 구성한다. 부회는 6개의 분과회로 구성되는 인문·사회과학부회와 5개의 분과회로 구성되는 자연과학부회가 있다.



자료: 대한민국학술원(<http://www.nas.go.kr/intro/org/org.jsp>)

[그림 5-1] 대한민국학술원 조직도

### 2) 청사 및 부대시설

학술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7년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건물규모는 건축 총면적 4,950m<sup>2</sup>(약 1,500평)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다. 1954년 함께 창설된 예술원과 청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주로 2층과 3층을 학술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2층에는 자연분과 회의실과 대회의실이 위치하며, 학술원 사무국이 사용하고 있다. 건물 3층은 인문분과 회의실과 도서실 및 중회의실이 위치하고 있다.

〈표 5-3〉 학술원·예술원 청사 사용현황

층별 현황	면 적	용 도
지하층	1,096m <sup>2</sup>	자료실 및 기계실
1층	1,442m <sup>2</sup>	예술원분과회의실, 전시실 및 사무실
2층	1,300m <sup>2</sup>	학술원 자연분과회의실, 대회의실 및 사무실
3층	1,112m <sup>2</sup>	학술원 인문분과회의실, 도서실 및 중회의실

자료: 대한민국학술원 홈페이지(<http://www.nas.go.kr/>)

## 다. 회원개요

### 1) 선출방식 및 임기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된다. 임기는 4년이었으나 2011년부터 평생으로 변경되었으며, 비상근직이다.

### 2) 회원 자격 및 현황

학술원 회원의 자격, 임기 및 선출절차는 「대한민국학술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에 따라 학술원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연구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자”, 또는 “학술연구의 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로 회원심사위원회(분과회의)와 부회에서 선출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학자가 회원이 될 수 있다. 경력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교원으로 종사한 경력,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나 전문 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또한 학술원은 명예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예회원의 자격은 “학술연구 업적이 탁월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 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다. 이러한 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학술원이 지정한 학술단체의 장 또는 학술회원의 추천을 받아 학술원의 해당 분과회 및 명예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명예회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표 5-4〉 학술원 회원의 구분 및 자격

회 원	근거	대한민국학술원법 제4조
	자격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 학술 연구 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명 예 회 원	근거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의 2항
	자격	- 외국과의 학술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選任) - 명예회원의 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자료: 법제처(<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615&efYd=20130323>)

### 3) 회원 구성

학술원의 회원은 인문사회과학분과와 자연과학분과 중 1개 분과에 소속된다. 1988년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안에 따라 정회원이 150명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현재(2016년 9월 기준) 회원 수는 인문사회과학분과가 71명, 자연과학분과가 69명으로 총 14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2개의 분과에 인원이 고르게 구성되어 있다.

학술원 명예회원은 「대한민국학술원 명예회원 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총 20인 내외로 선임할 수 있으며, 현재는 10명의 명예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표 5-5〉 학술원 회원 현황

(2016년 9월 기준)

구분	분과	전공분야	현원
인문·사회 과학	제1분과	철학, 윤리학, 논리학, 미학, 종교학, 교육학, 심리학	12
	제2분과	어문학	11
	제3분과	사학, 인문지리학, 고고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13
	제4분과	법학	11
	제5분과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12
	제6분과	경제학, 경영학	12
소 계			71
자연과학	제1분과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기상학	12
	제2분과	지질학, 생물학, 체육학, 영양학, 가정학	15
	제3분과	토목공학, 건축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조선공학, 항공공학, 전자공학, 자원공학, 금속공학, 섬유공학, 정보공학	15
	제4분과	의학, 치과의학, 수의학, 약학	14
	제5분과	농학, 임학, 축산학, 수산학	13
소 계			69
총 계			140

자료: 대한민국학술원 홈페이지(www.nas.go.kr)

〈표 5-6〉 학술원 명예회원 현황

(2016년 9월 기준)

회원명	분야	국적	비고
Ryoji Noyori (野依良治)	유기금속화학	일본	노벨 화학상 수상
Saburo Nagakura(長倉三郎)	역학전자구조	일본	일본학술원 회장
Jan Eric Lindsten	인간세포유전학	스웨덴	
Jürgen Kocka	사회과학	독일	베를린 사회과학 연구센터 회장
Achenbach, Jan Drewes	항공학, 우주항행학	미국	
Christian Starck	헌법학	독일	
Takashi Sugimura(杉村 隆)	생화학	일본	
Peter Gruss	분자생물학	독일	
Shiono, Hiroshi (塩野 宏)	행정학	일본	일본학술원 부회장
Roger N. Beachy	농경기술학	미국	

자료: 대한민국학술원 홈페이지(www.nas.go.kr)

#### 4) 회원 예우 방식

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되면 「대한민국학술원법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에 의거하여 매월 회원에게 정액 수당(18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회원이 참석하는 회의에 대한 수당과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예회원에게는 학술원의 회의 또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학술원의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라. 주요사업

#### 1) 대한민국학술원상

대한민국학술원상은 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 포함)으로서 논문 또는 저서가 우수하여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된다. 학술원 회원의 경우는 후보에서 제외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5,000만원)이 수여된다. 2016년 9월 19일 제61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이 거행되었고, 총 61회 동안 총 297명이 수상하였다.

수상후보자의 추천접수는 국내외의 학술단체나 학술원 회원의 추천을 받아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문별 심사를 진행한 뒤 임원회의 구성원의 종합심사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시상은 인문학부문, 사회과학부문, 자연과학기초부문, 자연과학응용부문으로 인원은 8명 이내로 선정된다.

## 2) 학술연구

학술연구지원 사업은 학술원법에 규정된 학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회원들에게 학술연구 조성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7월 현재까지 202명의 회원에게 연구 조성비를 지원하였다. 학술연구지원을 받게 되면 학술원연구조성비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1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지원을 통해 완성된 연구 결과는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하거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도록 하여, 연구의 내실을 다지도록 하며, 그 내용은 학술원 논문집에 게재되어 대학 및 공공도서관, 연구기관에 배포한다.

‘학술세미나’는 학술원 회원의 연구 경력과 학식을 살려 수행한 학술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회원 상호간에 토론함으로써 심도 있는 학술연구를 유도하고 학문간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해 분과별로 연간 분과 세미나 및 전체 회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학술원개원 50주년을 맞이하여 2004년도에는 ‘개원50주년기념’ 학술대회로 대체하여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는 회원들의 연구경력과 학식을 살려 정책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 건의하는 토론회를 1995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 3) 국제 학술교류

학술원 교류 사업은 여러 외국의 저명한 학술원과의 학술교류활동을 통하여 국제간 학술정보교환과 국내학문발전을 촉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NAS, 영국학술원 및 영국의 Royal Society, 중국과학원 및 사회과학원, 프랑스의 Academie des Sciences, 이스라엘학술원, 노르웨이학술원, 크로아티아학술원, 괴팅겐학술원 등 다수의 학술원과 학술교류 협약을 맺고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학술연구 강화와 학술정보교환을 위하여 매년 일본학사원과 공동으로 ‘한일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한일학술포럼은 양국 석학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상호 형성된 지적자산을 서로 공유하고, 양국 학술원과 학사원의 학술교류 활성화와 학문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제학술대회는 국가 간 학술과 지식을 교환하여 학자들 사이의 친목을 다지고 지식 교류를 통하여 학문의 상호보완을 목적으로 60년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국내·외 학자들을 초청하여 토의를 진행한다.

학술원회원의 국제학술기구 활동의 능동적 참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 문제에 관한 국제학술기구의 국제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학계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가위상을 제고하고자 진행된다.

우수학술도서 발간 사업은 기초학문분야의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술원은 매년 우수학술도서 및 동·서양 고전 중 우수 국역서를 선정하여 각 대학과 연구소 등에 보급하고 있다.

#### 마. 종합 및 시사점

학술원의 추진 사업 중 가장 성과를 발휘하고 있는 사업은 학술 교류로 2016년 현재 세계 각국의 학술기구 및 단체와 학술교류 협약을 맺고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학사원과 중국과학원 및 중국사회과학원 등과 회원 방문을 통해 매년 정기적인 학술교류를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또한 회원제도에서도 예술원과 는 상이한 점을 찾을 수 있다. 예술원과 달리 학술원은 명예회원 제도를 통해 세계적인 석학을 회원으로 둠으로써 학술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세계적인 석학을 명예회원으로 둠으로써 학술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학술원 회원이 노벨상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명예회원을 유치하고 있다.

## 2. 일본예술원

### 가. 일반 현황

#### 1) 설립목적 및 역할

일본예술원은 미술·문예·음악·연극·무용 등 예술상의 공적이 현저한 예술가를 우대하기 위해 설치된 일본 내 최고 영예(榮譽) 기관이다. 예술발달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그것을 문부과학대신 또는 문화청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내각(内閣)은 문부성 설치법(1949년 법률 제 146호) 제 23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정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예술원령(1949년 7월 23일 정령 제281)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 2) 기능

일본예술원은 회원 외에 탁월한 예술작품을 제작한 자 및 예술의 진보에 공헌하는 현저한 업적을 인정받은 자에 대해 매년 일본예술원 수상식을 거행한다. 최근 국립기관의 독립 행정법인화가 잇따른 가운데 국립예술원은 문부과학성 사업소관부국에 의한 점검·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국가적으로 공적이 현저한 예술가의 현창(顯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적인 사업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또 예술가가 일부 지역에 편재 거주하는 등의 실태를 감안하면 전국적인 시야에서 심사·평가가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본예술원은 금후에도 국가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기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3)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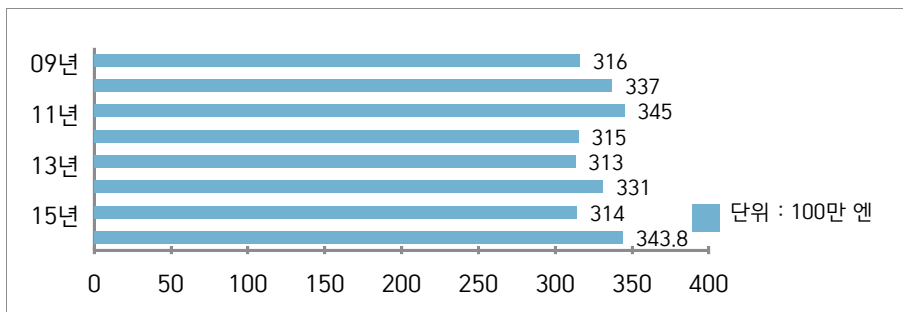
일본예술원은 1907년 6월에 문부성미술전람회(文部省美術展覽會)를 개최하기 위하여 설치된 미술심사위원회를 모체로 하여, 1919년 9월에 ‘제국미술원(帝國美術院)’으로서 설립되었다.



1937년 6월에 미술 이외에 문예, 음악, 연극, 무용의 분야를 더하여 ‘제국예술원’으로 개조(改組)되는 등 확충(擴充)을 거쳐 1947년 12월에 ‘일본예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다.

#### 4) 재원근거 및 운영예산 현황

일본예술원은 정부기관으로 재원은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예술문화의 진흥’ 시책으로서 문화청에 지급되는 재정이다. 따라서 예산은 전액 국고에서 충당되며, 사업명은 ‘일본예술원 회원 연금지급 등에 필요한 경비’이다. ‘예술문화의 진흥’ 재정은 국립예술원과 같은 국가기관 외에도 독립행정법인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에도 지급된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예술원 예산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예술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다양한 자원 모색이나 자원 다양화 논의 등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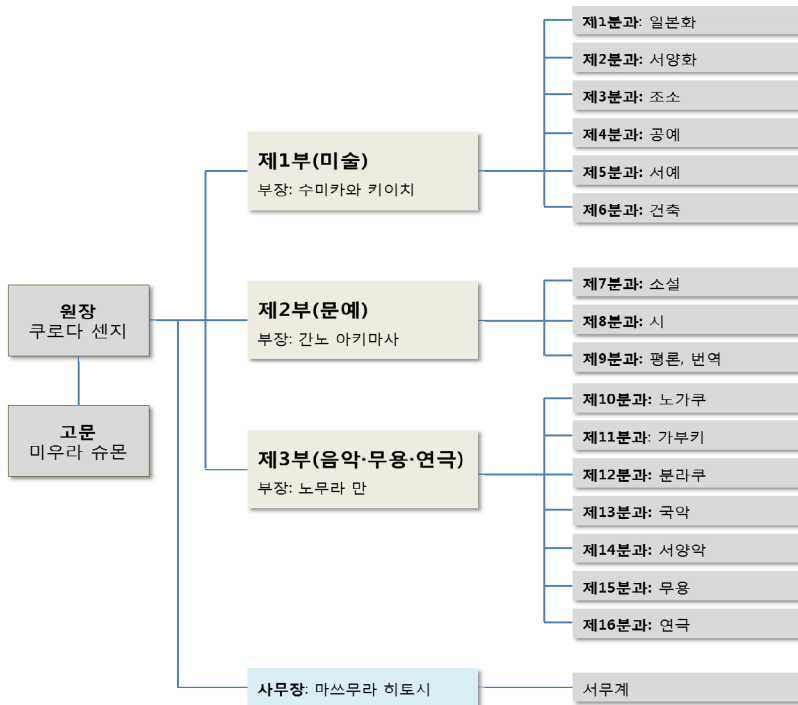
### 나. 조직

#### 1) 운영 조직 구성

일본예술원은 제1부(미술), 제2부(문예), 제3부(음악·무용·연극)로 총 3개 부로 이루어져있으며 제1부(미술)는 일본화, 서양화, 조소, 공예, 서예, 건축 등 총 6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고, 제2부(문예)는 소설, 시, 평론·번역

등 총 3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다. 제3부(음악·무용·연극)는 노가쿠, 가부키, 분라쿠, 국악, 양악, 무용, 연극 등 총 7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예술원 사무국(서무계)의 정원은 총 10명으로 원장 및 사무장, 서무계장의 관리직 직원과 일반직 직원이 있다. 서무계는 전화대응, 내객 대응, 전표처리, 소액재정 관리, 서류 및 자료 작성, 데이터 입력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자료: 일본예술원 홈페이지(www.geijutu-in.go.jp)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5-3] 일본예술원 조직도

## 2) 청사 및 부대시설

일본예술원 회관은 회원이던 고 요시다 이소야(吉田五十八)의 설계로 1958년에 준공하였다. 설계자 요시다에 의하면 건물은 헤이안조(平安朝) 시대의 우아하고 전려한 분위기를 주조(主調)로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하

였다. 평옥(平屋) 건물을 두르는 회랑과 일본정원이 특징적이다. 회관은 회원 회의 및 간담회, 일본예술원 수상식 등에 사용된다. 일본예술원 청사는 도쿄의 문화시설 밀집 지역인 우에노 공원 근처이며, 이 지역은 우에노 동물원, 국립과학박물관, 도쿄 국립박물관, 국제어린이 도서관 등이 모여 있어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전시실은 일본예술원 소장의 미술작품을 부정기적이지만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2003년 9월에는 역사적인 가치가 높고 기술의 성과가 디자인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서 사단법인 일본건축학회가 선출하는 ‘일본의 모던 무브먼트 건축 100선’에 들 정도로 청사와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다.



자료: 일본예술원 홈페이지([www.geijutuin.go.jp](http://www.geijutuin.go.jp))

[그림 5-4] 일본예술원 청사 전경 및 전시실 모습

## 다. 회원개요

### 1) 선출방식 및 임기

새로운 회원 선출을 위해 현 회원이 각 부회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공적이 현저한 예술가를 추천한다.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례로는 일본예술원상 수상자 가운데서 선출된다.

원장은 회원이 선거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를 문부과학

대신이 임명한다. 과반수 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 대다수 표를 얻은 자 2명 가운데 회원이 재투표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원장의 근무형태는 비상근이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 부장 가운데 최고 연장자가 직무를 대신한다.

## 2) 회원 자격 및 현황

앞서 언급했듯이, 회원 선출은 현 회원이 각 부회에서 공적이 현저한 예술가를 추천(부회 선거)하며, 그 외에 일본예술원상 수상자 가운데서 회원이 선출된다. 따라서 예술상의 수상은 실질적으로 회원이 되기 위한 등용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103명의 회원 중 제1부(소설·희곡) 4명, 8분과(시) 4명, 제3부 16분과(연극) 1명, 총 9명을 제외한 회원이 예술상 수상 경력자이다.

회원 정원은 120명으로 종신제이지만 현 회원 사망으로 새로운 회원이 충당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해마다 인원의 변동이 있으나 최근에는 회원 충원이 평균 90% 이하에 머무는 상황이다. 일본예술원은 2016년도 사업보고에서 회원 사거(死去)에 따른 회원 수 감소는 있지만 매해 신 회원 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실적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 3) 회원 구성

일본예술원 회원은 일본예술원령(1949년 정령 제 281호) 제2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120명 이내로 되어 있다. 2016년 8월 현재 정원 120명 중 103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표 5-7〉 일본예술원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

(2016년도 8월)

부	분 과		정원	현원
제1부 (미술)	제 1 분과	일본화		11
	제 2 분과	서양화		14
	제 3 분과	조소		9
	제 4 분과	공예		8
	제 5 분과	서예		3
	제 6 분과	건축		3
	소 계			56
제2부 (문예)	제 7 분과	소설·희곡		14
	제 8 분과	시		10
	제 9 분과	평론·번역		5
	소 계			37
제3부 (음악·연극·무용)	제 10 분과	노가쿠(能楽) <sup>42)</sup>		4
	제 11 분과	가부키(歌舞伎)		6
	제 12 분과	분라쿠(文楽) <sup>43)</sup>		3
	제 13 분과	국악(邦楽)		4
	제 14 분과	양악(洋楽) <sup>44)</sup>		4
	제 15 분과	무용(舞踊)		4
	제 16 분과	연극(演劇)		1
	소 계			27
<b>합 계</b>			<b>120</b>	<b>103</b>

자료: 일본예술원 홈페이지(www.geijutuin.go.jp)

#### 4) 회원 예우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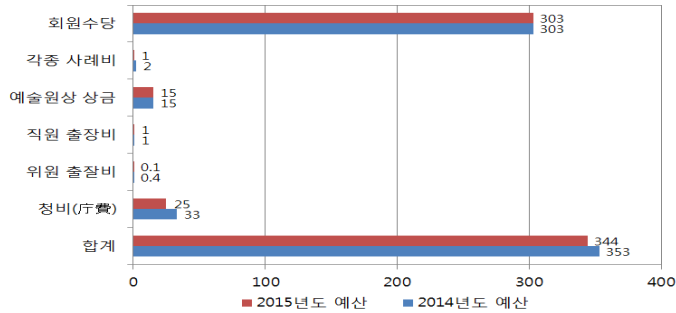
현재 일본예술원 회원에 대해 지급되는 회원수당(연금)은 개인 당 300만 엔이다. 회원 사망 시, 일왕으로부터 조의금이 증정되고 고인의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훈장을 추서할 수 있다.

42) 노가쿠(能楽)란 전통가면극, 가부키(歌舞伎)란 노래·춤·연기가 함께 어우러진 고전연극을 뜻한다

43) 분라쿠(文楽)란 전통인형극을 뜻한다.

44) 양악은 클래식 음악을 뜻한다.

(단위: 100만 엔)



[그림 5-5] 일본예술원 예산 내용(2014년-2015년)

## 라. 주요사업

〈표 5-8〉 2015년도(제72회) 수상자 명단

부	상	분야	수상자	수상 이유
1부	은사상 일본예술원상	일본화	고토 수미오 (後藤純男)	출품 작품의 우수성
	일본예술원상	조소	아마다 토모히코 (山田朝彦)	출품 작품의 우수성
	일본예술원상	공예	하루야마 후미히코 (春山文典)	출품 작품의 우수성
2부	은사상 일본예술원상	소설	쓰지하라 노보루 (辻原登)	소설을 중심으로 한 오랜 문학적 업적
	일본예술원상	시(하이쿠)	우다 기요코 (宇多喜代子)	하이쿠에 있어서의 정력적인 창작 활동과 평론의 업적
3부	은사상 일본예술원상	가부키	반도 다마사부로 (坂東玉三郎)	가부키계를 대표하는 활약 및 연기의 성과
	일본예술원상	노가쿠	다카하시 아키라 (高橋章)	노가쿠에 있어서의 우수한 무대성과와 후진 육성의 업적
	일본예술원상	가부키	나카무라 가로쿠 (中村歌六)	가부키 조연배우로서의 깊이 있는 예품
	일본예술원상	무용	나카무라 우메야 (中村梅彌)	일본무용에 있어서의 우수한 창작성과 후진 육성의 업적

자료: 일본예술원 홈페이지(<http://www.geijutu-in.go.jp>)

‘시상제도’ 사업은 일본예술원에서 회원 외에도 탁월한 예술 작품을 제작한 자 및 예술의 진보에 공헌하는 현저한 업적이 인정된 자에 대해 매해 은사상(恩賜賞)과 일본예술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은사상은 일본예술원상을 수상한 자 가운데서 수여되는 특상이다.

일본예술원상은 1941년도부터 종전 전후 일시기를 제외하고 매해 수상식을 거행하여 2015년도에 제 72회를 맞이하였다. 2015년도 은사상·일본예술원상의 수상식은 일왕 부처 참석 하에 2016년 6월 13일에 거행되었다.

‘전시’ 사업은 일본예술원에서 회원에게 기증받은 작품 및 일본예술원상 수상작 구입 등을 통해 소장하고 있는 미술 작품의 일부를 부정기적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관람료는 무료로 하여 일반인들이 편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예술원상 수상 작품 외에 문화훈장 수상자 및 문화공로자 작품전 등을 기획하여 개최하고 있다.

일본예술원에서 매해 9월부터 11월에 걸쳐서 회원에 의한 ‘특별강연회’를 실시한다. 이 강연회는 다이토구(台東区) 우에노(上野) 지구의 ‘우에노노야마(上野の山) 문화존 페스티벌 강연 시리즈’의 하나로 널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아이 꿈·아트 아카데미’는 2005년 미우라 슈몬(三浦朱門) 원장의 제창으로 시작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이다. 미술·문예·음악 등 각각 분야에서 최고봉인 일본예술원 회원이 초·중·고등학교에 파견되어 아동·학생 및 교사·보호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에 관한 수업, 실기 지도를 행한다. 실시방법은 회원 가운데 협력자 명단에 등록된 회원이 한 학교에서 1회 실시하며, 문화청은 각 지방의 교육위원회를 통해 실시 희망 학교를 모집하고 회원과의 일정조정을 통해 실시 학교를 결정한다.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문화청 예산(일본예술원) 범위 내에서 강습 사례비, 파견 출장비 및 강습 잡비를 지급한다.

〈표 5-9〉 아이 꿈·아트 아카데미 프로그램 구성

부	분과	협력 회원 (명)	수업 및 실기 지도 (회)
제 1부	일본화	6	32
	양화	11	53
	조소	2	3
	공예	2	0
제 2부	시	2	5
제 3부	분라쿠	1	0
	양악	2	7
			첼로 4      성악 3

자료: 일본예술원 홈페이지(<http://www.geijutuin.go.jp>)의 2016년 '아이 꿈·아트' 실시요령 결정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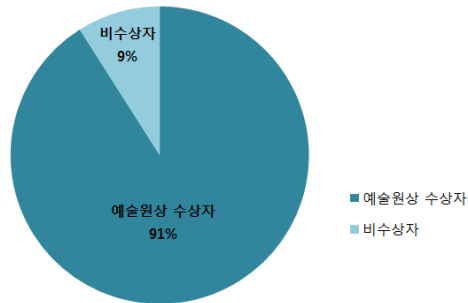
‘출판 및 기록물 수집’은 일본예술원의 활동기록 작성과 회원에 관한 기록제작을 행하며, 회원에 의한 강연회 강사 사례금은 한 건당 10만 엔인 ‘특별강연회’가 진행된다.

#### 마. 종합 및 시사점

일본예술원의 경우 구성이나 추진 사업 면에서 대한민국예술원과 상당 부분 형태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회원 예우에 있어서는 연금과 강의 참여, 회의 수당 등의 일정 금액의 지원이 있으나 그 이외에 혜택은 따로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예술원 회원은 그 자체로 높은 사회적 명예를 얻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예로 일본예술원상의 경우 시상문화에서는 일본 특유의 황실의 역할과 전통이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예술원상의 수상자는 통례적으로 예술원 회원으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예술원상의 수상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선발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후보자 심사기준의 경우 예술상의 공적에 중점을 두고, 예술 경력 및 인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5-6] 일본예술원 회원의 예술원상 수상 비율

분과 구성의 경우 전통예술 및 순수예술 중심으로 분과를 구성하여 장르적인 측면에서 전통예술과 순수예술을 다 포함하는 특징이 있으며, 영화, 사진, 미디어 아트, 시각 디자인 등 새로운 장르 없이 전통예술 및 기존의 순수예술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예술원의 경우 원로 예술인을 예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일본 전통예술에 대한 보전 및 계승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어린이 꿈 예술 아카데미 등의 사회공헌 사업에 힘쓰고 있다.

### 3. 중국 문화부 아퇴직 인원 서비스센터

#### 가. 일반 현황

##### 1) 설립목적 및 근거

‘문화부 아퇴직 인원 서비스센터’는 문화부 아퇴직 직원과 문화부 직속 문화예술기관에 소속된 아퇴직 예술가를 우대하고 지원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한 기관이다. 문화부 및 문화부 직속 예술 단체 혹은 기관의 아퇴직 직원과 소속 원로예술가에게 경제적

지원 및 의료 혜택 등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창작활동 및 대외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 기구 편제 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문화부 직속 사업 기구로 등록되었다. 전민소유제(全民所有制)<sup>45)</sup> 사업 기관에 속하며 독립적인 법인 자격으로 주임 책임제(主任负责制)<sup>46)</sup>를 따른다.

## 2) 기능

문화예술분야의 정책, 관련 법안 수립, 사업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기구 개혁 등 문화예술분야를 통괄하고 있는 문화부의 직속 기관이다. 정부 소속 기관들은 대부분 이·퇴직 간부국을 운영하며 이·퇴직 간부 혹은 직원 등을 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국 예술가 대부분이 국공립 단체에 가입하여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문화부 이·퇴직 인원 서비스센터는 현재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원로 예술가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 3) 연혁

1996년 2월, 문화부에 설립되었으며. 최근 중국 중앙정부가 발표한 <이직 퇴직 간부 업무 강화와 개선 의견에 관하여>를 토대로 문화부, 문물국 및 소속 사업단위 대표 200여명이 모여, 정치적 업무 강화, 당 조직 건설 강화, 관리 서비스 개선, 노년 대학 강화, 이·퇴직 간부들의 여가 생활 지원 등 전면전 개편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 4) 재원근거 및 운영예산 현황

문화부 직속 기관으로 국고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유료회원에게서 분

45) 전민소유제 기업은 소유권의 주체는 전체 인민이지만, 권리의 행사주체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을 뜻한다.

46) 주임 책임제(主任负责制)는 각 분과 혹은 사업단위의 주임의 관리 하에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기별 회비를 받아 예산을 운영한다. 문화부 일반 공공예산 예산 약 47억 7,263만 위안(약 8,000억 원) 중 이퇴직 인원 서비스센터의 예산은 약 8,343만 위안(약 140억 원)으로 문화부 일반 공공예산 중 1.75%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부터 사업 개편 및 이퇴직 인원의 증가를 원인으로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5-10〉 이퇴직 인원 서비스 부문 예산 및 문화부 전체 예산

(단위: 만 위안)

연도	이퇴직 인원 서비스 부문 예산 (일반 공공예산 중)				문화부 전체 예산
	행정단위	사업단위	인원관리	합계	
2016	7,602.82	119.86	602.13	8,324.81	477,262.84
2015	7,565.05	124.32	585.18	8,274.55	478,896.81
2014	6,663.36	100.00	558.46	7,321.82	459,663.54

## 나. 조직

### 1) 운영 조직 구성

총 39명이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기관의 현재 임원은 주임(1명), 당위서기(1명), 부주임(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의 조직은 사무실, 재무부, 당위사무실, 인사보위부, 의료서비스부, 생활서비스 1부, 생활서비스 2부, 문화체육활동부, 종합활동부(대외교류 및 교육부) 등 9개 부서로 나누어진다.

〈표 5-11〉 이퇴직 인원 서비스센터 조직 및 업무

구분	업무
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전체적인 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기능부서간의 행정사무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조</li> </ul>
재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부의 지도하에 감사 및 재무 업무를 진행</li> <li>- 센터 연간 예산, 결산, 및 관련 법규 업무</li> <li>- 센터 직원 임금, 퇴직금, 보조금 등을 지급, 결산</li> <li>- 기타 관리비, 특수요금, 활동 비용 등의 경비 관리</li> </ul>
당위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보고</li> <li>- 감찰부 대응, 민원 및 대외 연락과 조율 담당</li> <li>- 노조, 공창단, 부녀연합회 등의 조직과 연락, 협조</li> <li>- 문화부 정보 수집, 정리 및 심화 연구</li> </ul>
인사보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문화부 관련 인사 정책, 법규, 문화부 인사부의 지도를 받아 전체적인 인사, 노무 관리를 진행</li> <li>- 센터안보업무 진행</li> <li>- 재직인원 및 문화부 문화예술기관의 고참 간부들의 교육과 교육 사업 진행</li> <li>- 재직인원 심사 평가 및 임용, 표창 진행</li> <li>- 회원 사망시, 장례비, 유족 보조금 등의 비용을 심사하여 발급</li> </ul>
의료서비스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과 국가의 관련 의료보험, 방침, 정책 등을 이행</li> <li>- 보험책임관련 규정 관리</li> <li>- 사회보장기구 연락, 보험처리, 수금 등의 업무 수행</li> <li>- 보험 해당자 인원관리 및 개인정보 관리</li> <li>- 휴양 및 병원비 감사 진행 및 보고</li> </ul>
생활서비스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과 국가의 아퇴직인원의 생활 우대 정책에 회원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실제 생활환경을 조사 연구</li> <li>- 정기적 노인 건강 지식을 위한 강좌 개최</li> <li>- 문화부 직속 문화예술기관과의 협업</li> <li>- 회원 병원 위문, 명절 방문, 수수료 지원, 생일 파티 등 이벤트 진행</li> </ul>
생활서비스 2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의 독거생활을 돕기 위한 서비스(담당 양로원 연락 서비스 등) 등 특수한 어려움을 보조하는 업무 진행</li> <li>- 문화부 예술가 합창단, 문화부 예술가 서화원, 문화부 원로예술가 낭송단, 문화부 원로예술가 촬영협회 등의 관련 업무 진행</li> </ul>
문화체육활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 유도</li> <li>- 봄, 가을 문화체육오락 활동 '중앙절' 및 중대한 명절 단배식, 친목회 행사 운영</li> <li>- 회원의 대외 문예 공연, 전시, 학술, 교육 및 네트워크 활동 진행</li> <li>- 위문공연단을 조직하여 이벤트 진행</li> <li>- 회원의 공업 및 농업 건설 활동에 참여 유도</li> <li>- 센터 내 단체 활동을 촉진하여 풍부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li> </ul>
종합활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발간물 '중국노년문화' 책임편집</li> <li>- 비물질 문화유산 계승 원로 예술가 구술 역사 프로젝트 진행</li> </ul>

## 2) 청사 및 부대시설

본부는 베이징시 조양구 동토성루 15호(北京市朝阳区东土城路15号)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재무부, 당위사무실, 인사보위부, 의료서비스부, 생활서비스 1부, 생활서비스 2부, 문화체육활동부, 종합활동부(대외교류 및 교육부) 등 9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이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는 문화예술기관의 소속 예술가와 직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기관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무 공간 이외의 자체 공연전시장은 없으며, 전시회, 연주회 등 대외 활동을 할 경우는 공관 밖의 미술관, 대학, 공연장 등을 섭외하여 따로 진행하고 있다. 센터가 위치한 건물에는 중국문화사, 문화부 문화예술인재센터, 중국문화매체그룹, 중화문화기금회, 문화부 문화직업기능감정지도센터, 북경음향출판사 등이 입주해있으며, 기관 간의 교류가 용이하다.

## 다. 회원개요

### 1) 선출방식 및 임기

별도의 선출 방식이 없고, 문화부 및 문화부 산하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소속 임직원이 이·퇴직을 하면 자동으로 선출되며 종신제로 운영하고 있다.

### 2) 회원 자격 및 현황

현재 1800여명의 기관 이·퇴직 인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80세 이상의 회원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 3) 회원 구성

회원 중 원로예술가가 1400여명, 중공 공산당 당원이 800여명이 활동 중이며, 원로예술가는 유명연예인을 비롯해 연주예술가, 예술교육가,

미술가, 작가, 평론가, 감독, 학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 4) 회원 예우 방식

##### ① 경비지원

매년 1인당 최소 3,000위안(50만 2,260원)의 기본 경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1인당 100위안 이상의 프로젝트 경비를 비정기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기본 경비 이외에 치료비, 약제비, 의료보험 보상금, 저소득층 생활비 등을 따로 지급한다.

2014년 기준 987명의 회원에게 연금 약 1.49억 위안, 의료비 약 1,230만 위안, 의료보험 보상금 약 500만 위안, 저소득층 생활비 50만 위안 지급하였다.

##### ② 생활지원

매년 명절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직원이 실제 원로회원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금과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고독한 원로회원을 위해 1:1 정기 방문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원과 협약을 맺고 입주하는 원로회원들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병원, 혹은 약국이용 안내 등 각종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상담해주며, 정책 정보 변경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 불편사항에 대해 전화, 방문,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 받고 있다.

##### ③ 활동지원

교육, 강의, 자원봉사 활동 등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센터에서 발행하고 있는 '중국노년문화' 잡지를 무료로 우편 발송하고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마. 주요사업

‘문화부 원로예술가 서화원(文化部老艺术家书画院)’은 문화부 소속 원로예술가의 회화와 서예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중국 전통문화 및 문화 예술분야, 산업분야 발전을 촉진하고자 1998년에 설립하였다. 회화와 서예 작품 등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화법에 대한 연구 및 전시, 교류 활동, 교육 등을 통하여 전통 중국 문화예술을 전승, 발전시키는 목표를 가진다.



[그림 5-7] 문화부 원로예술가 서화 사진 작품전 개막식

‘문화부 원로예술가 합창단(文化部老艺术家合唱团)’은 문화부 직속 문화예술단체 혹은 기관 소속 원로예술가들이 모인 아마추어 합창단으로 1984년에 설립하였다. 중국혁명가곡인 연수요(延水谣), 해방군 군가 연안송(延安颂)등 여러 장의 앨범을 발매하였다. 300개 이상의 콘서트 레퍼토리를 가지고 60만 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500회 이상의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중국을 포함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 국내외 공연을 개최하였다.

‘문화부 원로예술가 낭송단(文化部老艺术家朗诵团)’은 문화부 및 문화부 이퇴직 인원 서비스센터에서 기획된 비물질(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구술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국가 경극원 전승인 15인을 포함하여 총 42인의 무형문화재 예술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원로예술인의 삶과 예술적 체험, 사건 등을 영상기록과 문자기록으로 남기는 사업을 진행하여 42인의 예술가에게서 6,000여 분의 기록을 남겼고, 10여 편의 글을 제작 편찬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센터가 발행하는 <노년문화>와 이퇴직 간부국이 발행한 <노간부지우(老干部之友)>를 합병하여 <중국노년문화(中国老年文化)>를 창간한 후 더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과 각 성, 시의 문화청의 원로예술가 등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그림 5-8] 중국노년문화(中国老年文化) 표지

#### 마. 종합 및 시사점

올해 실시된 내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퇴직한 원로임직원 및 원로예술가들이 이·퇴직인원 서비스센터를 통해 귀속감, 자부심이 높아졌으며 풍부한 정신문화 생활로 인해 행복감을 느낀다고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센터의 역할이 회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퇴직인원 서비스센터는 중공중앙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의 <이직 퇴직 간부 업무 강화와 개선 의견>과 <중공 문화부 당 조직 이직 퇴직 간부 업무 강화 의견>를 관철하여 실시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 업무 방식을 새롭게 바꾸고, 인터넷시대에 맞는 능동적인 수단을



도입하여 회원의 생활환경 및 예술창작환경을 정확히 파악한 후 우수한 예술창작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항목을 새롭게 개편하고자 한다. 또한 원로회원의 공헌을 명심하고,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하기 위해 최근 센터의 직원을 증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퇴직인원 서비스센터는 예술인들의 존중과 보호를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4. 중국예술원

### 가. 일반 현황

#### 1) 설립목적 및 역할

예술에 관한 연구, 교육 및 창작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 종합 예술 기구로서 중화민족 전통문화예술을 전승하여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예술원은 중국문학예술계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문학·예술가를 발굴한 후 역량을 키워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기구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상호교류를 통해 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1978년 정부기관에 정식으로 등록, 등기 절차를 통해 설립된 기관으로 공식 사이트를 통해 기관의 활동과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2) 기능

중국예술원은 문학과 예술계 관련 인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세미나와 국내외 전시 및 교류 활동을 위해 탁월한 공헌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문학가 막언(莫言)과 프랑스 기사 훈장 상을 받은 문학가 범중(范曾), 헝가리 문화부 최고 문학상을

수상한 예술가 원희곤(袁熙坤) 등이 중국예술원의 회원으로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중국예술원의 산하부서인 중국예술신문사가 발행하는 잡지와 신문 등의 간행물은 국내외 문학 예술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 3) 연혁

1978년, 정부 등록 단체로서 공식 출범하였으며 2014년 예술 연구 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여러 분야의 예술 창작기구를 개설하여 전국의 예술창작 전문 인재를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 4) 재원 근거

회원의 회비가 주요 재원이며, 예술원에서 주최하는 각종 활동(서적출판 판매, 이벤트, 전시, 세미나 등)의 수입 등도 운영 활동에 사용된다. 사회기업의 원조 혹은 개인의 기부금 등도 모집하고 있다.

## 나. 조직

### 1) 운영 조직 구성

원장(1명), 예술고문(7명), 상무부원장(1명), 부원장(5명), 비서장(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자유, 조화, 단결을 이끄는 최고 권력 기구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사회는 예술원의 사업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예술원의 규약을 작성하며, 필요시 수시로 수정할 수 있고, 기타 임용, 회원 선출 등의 중대한 결정 사항에 직접 권한을 가진다.

### 2) 청사

중국예술원은 베이징시 동성구 100010-28호에 위치하고 있다.

## 다. 회원개요

### 1) 선출방식 및 임기

예술원 이사회와 임직원의 회의를 통해 회원 선출을 하여 종신제로 운영하고 있다.

### 2) 회원 자격 및 현황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서예, 시, 유화, 전각, 종이 공예, 조각 등 다양한 중국 문화예술분야에서 종사하는 사회각계 인사와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펼치는 자로서, 국가의 헌법과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준수할 경우 예술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2015년 기준 중국예술원 전체 회원 수는 4,652명이며, 이 중 연구 인력은 2,011명으로 그 중, 고급 전문인력 852명, 국가1급 미술사 601명, 교수 421명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박사학위의 전문인력은 265명에 달한다.

### 3) 회원 구성

중국예술원은 군인예술, 민족예술, 사진예술, 설창(說唱)예술 등으로 분과를 나누어 회원을 관리하고 있다.

### 4) 회원 예우 방식

회원은 예술원 이사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술원이 진행하는 모든 활동에 우선적인 참여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예술원 활동과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감독, 평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우선권을 주며 회원 개인이 기관에 귀속감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으로 기관의 사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 및 우대 혜택을 누리게 한다.

## 라. 추진사업

예술원 산하기관인 ‘중국예술신문사(中国艺术报社)’와 ‘중국예술연도 인물잡지사(中国艺术年度人物杂志社)’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예술신문사는 ‘중국학원과예술가(中国学院派<sup>47</sup>)艺术家’라는 발간물을 발행하며, 중국학원과 예술가에 대한 작품 활동 및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중국예술연도인물잡지사는 ‘올해의 예술인(艺术年度人物)’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잡지를 출판, 발행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중국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국예술원, 중국국학연구학회가 공동으로 전국 수만 명의 예술가 중 30명을 엄선하여 입선 증서를 수여하고, 30명의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중국대학과예술가’를 발간하였다.

## 마. 종합 및 시사점

중국예술원은 설립 이후 오랫동안 소수 정예의 원로예술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만 기관에 회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등 비공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누구에게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고, 회원의 투표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회원규모가 큰 단체나 가입 회원의 명성에 비해 노출이 적은 단체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등 회원 자격 제도의 완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7) 학원파(学院派)는 아카데미한 화풍의 유파를 뜻함

## 5. 프랑스 아카데미 데 보자르

### 가. 일반 현황

#### 1) 설립목적 및 역할

프랑스 학사원(Institut de France)은 예술과 과학에 관한 다학제적 연구 발전을 위해 1795년 10월 25일에 창설되었으며, 다섯 개의 아카데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아카데미 보자르는 프랑스 학사원을 구성하는 아카데미 중 예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기회의, 보고서 발간, 시사문제에 대한 발제, 성명 발표, 국가의 자문과 건의 등 자체적인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예술 영역의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랑스의 예술 및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증과 기부를 통해 얻은 예술작품 및 문화유산을 관리, 예술 관련 재단을 경영하는 동시에 메세나 활동 전개, 장학제도 및 수상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젊은 아티스트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아카데미 보자르의 창설에 관련된 최초의 법은 1816년 3월 21일 발효된 왕령(L'ordonnance royale du 21 mars 1816)에 있다. 해당 왕령은 기존의 나폴레옹 집권 시기 회화, 건축, 조각 및 판화, 작곡 4개의 영역으로 나뉘놓은 기존의 순수예술 담당 기관의 분류를 수정한 것이다. 이 왕령을 기초로 아카데미 데 보자르가 창설되었다.

#### 3) 기능

아카데미 보자르는 1648년 창립된 왕립 미술, 조각 아카데미를 모태로 하여 1803년 프랑스 예술원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었다. 아카데미 보자르의 역할은 프랑스의 예술적인 유산을 보호하고 알리며, 동시에 프랑스 문화유산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예술원은 여러 교육시

시스템을 통하여 예술의 지각을 넓히고, 전문시설을 통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에 따라 아카데미 보자르는 협회운영, 문화유산의 관리, 뮤지엄 운영, 예술가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아카데미 보자르는 창립부터 현재까지 약 200년 간 프랑스의 저명한 예술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함으로써 프랑스 예술의 정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와 위상을 갖고 있다.

#### 4) 연혁

아카데미 보자르는 1648년에 설립된 왕립 아카데미(회화 및 조각)와 1666년 르브룅과 콜베르 재상의 건의에 따라 이탈리아 로마에 설립된 프랑스 아카데미에 기원을 두고 있다.

1816년 시행령에 의해 왕립 회화, 조각, 작곡의 세 개의 아카데미를 통합하여 정회원 50명(프랑스인), 준회원 10명(외국인), 통신회원 40명 등 총 100명으로 아카데미 보자르를 구성하였고, 이후 1916년 스페인 마드리드에 프랑스 아카데미 격인 ‘벨라스케즈의 집’을 설립하였다. 1934년까지는 기존의 6개 분과를 유지하다가, 예술 영역의 변화와 확장을 반영하여 1935년 영화 및 시청각 분과를 신설하였으며, 2005년 5월, 오랜 논쟁 끝에 사진 분과를 신설하여 현재 총 8개 분과로 이루어져있다.

현재 아카데미 보자르는 프랑스 예술의 전통을 보존하고 다방면의 예술 장르 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오래되고 상징성 있는 프랑스의 예술기관이라 할 수 있다.

#### 5) 재원 근거 및 운영 예산 현황

아카데미 보자르는 대통령 보호 아래 있는 기구이나 어떠한 정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독자적 기구로서 보자르의 실질적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개입도 받지 않는다.

프랑스의 재정 감사 기관 ‘Cour des comptes’<sup>48)</sup>에 따르면, 2012년도

아카데미 보자르의 자본금은 24.5백만 유로로, 과학 아카데미와 함께 프랑스 학사원을 구성하는 다섯 개의 아카데미 중 가장 큰 규모이다<sup>49)</sup>. 같은 해 프랑스 학사원과 아카데미들의 총 결산에 의하면 아카데미 보자르가 12개 월 간 부여받은 자원은 146백만 유로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장 적은 규모의 정신과학 및 정치 아카데미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sup>50)</sup>

아카데미 보자르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손꼽히는 뮤지엄들의 입장료 및 기념품 샵의 수입에서 운영비를 얻고 있으며 각종 재단이나 개인으로부터 오는 기금 및 후원금도 아카데미 보자르의 활동의 주요 재정원이 되고 있다. 재단 및 기금 후원의 대표적인 예로, 아카데미 보자르는 문화유산 재단(Foundation Patrimoine)과 협력하여 문화적으로 가치 높은 건축물의 복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문화유산 재단을 통해 기금을 모금한다.<sup>51)</sup>

## 나. 조직

### 1) 운영 조직 구성

아카데미 보자르의 조직은 사무국과 행정위원회, 특별위원회로 이루어졌다. 사무국은 의장과 부의장,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행정위원회는 매년 사무국을 비롯하여 각 아카데미 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특별위원회는 아카데미 보자르의 활동을 조력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생성 가능하며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48) 프랑스 정부 하에 위치한 재정 감사 기관으로 공공예산, 국립기관, 공사, 사회보험 기관 등의 재정 감사를 담당함

49) 다만, 보자르를 포함하여 학사원과 5개의 아카데미 예산에 관하여 불투명한 예산 사용과 아카데미 회원에 대한 과한 보상금 및 건물 임대비용을 비판하는 보고서가 2015년도에 출간된 바 있음

50) 2012년 12월 기준, 시행되고 있는 각 아카데미의 서비스(사업)은 아카데미 프랑세즈 22개, 비명 문학 아카데미 15개, 과학 아카데미 46개, 정신과학 및 정치 아카데미 5개임

51) le bulletin de souscription maison atelier lurçat 2015, foundation patrimoine 2015

〈표 5-12〉 프랑스 아카데미 보자르의 조직구성

기구	주요내용
사무국	구성 :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등 - 사무국장은 6년마다 갱신하여 선출되지만, 연한 제한이 없어 종신제로 볼 수 있음 - 회원으로 임명된 지 최소 2년이 되어야 후보자가 될 수 있음 - 모든 행정 책임을 지고 대표성을 갖고 있음 - 구성원은 비밀투표를 통해 다수결 선출 - 후보자는 7개 분과 각 대장 1인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해 결정
행정위원회	구성 : 2인 - 매년 사무국을 비롯하여 각 아카데미 회원 중에서 선출 - 최대 4년까지 연임 가능(재임 가능 횟수 4번)
특별위원회	구성: 임의적 - 아카데미 보자르의 활동을 조력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영구적 혹은 임시적으로 생성 가능 - 예시: 규제위원회, 독서위원회, 사전위원회, 예술교육위원회, 메디시스 빌라 위원회

자료: 프랑스 법령 no 2015-1739, 제3장 아카데미 보자르의 조직과 행정 참조 (2015.12.23)

## 2) 청사 및 부대시설

아카데미 보자르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네 마르모 땅 미술관, 지베르니 모네의 집, 빌라 에프루시 드 로스차일드 뤼싸 기증회 등의 뮤지엄 및 재단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 다. 회원개요

### 1) 선출 방식 및 임기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비밀투표 방식을 통해 선출되며 회원 선출은 유효표의 절대 다수자로 결정된다. 새로운 회원을 선출할 때, 그 표결의 정족수는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의 절반이며, 한번 선출된 회원의 임기는 종신제로 기존 회원이 사망 시 해당 자리는 임시적으로 공석이 된다. 회원이 사망하면 바로 그 다음 회의에 아카데미 의장은 회원의 사망을 알리고 아카데미는 후임자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을 잡는다. 이 후임자 선거는 전



임자의 사망이후 6주 내로 시행된다. 신규 회원 선출에 있어 회원 후보는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의 추천에 의해 선별되며, 구체적인 선출 방식은 프랑스인 회원, 외국인 회원, 그리고 통신회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 2) 회원 자격 및 현황

현재 아카데미 보자르의 회원은 정회원 47명, 준회원 16명, 통신회원 46명으로, 총 10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국적에 따라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뉘며, 구성원이 되기 위해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표 5-13〉 아카데미 보자르 회원 현황

구분		인원
정회원	프랑스인	47
준회원	외국인	16
통신회원	프랑스인 및 외국인	46
계		109

자료: 아카데미 보자르(<http://www.academie-des-beaux-arts.fr>)

〈표 5-14〉 아카데미 보자르의 구성원 자격

회원구분	자격
정회원 (Academicie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랑스 국적을 가진 최소 25세 이상의 예술가 혹은 예술분야 관련인사</li> <li>아카데미 보자르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가할 수 있어야 함</li> <li>법령에서는 회원 최소 제한 연령을 25세로 하고 있지만 예술계에서 매우 저명한 예술인들을 선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선출되는 회원의 나이는 평균적으로 예술활동을 많이 한 50-60세 이상이라 할 수 있음</li> </ul>
준회원 (Associés étrang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 국적을 가진 예술가 혹은 예술분야 관련 인사 최대 16명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통신회원 (Correspond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술역사가 및 예술계 후원자 또는 아카데미 보자르 분과에 속하지 않는 예술분야 아티스트 및 세계 예술문화계 유명인사로 아카데미에 조력할 수 있는 자</li> <li>통신회원은 프랑스인으로 구성된 정회원 수를 초과할 수 없음</li> </ul>

자료: 프랑스 법령 no 2015-1739 (2015.12.23)

### 3) 회원 구성

‘기타 자유분과’에는 아카데미 보자르 후원자, 뮤지엄 관장, 공연장 대표 등 문화예술에 크게 기여한 전문가를 회원으로 추대한다. 이때 본업이 문화예술인이 아니더라도, 부업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 각 분과의 여석은 시대 상황에 따라 축소 혹은 증대되거나, 다른 분과로 이전되는 등 유동적이다.

〈표 5-15〉 정회원 현황

분과	정원	현원
회화	10	7
조각	8	7
건축	9	8
판화	4	3
작곡	8	6
기타 자유	10	8
영화 및 시청각	6	4
사진	4	4
계	<b>59</b>	<b>47</b>

자료: 아카데미 데 보자르(<http://www.academie-des-beaux-arts.fr>)

프랑스 국가법령(<https://www.legifrance.gouv.fr/>)

### 4) 회원 예우 방식

아카데미 보자르는 학사원 세레모니를 통한 신규 회원의 취임식을 개최하는데, 이는 보자르 회원의 명예로운 위상을 보여주는 공식 행사이다. 매년 9월 프랑스 학사원 건물에서 이루어지며 아카데미 보자르의 새로운 회원 취임식이 거행된다. 기존 회원들 사이에서 새로운 회원의 임명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선대 회원에게 경의를 표하는 연설이 이루어진다.



연설자가 착용한 녹색 예복(왼쪽)

녹색 예복을 입은 아카데미 보자르 회원들(오른쪽)

자료: 아카데미 데 보자르(<http://www.academie-des-beaux-arts.fr>)

[그림 5-9] 아카데미 프랑스의 연간 세레모니

프랑스인인 정회원의 경우, 사무국장 지정 및 임명 시 선거권과 콩쿠르의 심사위원 참여 기회를 갖는다. 또한 아카데미 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상징적인 의무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아카데미 보자르 회원은 명예직으로서 공식적 급여를 받지 않으나, 관할 부의 지침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데, 그 중에서 절반은 주 1회 아카데미 보자르 회의 참석을 위한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배당된다.

그러나 외국인인 준회원의 경우에는 아카데미 보자르 주최 회의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선거권 및 아카데미 주최 시상 및 콩쿠르 심사권한은 부여받지 못한다. 또한 회의 참석에 대한 출석 수당이나 특별 보상을 받을 수 없어 그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아카데미 보자르의 회원이 되어 토론장에서 발언권이 주어진다는 것만으로 큰 영예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 라. 주요사업

9월부터 7월까지, 아카데미 보자르는 매주 수요일에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각 예술 영역의 프랑스를 대표하는 회원들이 주에 한 번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예술 동향을 파악하고 현실과 연계되어 있는 예술영역의 의제들, 특히 다학문적 특징을 갖는 예술 주제에 관해

토론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간지 〈아카데미 보자르의 편지〉는 1994년 이후 아카데미 보자르와 그 회원들의 모든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잡지로 연간 4회, 분기별로 출간되고 있으며, 매 권은 예술 분야의 한 가지 주제에 관한 특집 기사를 다루고 있다.

아카데미 보자르는 정부 및 협회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고문역할을 담당함은 물론, 예술교육, 문화재 복원 및 보존, 예술가의 사회적 보장 등 각 예술 영역에 관한 조언 및 권고사항을 ‘정책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 제안한다. 이외에도 유네스코와 국제예술촌, 국립미술관회의 등과 같은 기관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수행하며, 정부나 언론에 대해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도 개진한다. 대표적인 예로 2007년 아카데미 보자르가 출간한 보고서 〈풍력, LES OLIENNES〉은 당시 논쟁거리로 떠올랐던 풍력 발전 산업에 대한 아카데미 보자르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레지던시 연수 및 시상 프로그램’은 발 도아즈, 샤르 지역에 위치한 빌라 레 팡송(Villa les Pinsons)에서 매년 봄과 가을 두 번 예술가들을 모집하여 멋진 풍광의 숙소와 아틀리에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 외에도 뤼베론 지역의 ‘샤또 르네상스 드 루르마랑’, 아베이 지역 수녀원이었던 ‘아베이 센터’ 등과의 파트너십을 맺어 프랑스의 여러 지역에 예술 창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통 있는 마드리드 카사 드 벨라스케스에의 연수 지원 등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예술교육 이외에도 초중고생과 성인들에게 예술창작의 입문과 실기 교육 지원한다.

주요 뮤지엄 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아카데미 보자르가 관리·담당하는 ‘재단 및 뮤지엄’의 공공 또는 개인 예술품들을 관리한다. 그 예로 마르모탕 모네 뮤지엄, 로스차일드 에프루시, 빌라 뒤프란. 끌로드 모네 등의 뮤지엄과 재단 등이 있으며, 이러한 뮤지엄과 재단을 운영하여 중요한

예술품들과 문화재를 보존하는 동시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여 프랑스의 예술 교육과 문화 수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 마. 종합 및 시사점

아카데미 보자르는 자국 예술의 순수성과 전통을 중요시 하여 보존하려는 노력과 함께 현대 예술적 동향을 수렴하고 예술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현재 동시대의 예술가들의 성장을 도모하여 예술 연수 프로그램과 다수의 시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같은 예술 전문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개인의 역량을 넘어 국가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오랜 예술문화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건축물이나 뮤지엄에서의 교육연수와 체류를 통해 예술가들을 교육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프로그램은 과거와 현대의 예술과 문화적 흐름을 연결시킨다.

또한 2005년 아카데미 보자르는 새로운 분과를 신설(사진 분과)하였는데, 이는 아카데미 예술(왕립, 엘리트 예술)이 지배적이었던 보수적인 프랑스의 예술계 조직에서의 뚜렷한 일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법률 상 새로 명시된 조직 내 회원 구성에 대한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구절은 남성 위주였던 보수적인 국가 기관에 근원적인 변화의 노력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성 차별에 관한 세계적 의식의 흐름을 문화예술계에 반영한 것이다.

## 6. 영국 왕립 미술 아카데미

### 가. 일반 현황

#### 1) 설립목적 및 역할

왕립 미술 아카데미는 예술가들에 의해 예술 활동 및 공공의 예술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08년에는 자선단체로 등록하여 시각 예

술의 증진과 공공의 문화향유 및 예술교육 등을 목표로 공익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명한 예술가와 건축가가 이끄는 독립적인 민간 기관이자, 영국 대표 미술 기관으로 명성을 쌓고 있다.

## 2) 기능

공공미술, 교육활동, 창작활동 지원, 예술 교류 및 행사 개최, 정기전시, 소장품 대여 등 예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영국의 미술과 건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왕립 미술 아카데미답게, 18세기 말부터 줄곧 최고 수준의 회원들을 선출하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3) 역사

영국에서 가장 오래 된 미술 단체인 아카데미는 1768년, 조지 3세의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미술학교를 개설하고 연례적으로 전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예술가에 대한 전시 수입 분배 등을 통해 영국의 순수 미술을 육성하고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설립되었다<sup>52)</sup>. 36명<sup>53)</sup>의 예술가 및 건축가들이 정기전시회 및 미술 학교의 건립 등 시각예술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하였다. 당시 정회원이 40명, 준회원이 20명이고 투표에 의해 선출된 회장 1명과 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운영되었다. 그 후 해마다 전시회를 열어왔으며,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유치함으로써 오늘날에는 런던에서 유료 입장객이 가장 많은 10대 문화기관으로 뽑힌다.

## 4) 재원 근거

왕립미술원은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정부 및 정부 산하단체의 지원 없이 관람수익, 개인 또는 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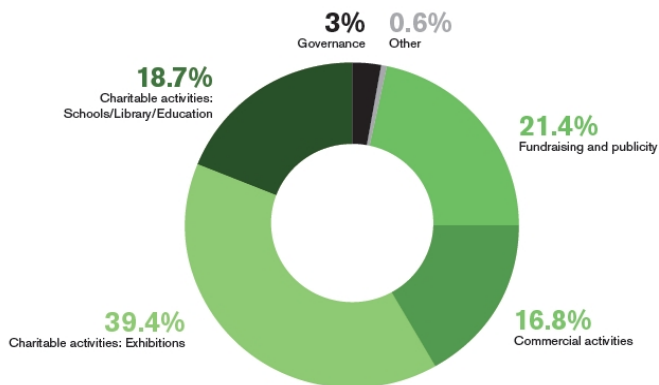
52) 월간미술(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53) 36명의 초대 Academician은 다양한 국적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4명의 이탈리아인, 1명의 프랑스인, 1명의 스위스인, 1명의 미국인 그리고 29명의 영국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음

있다. 2014년 기준 1년간 총 수입은 39.6백만 파운드<sup>54</sup>로, 재원의 비율은 상업 활동(카페, 음식점, 기념품점, 온라인샵 등)을 통한 수익 29.0%, 일반 회원(Friends of the RA)의 기부금 25.6%, 전시활동 수익<sup>54</sup> 16.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5) 운영예산 현황

2015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예산 운영 현황은 전시활동 39.4%, 모금캠페인 및 홍보 21.4%, 학교·도서관·교육 운영 18.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Royal Academy of Arts, (2015), *Report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for the year ended*  
 주: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 기준

[그림 5-10] 왕립 미술 아카데미의 지출 비율

## 나. 조직

### 1) 운영 조직 구성 및 추진체계

#### ① 임원 체계

54) 관람객의 선택에 따라 전시회에 기부금을 낼 수 있음

왕립미술원의 임원은 회장, 교육국장, 사무처장, 회계국장으로 구성된다. 회장은 왕립미술원을 대표하는 자리로 투표로 선출되며, 자금조달 등 미술원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국장은 미술원에서 운영하는 예술학원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며 높은 수준의 교육과 학술적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무처장은 유일하게 왕립미술원 회원이 아닌 임원으로 미술원의 사무행정을 담당하며, 회계국장은 미술원의 재무,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의회(Council)

의회는(Council)는 4명의 임원(Officers)와 13명의 의원, 3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13명의 의원으로 이루어진 의회는 아카데미의 주요 안건을 결정하고 운영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13명의 의회 의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해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6명씩 선출된다. 의회 의원은 왕립미술원의 회원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맡게 된다. 특히 새롭게 선임된 회원은 첫 해에 의회직을 필수로 수행하게 된다. 3명의 외부의원은 의회와 총회에서 결정되며 임기는 2년이며, 외부위원은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조언이 가능한 전문가를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 ③ 사무국

아카데미 정회원 외에 300명에 달하는 총 291명의 정규 직원들이 부서와 팀으로 세분화되어 근무하고 있다. 총 인원은 청소, 경비, 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한 수이며 청소직원, 경비직원 등도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 근무하고 있다. 사무국은 회장 및 사무국장 휘하 총 11개의 부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의회의 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 다. 청사(부대시설)



자료: The Guardian 홈페이지 (<https://www.theguardian.com/international>)

[그림 5-11] 영국 왕립 미술 아카데미 청사

왕립 미술 아카데미의 설립 이후 몇 번의 청사 이동이 있었다. 1대 청사는 고급 쇼핑몰이 밀집한 지역인 Pall Mall에 위치하였다. 2대 청사는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리 건물이다. 1830년대 당시 새롭게 설립된 내셔널 갤러리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였다. 3대 청사는 1867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벌링턴 하우스(Burlington House)이다. 벌링턴 하우스는 런던의 피카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854년에 정부가 구입하여 1868년부터 74년까지 증축하였다<sup>55)</sup>. 본관 건물의 뜰과 주택을 왕립 미술아카데미가 사용하고 있다. 지난 해 왕립 미술 아카데미는 창립 250주년을 맞아 벌링턴 하우스와 벌링턴 가든의 북쪽을 잇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진행에 착수하였다.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2개의 동으로 나뉜 두 건물을 다리로 연결하여 하나의 건물로 통합하여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다. 특히 새롭게 조성된 공간에는 강의실 및 전시실 등 일반 대중을 위한 공간이 더 확장되며, 새 청사는 아카데미의 회원 중 한 명인 유명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David Chipperfield)가 설계를 맡았다.<sup>56)</sup>

55)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1998), 『미술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56) The Guardian(2015. 5. 11), "Royal Academy of Arts redevelopment plans revealed"

## 라. 회원(Royal Academicians)

설립 당시의 설립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아카데미의 모든 활동은 예술가가 결정한다. 특히 아카데미의 회원은 아카데미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비전을 세우고 이끄는 역할을 한다.

### 1) 선출방식 및 임기

회원직은 선출 시부터 75세까지 수행하게 되며 75세가 넘으면 상급회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현 회원이 75세가 되어 상급회원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공석이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회원을 선출하게 되며 평균적으로 한 해에 1~2명의 새로운 회원이 선출된다.

회원의 선출 방식은 현 회원이 지명자 등록부에 지명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후보를 추천한다. 지명자 등록부에 오른 지명자는 8명 이상의 회원 지지를 받아야 한다. 총 8명의 회원의 지지를 받게 되면 후보자가 된다. 매년 3월, 5월, 12월에 모든 회원이 참석하는 정기총회가 개최되고, 이 때 후보자를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 2) 회원의 자격 및 현황

아카데미 회원의 자격은 '영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또는 건축가로서 75세 미만이며, 현재 아카데미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회원직은 75세까지 수행하게 된다. 회원 활동을 하며 75세가 넘게 되면, 그 이후로 종신까지 상급회원으로 회원의 자격이 변동된다.

또한 아카데미는 명예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 예술인 중 예술적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명예회원직을 수여한다. 명예회원 역시 현 회원의 추천 및 투표로 선출된다. 뿐만 아니라 예술가는 아니지만 예술계에 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는 명예동료 또는 명예멤버 직을 수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명예동료 및 멤버 선출 역시 현 회원의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 3) 회원 구성

〈표 5-16〉 왕립 미술 아카데미 회원 구성

구분	자격
정회원(Royal Academician)	아카데미의 정회원은 4개 부과(회화, 판화, 조각, 건축)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총 80명의 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화를 제외한 다른 여러 분야는 최소 회원 수를 정하여 예술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화를 제외한 분야별 최소 회원 수는 조각 14명, 건축 12명, 판화 8명이다.
상급회원(Senior Royal Academician)	정회원으로 선출 후, 75세 이상이 된 회원은 자동으로 상급회원으로 자격이 바뀌게 된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총 46명의 상급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
명예회원 (Honorary Royal Academicians)	아카데미에서는 유명 외국 예술인을 명예회원으로 임명하여 예술적 교류를 장려하고 있으며, 총 30명의 명예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 매년 임명하는 인원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16년 새롭게 임명된 회원은 2명으로 세계 유명한 문화예술인이다.
명예동료 (Honorary Fellow), 명예멤버 (Honorary Member)	예술에 기여한 법조인, 영화 제작자, 교수, 종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명예동료와 명예멤버를 폭 넓게 임명하고 있다. 총 21명의 명예동료와 10명의 명예멤버가 활동하고 있다.

자료: Royal Academy of Arts(2015), *Report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for the year ended*

## 4) 회원 예우 방식

〈표 5-17〉 왕립 미술 아카데미 회원 예우방식

구분	자격
임원진 보수 지급	4명의 임원진(President, Keeper, Secretary and Chief Executive, Treasurer)에게는 연간 총 320,940파운드(약 4억 7천만 원, 2016.08.26. 환율 기준)의 보수가 지급된다 <sup>57)</sup> . 또한 임원진으로 활동할 경우 연금 혜택이 주어진다.
활동비 지원	의회 멤버에게는 아카데미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을 하며 주로 연간 교통비 5,062 파운드(약 746만원, 2016.08.26. 환율 기준), 활동비 5,703 파운드(약 841만원, 2016.08.26. 환율 기준) 총 10,765파운드(약 1,586만원, 2016.08.26. 환율 기준) 의 활동비 지출이 있다. <sup>58)</sup>
기타 예우 사항	아카데미의 회원에게 지원되는 여러 예우 사항에는 영국 미술계 큰 행사인 Summer Exhibition에 최대 6개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아카데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 수 있는 자격 또한 주어진다. 아카데미는 미술 교육기관으로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회원으로 선출이 되면 아카데미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으며, 이 밖에 다양한 공공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정회원이 되어 본인의 작품을 아카데미에 기부하게 되면 왕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인증서를 수여받는다.

자료: Royal Academy of Arts(2015), *Report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for the year ended*

## 마. 주요사업

### 1) 교육사업

왕립 미술 아카데미 학교는 영국 최초의 예술학교로 현재는 대학원 과정(3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아카데미 학교는 학위 과정이 아니라 수료 과정이지만 학비가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입학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또한 영국 내에서 역사가 깊고 직접 왕립 미술원 회원이 강의하는 수업의 질이 매우 높아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으며 과정을 통해 많은 예술인을 배출하고 있다.

### 2) 전시

아카데미에서는 고대 조각부터 근현대 작품까지, 회화부터 대규모 설치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전시는 주로 아카데미 건물 내의 사클러윙(The Sackler Wing)과 벌링턴 가든 갤러리에서 개최되며, 아카데미 회원은 전시의 기획부터 직접 작품의 제작까지 전시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1년간 진행된 아카데미 전시는 총 898,479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정도로 전시의 질이 높다.

#### ① 여름 전시회 (Summer Exhibition)

Summer Exhibition은 아카데미를 대표하는 행사로 매년 TV를 통해 중계될 정도로 영국 시각예술계의 큰 행사이다. 176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의 오픈엔트리전시(open entry exhibition : 아마추어부터 현직 작가까지 경계가 없이 출품이 가능한 전시)로 이뤄진다. 출품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해에 수상자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큰 이슈가 되며, 매년 수천 개의 작품이 출품된다. 출품된 작품 중 전시 작품은 아카데미의 회원

57) Royal Academy of Arts(2015), Annual Report에 따르면 2014년 9월 ~ 2015년 8월 기준으로 지급된 금액이다.

58) 기준: 2014년 9월-2015년 8월

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출품된 작품 가운데 1,000개의 작품만 선정되어 최종 전시된다.

## ② 소장품 관리 및 대여

아카데미 소장품 컬렉션은 아카데미가 설립될 때부터 시작되어 현재 까지 이어지고 있다. 컬렉션 중 일부는 어린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가들이 직접 기부한 것이다. 현재 935점의 회화, 350점의 조각, 700점의 석고상, 25,000점의 인쇄물과 스케치, 5,000점의 기록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장 작품은 주로 18세기 이후 작품이 많으며 대부분 영국인 예술가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장하고 있다.

또한 아카데미가 설립된 1768년부터 도서관과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영국의 예술과 아카데미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문서(RA schools, 회원, 전시, 컬렉션과 관련된 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리 예약을 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87점의 소장품이 세계의 32개 장소에서 전시되었다.

## ③ 일반회원(Friends of the RA) 운영

일반회원은 회원제도와는 별개로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서비스로 일반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본인과 가족이 모든 전시에 무료 입장할 수 있으며 키퍼스 하우스(Keeper's House)의 라운지와 레스토랑 각테일 바, 가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시의 프리뷰 데이, 이벤트, 투어, 교육 등 수시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멤버십 회비는 학생의 경우 40~50 파운드, 일반인 97~107 파운드, 부부(Joint Friends)<sup>59)</sup> 140~150 파운드이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현재 일반회원의 인원은 총 84,578명으로 집계되었다.

59) 같은 주소지의 거주중인 성인 2명은 가입가능

## 바. 종합 및 시사점

영국의 왕립 미술 아카데미의 경우 회원 구성부터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숙고가 드러난다. 또한 이러한 문화다양성을 추구하는 기조를 이어 명예회원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외국인회원을 임명하고 다양한 문화권의 예술가들의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예동료 또는 명예멤버 제도를 통해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예술계에 공헌한 사람을 회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예술계와 지속적인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일반인 회원의 멤버십 운영을 활성화하여 아카데미 운영 재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였다. 일반인 회원의 기부금이 전체 수익의 25.6%에 달하고 있어 체계적인 회원 관리를 통한 기부금 재원이 풍부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멤버십을 운영하기 위해 전시 무료 입장, 프라이빗 공간 제공, 라운지와 레스토랑 각테일 바 활용 등의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은 일반회원들의 회비와 더불어 행사 때 자율적으로 기부금을 지원할 수 있어 재원 마련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 마련 구조들은 아카데미가 국가의 지원 없이 독립적인 운영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아카데미 회원들의 생생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영국 내의 예술가 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오픈 엔트리 전시인 여름전시회를 기획하고 추진하여 영국을 세계적인 예술 국가로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도 맡고 있다. 누구나 참여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름전시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전시로 제공함으로써 경계 없는 예술을 추구하고 예술과 대중이 함께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 주고 있다.

## 7. 독일예술원<sup>60)</sup>

### 가. 일반현황

#### 1) 설립목적

독일예술원은 독일 연방공화국 내에서 예술을 진흥하고 문화 예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 연방에 의해 운영되는 법인체이다. 예술을 진흥하며 국가와 사회에서 예술의 자유와 권리를 대변하고자 설립되었다. 예술원은 전시, 토론회, 영화, 연극과 무용공연, 음악회, 낭독회, 시상식, 간행물, 세미나, 컨퍼런스, 강연회와 현대예술의 범주에서 입지가 있는 워크숍 등을 발표하고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의 관리에 헌신하는 역할을 한다.

#### 2) 설립근거<sup>61)</sup>

2005년 5월 1일 연방정부 예술원 설립법(연방법률관보: BGBl. S. 1218)에 의거하여 독일예술원이 설립되었으며, 1696년 프로이센의 예술원 설립 당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예술원은 직업적으로 예술에 종사하고 그 작품이 예술원에 의해 인정받는 예술가들의 국제적 협회이며 “세계 특혜의 목적(§ 52)”에 의거하여 예술원은 전적으로 공익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60) 독일예술원 공식홈페이지, 예술원정관과 예술원설립법, 위키피디아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정리함  
독일예술원 홈페이지 <http://www.adk.de/de/akademie/> (2016.8.20. 인출),

위키피디아 [https://de.wikipedia.org/wiki/Akademie\\_der\\_K%C3%BCnste\\_\(Berlin\)#Preise](https://de.wikipedia.org/wiki/Akademie_der_K%C3%BCnste_(Berlin)#Preise)

61) 정관과 예술원설립법령 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함

- 예술원 정관(Satzung der Akademie der Kunst: 총회를 통해 2006년 정관수립 및 2012년 5월 2일 보완, 2013년 11월 1일 개정)

- 근거 법령 “Gesetz zur Errichtung der Akademie der Künste vom 1. Mai 2005 (BGBl. I S. 1218)“

예술원 정관은 2006년 4월 28 일 회원총회에 의해 결정되었고, 2012년 5월 5일 및 2013년 11월 1일 총회에서 보완 및 개정되었다. 독일예술원의 명칭은 예술원(Akademie der Künste)이며, 원래 베를린 시와 브란덴부르크 정부에 의해 운영되어 왔지만 2005년 5월 1일 제정된 법을 근거로 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연방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3) 기능

독일예술원은 현대 예술의 새로운 트렌드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임무를 띠며, 이러한 임무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전시회, 강연회, 낭독회, 영화상영, 연극 무용 공연 등의 다양한 행사를 주최한다.

또한 예술원 회원들의 다양한 저작들을 소장하고 있는 아카이브의 운영과 관리, 개방의 업무, 예술원 소속 도서관 업무 등을 통해 예술원 회원 소장 자료 및 예술관련 일반자료들을 대중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200 점 이상의 예술가 상속물과 광범위한 예술 수집품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20세기 예술의 가장 중요한 학술적 아카이브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문학과 관련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6개 예술분과를 통해 회원을 지명하고 관리하는 일과 미래의 예술가를 육성하기 위해 각국의 청년예술가를 장려하는 청년작가예술원을 운영하고 있다.

### 4) 연혁

독일 베를린 예술원은 1696년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I세가 로마와 파리의 모델을 따라 설립한 ‘미술, 조각 건축 아카데미’를 모태로 하여 시작되었다. 후진 양성 및 예술관련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던 베를린 예술원은 1세기 이상 침체기에 빠져 있다가 계몽시대인 1786년 프리드리히 빌헬름 II세에 의해 다시 부활하여 활발한 전시 활동 등을 주축으로 문화와



예술에 관한 공적인 토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예술원은 1907년 브란덴부르크 문 바로 옆의 파리저 플라츠 (Pariser Platz)로 이전하였고, 1920년 대 독일 미술계의 거장 막스 리버만 원장 시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문화적 공론 형성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1933년 국가사회주의 집권 이후 40여명의 예술원 회원이 축출되고 1937년에는 예술원 자체가 해산되기도 하였다.

2차 대전 이후에는 1950년과 1954년에 각각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에서 독자적인 예술원이 설립되어 운영되다 1990년 통일이후 투표절차를 거쳐 1993년 1월 1일부터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의 예술원이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 5) 재원근거

예술원의 재정은 연방정부가 매년 예산지원을 하며, 독일 기본법 제 22조 1과 106조 8에 의거, 수도로서의 베를린의 위상 및 역할의 충족과 관련 연방정부와 베를린 간의 협력에 관한 1992년 8월 25일의 협약을 지속하고 있다.<sup>62)</sup>

2007년 발표한 연방정부의 공식적 재정지원 사항을 보면, 이전까지의 문화지원의 계속지원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면서 정부가 2004년 1월 1일 과업으로 승계한 예술원 설립과 재정지원의 계속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으로 1999년 조성된 ‘예술원 후원회(Gesellschaft der Freunde der Akademie der Künste)’가 예술원의 프로젝트 활동, 공연, 아카이브 등의 중요한 의미를 알고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 6) 운영예산 현황

2006년도 1월 1일 이후 연방정부의 산하로 이관된 독일 예술원의 예산

62) Abgeordnetenhaus Berlin(2007). 16. Wahlperiode, 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 2007, Vertrag über die aus der Hauptstadtfunktion Berlins abgeleitete Kulturförderung und die Abgeltung von Sonderbelastungen der Bundeshauptstadt, 2007년 11월 30일 독일연방정부와 베를린 주정부가 발표한 약정서

은 연간 18,430,000 유로에 달하며, 거의 대부분 연방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있다. 이에 따라, 예술원 예산 집행내역은 매년 독일 행정부 회계 감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008년의 예산운용 현황을 보면, 연방지원금의 비중이 96.3%, 자체 수입금이 3.7%로 나타나, 정부기금이 중요한 자원임을 알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은 총예산의 약 10%정도로(2008년 기준) 나타났다.

〈표 5-18〉 독일예술원의 연간예산(2008)

(단위 : 천 유로)

항목	2008년 예산액	전체 예산 대비 비율(%)
직원인건비 (정규직 및 프리랜서 포함)	8,653	47
일반관리비 (임대료 등)	6,113	33
IT 경비	524	3
행정경비	1,239	6.7
프로그램 운영 경비	1,901	10.3
총계	18,430	100
(연방 지원금)	(17,751)	96.3
자체 수입금 (입장료 등)	679	3.7

자료: 독일예술원 내부자료

## 나. 조직

### 1) 운영 조직 구성

#### ① 회원 총회

모든 회원은 회원 총회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회원 총회는 회원 및 명예회원 선출과 원장 및 부원장, 각 분과장 및 부분과장을 선출한다. 회원 총회는 3년 임기로 최대 4명의 위원회 위원을 선출(위원장, 원장 혹은 12명 이상의 회원이 제안한 후보를 대상으로 함)할 수 있으며,

재선은 2회까지 가능하다.

회원 총회는 1년에 2회(연초와 가을) 개최되며, 분과회의와 총회로 구성된다. 총회는 법이나 정관과 다르지 않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총회의 결정은 모든 회원에게 소집을 알리고 적어도 1/6이 참석했을 때 효력이 있다.

## ② 위원회(Senat)

예술원의 조직은 원장, 부원장 산하 6개 분과위원장과 각 분과 회원들이 있다. 한 분과 당 7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2016년 현재 회원 수는 423명이며, 총 회원 수가 50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갖고 있다.

위원회는 예술원에서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로서 명시적으로 다른 조직이나 아카이브, 자문회의 업무 등을 빼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 예산안, 인사 문제, 각종 시상과 장학금 관련 지침 마련 등 예술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원장

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예술원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회원총회와 위원회의 의장 역할을 담당한다. 예술원의 모든 업무는 원장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으며, 사무처장은 원장에 직속으로 소속되어 있다. 부원장이 원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원장과 부원장 모두 불참할 때는 위원회의 가장 나이 많은 회원이 그 역할을 대행하게 되어 있다.

## ④ 분과 구성

독일 예술원은 시각예술, 건축, 음악, 문학, 공연예술, 영화 및 미디어 예술 등 총 6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장이거나 그 업무대행인이 이끌어 가고 있다. 각 분과는 업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프로젝트들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조정하고 지원한다.

각 분과에는 한 명의 분과 위원장이 있으며, 이들은 동시에 예술원 위원회 회원의 역할도 담당하며 분과의 총회에서 3년 임기로 선출되며 재임은 2회까지 가능하다. 또한 각 분과의 업무를 위해서 사무처 직원이 배당되어 있다. 예술원 사무처는 하나의 통일된 조직이 아니라, 예술원 각 기구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고용된 직원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 ⑤ 청년작가 예술원 - 국제 장학프로그램

청년작가 예술원은 예술 전 분야의 국제적 청년작가들에게 상금과 장학금 후원이 핵심과업이다. 20년 이상 예술원 전 영역의 청년작가들이 지원받았으며 전 세계 전역에서 예술원으로 초청되어 다락층 아틀리에와 게스트용 아파트를 사용하게 된다.

청년예술원은 300년이 넘는 전통적인 예술원에 2007년부터 자리를 잡았으며 독일의 정치적 격변기인 1989년, 동/서 베를린 예술원의 통합으로 충돌되었던 1993년의 시기와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국제적으로 젊은 예술가를 예술원에 연계하는 방안을 추구해 왔다. 약 20년에 걸친 노력과 토대 위에 처음으로 통합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 ⑥ 예술원 후원회

예술원 후원회는 1999년부터 예술원에서 6개 예술 분과영역의 협력 작업으로 만들어내는 수준 높은 예술작품과 예술원이 수행하는 귀중한 아카이브를 지원하고 있다. 후원회 참여를 통해 예술과 사회의 담론을 만들고 예술원 회원들과 간담회에서 만나기도 하며, 예술원 주요 프로그램에 초대받으면서 후원 친구로서의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술원 후원회의 주요 과업은 예술원 프로젝트의 지원으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예술원에 1.5만 유로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후원회원의 도움으로 예술원 고유의 전시, 공연, 콘서트, 독서, 강의와 출판

등의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 나. 청사(부대시설)

### 1) 예술원 청사



자료: 독일예술원(<http://www.adk.de/en/academy/>)

[그림 5-12] 독일예술원 청사

예술원 청사는 본관과 제 2청사로 운영 되고 있다. 1696년 설립이후 예술원은 20세기 초까지 베를린 운터 덴 린덴의 현 국립도서관에 위치했었고, 1907년 파리지 플라츠의 Arnim-Boitzenburg 궁으로 옮겼다. 그러다 1937년 나치스에 의해 예술원이 해산된 이후에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에 독립된 예술원이 설립되었고, 동독에 속했던 이 건물은 파괴되어 사용되지 못하게 되었다. 통일 후 격렬한 토론을 거쳐 예술원을 다시 Pariser Platz 4, 10117 Berlin으로 결정하기로 한 이후 6년간의 건축 기간을 거쳐 2005년 5월부터 예술원 본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서고(아카이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무가 현재는 이 본관에서 수행된다. 제2청사(Hanseatenweg 10, 10557 Berlin)는 1960년 6월 18일 이후 서베를린 예술원 본관으로 사용되었다.

### 2) 아카이브

기존의 아카이브, 컬렉션, 예술품과 책들을 관리하며 또한, 새로운

소장품을 수집하고 기록하며 공개하는 부분과 일치되도록 보관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예술원의 역사와 현재에 관련한 업무프로젝트 및 연구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고 예술원 기념관의 공개 업무를 지원한다.

독일예술원의 아카이브와 예술품수집, 도서관의 운영 역사는 1696년에 설립된 프로이센 예술원에서 시작되었다. 1950년과 1956년, 동/서 베를린 예술원은 사람과 관련된 아카이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1993년 통독에 따른 동/서 예술원의 통합이 이루어 졌다. 각 개별적 수집 품목은 시각예술, 건축, 음악, 문학, 공연 예술, 영화와 미디어 아트 등 6개 예술 영역의 아카이브로 분류된다.

〈표 5-19〉 독일예술원 아카이브 자료 수집 주제

중점적 수집 주제	1696년부터의 베를린 예술원 역사 자료
	예술원 회원의 아카이브
	1990년 이후의 베를린과 독일의 예술가와 문화적 삶
	국가사회주의 기간의 예술가 이주
	독일의 유대인 문화 협회(1933-41)
	동독의 문화 예술
	예술가 협회와 단체 아카이브

### ① 예술원 도서관

프로이센 예술원 도서관은 유럽 도서관 중 가장 중요한 도서관으로 손꼽힌다. 그 당시 소장고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도서관 카탈로그가 반복해서 출간될 정도였다. 1933년 이후 파시시트의 ‘획일화’에 따라 재고는 500권으로 감소하였다.

1950년 하인리히 만의 유산을 인수받으며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었다. 예술과 문학 아카이브, 도서관이 나란히 성장하였는데 예술가들, 작가와 학자의 유산과 개인 도서관이 예술원 소유가 되면서 도서관의 기반

이 조성되었다. 오늘날 예술원 도서관은 약 60만 권을 소장하며, 예술원 회원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문도서관이지만, 학문적 수요자들에게도 이용이 개방된다.

## ② 기념관

예술원에 속한 기념관은 두 개로, 작가 ‘안나 제거’를 기념하는 기념관 (Anna-Seghers-Straße 81, 12489 Berlin - Adlershof)과 배우이자 극장주인 헬레네 뷔겔과 작가 베톨트 브레히트를 기념하는 기념관 (Brecht -Weigel-Gedenkstätte, Chausseestraße 125, 10115 Berlin-Mitte) 등 2개의 기념관이 예술원에 속해 있다. 이 기념관들은 타계한 작가들의 거실과 작업실을 보고자 하는 방문객에게 개방되며, 20세기 세 명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작가들의 주거와 창작환경을 보여준다.

## 다. 회원개요

### 1) 선출방식 및 임기

예술원 회원의 선출은 각 분과나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회원 총회의 동의를 거친 후 원장에 의해 임명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때 회원 총회에서는 참석회원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회원 선출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의 추천 등의 절차는 없으며, 분과나 위원회에서는 신규 회원을 제안할 때 반드시 적절한 근거와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술원 회원의 임기는 종신제로 죽음, 포기, 제명을 통해서만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예술원 회원이 회원직을 포기할 경우에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 2) 회원의 자격 및 현황

독일 예술원 회원의 자격은 현대 예술에 지대한 공헌을 한 예술가로서

국적, 거주지, 언어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또한 회원 수 규정에 관계없이 명예회원을 선출할 수 있다.

명예회원은 예술 진흥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서 선출되며, 절차적으로는 예술원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회원 총회에서 과반 수의 찬성을 받아 선출된다. 명예회원은 어떠한 분과에도 소속되지 않고 총회에 투표권을 가지지 않으며 자문의 기능을 수행한다.

### 3) 회원 구성

현재 예술원 회원 총수는 423명이며, 현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분과별 현원은 아래의 <표 5-20>와 같다. 예술원은 각 분과별로 50~75명의 회원을 정원으로 하며, 전체적으로는 500명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6년 7월 15일 현재, 회원 수는 423명이다.

<표 5-20> 독일예술원 분과별 현원

구분	현원	분과 위원장
미술 (Bildende Kunst)	71	Wulf Herzogenrath
건축예술 (Baukunst)	73	Michael Bräuer
음악 (Musik)	67	Manos Tsangaris
문학 (Literature)	67	Ulrich Peltzer
공연예술 (Darstellende Kunst)	71	Ulrich Matthes
영화 미디어 예술 (Film und Medien kunst)	74	Rosa von Praunheim
계	423	

자료: 독일예술원 [http://www.adk.de/de/akademie/pdf/15,7\\_Mitgliederliste.pdf](http://www.adk.de/de/akademie/pdf/15,7_Mitgliederliste.pdf) (2016.08.22.)

### 4) 회원 예우 방식

예술원은 전적으로 공익의 목적을 추구하며 예술원은 자산 축적의 목적이 우선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원은 원칙적으로 예술원으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대신에 독일의 예술가들은 2014년 8월 4일 제정된 독일의



예술가사회복지법<sup>63)</sup>으로 보호받는다.

## 라. 주요사업

### 1) 일반 사업 현황

독일 예술원은 예술원 회원들의 작품과 대중들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전시회, 강연회, 낭독회, 공연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술원 회원뿐 아니라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행사도 자주 운영하고 있으며, 시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예술가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토론회 등도 자주 개최하고 있다. 입장료를 받고 진행되는 이러한 행사들은 예술을 대중에게 보다 가깝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 예술원은 예술원 회원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문서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서고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1696년 베를린 아카데미 설립 이후 예술원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 1900년 이후 베를린의 예술가들과 문화전반을 알려주는 자료, 동독의 문화 및 예술정책 관련자료, 독일 예술가 협회의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연예술, 미술, 건축, 음악, 영화 및 미디어 등 전 장르를 망라하고 있다.

### 2) 시상제도

독일 예술원은 장학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진 예술가 상, 공로상 등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원 회원의 업적을 기려 제정된 상이 많으며 예술원 회원의 유산 등으로 조성

63) 1981년 7.1일 제정된 예술가사회보험법(Künstler-sozialversicherungsgesetz-KSVG)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은 예술가사회금고(Kunstlersozialkasse)이다. 독일 문화위원회(Kulturrat, 2014)는 2014년 4월 8일 연방고용부에 예술가사회복지법의 보장 법안을 의회에 가져가도록 요구하였고, 독일 연방 고용부는 이를 반영하여 예술가사회보장법 초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의 내용은 과세 회사의 정기적 조사를 통해 연금 보장을 요구하였으며 최저경계를 도입하여, 자영 예술가와 출판업자들의 연간 수입이 450유로 미만의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받도록 요구하였다. 이 법은 2014년 8월 4일 제정되었다. 독일은 1983년부터 예술가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한 국가로 유럽에서 유일하게 자영예술가들과 언론출판인들에게 의료, 상해, 연금보험을 제공한다.

된 기금으로 운영되는 상도 많은 편이다.

특히, 기금들은 뛰어난 예술적 업적을 남긴 예술가를 기리거나 잠재성이 풍부한 신진 예술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투자된다. 현재 예술원이 시상하고 있는 주요 시상제도에는 베를린 예술상, 케테 콜비츠상, 하인라히안 상 이외 20여 가지로 다양하다.

## 마. 종합 및 시사점

### 1) 독일예술원의 특징

독일은 연방공화국으로서 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주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방차원에서 운영되는 문화기구는 예외적인 사항에 속한다. 독일 예술원은 이러한 예외 중의 하나로서, 주를 초월하여 연방전체를 대표하는 독일의 문화예술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독일 예술원은 회원의 예우보다는 예술의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술원 회원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예술가로서는 최고의 명예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우는 없으며, 오히려 회원들의 작품과 활동을 널리 알리고 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독일 예술원은 자체 기획행사들을 통해 예술에 관심이 있는 대중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여 대중이 보다 가깝게 현대 예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독일 예술원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예술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독일 예술원이 독일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움직이고 예술원 후원회 등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데도 불구하고, 회원 자격을 국제적으로 개방하여 예술가들의 국제적인 커뮤니티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미래의 예술가를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작가 예술원을 운영하여 다양한 국적의 우수한 예술가들을 지명하여 창작 지원

을 하고 있다.

독일 예술원에서는 문학, 음악, 공연예술, 조형예술(미술), 영화와 미디어예술 분과, 건축예술 분과 등 6개 영역으로 장르가 세분화되어 있다. 이 중 영화와 미디어예술 분과의 독립체제는 21세기 다양한 미디어실험 예술 분야의 작가와 작품세계를 폭 넓게 수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2) 독일예술원의 역할 변화와 시사점

예술원 설립 당시의 이상향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에 의한 장벽 없는 소통과 작품에 대한 토론 등이 이루어지는 “예술가의 커뮤니티”였으며, 설립 초기 아카데미가 표방하는 이상향에 의해 예술원은 독일 사회에서 예술가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독일에서 예술 장르 간 경계는 엄격하였고, 다양한 작품 활동 역시 예술가 자신이 속한 장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예술원은 예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술 역시 자연과학만큼 일반 대중이 접하고 익히기 쉬워야 한다는 로마와 파리의 아카데미의 지향을 본받고자 하였다. 로마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국제적 예술교류 확대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술 장르간의 다양한 협력과 실험의 장을 장려하는 정책은 청년 작가 예술원에 입주한 청년작가들의 활동에서 드러나는데, 학문간 융복합 추세 및 뉴미디어 예술의 적극 수용 자세로 볼 수 있다. 국적도 다양한 청년작가들은 서로 입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양한 협력체제로 새로운 실험과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프로젝트와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 8. 미국 예술·문학 아카데미

### 가. 일반현황

#### 1) 설립목적 및 역할

미국 예술·문학 아카데미는 미국의 문학과 예술 진흥기관이다. 문학과 예술의 진흥을 장려하고 연방정부의 예술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시상제도 마련 등의 활동을 통해 문학 및 예술의 활동을 촉진하고자 설립되었다. 아카데미의 목적은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원·육성하는 것이다.

#### 2) 기능

아카데미에서는 문학과 예술 분야의 주요 인사들 중에서 250명의 회원을 지명하고 선출한다. 또한 매년 50명을 선발해 예술·문학상(Arts and Letters Awards), 메리트상(Award of Merit) 등을 시상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작품을 전시하고, 무대에 올리며, 박물관에 기증될 예술작품을 구매하는 것도 주요 임무이다.

#### 3) 연혁<sup>64)</sup>

아카데미의 기원은 1998년 ‘미국 사회과학협회(American Social Science Association)’의 한 분파로서 설립되었으며, 초기 명칭은 ‘국립 예술원’(National Institute of Arts and Letters)이었다. 1913년 태프트(William Taft) 대통령이 국립 예술원 재단을 승인한 이후 1916년 법인화되었다. 1976년 예술원과 아카데미는 하나의 이사회와 예산을 가진 단일 기구로 통합되어, ‘미국 예술·문학 아카데미 및 예술원(American Academy and Institute of Arts and Letters)’으로 불렸으나 1993년

64) 미국 예술·문학 아카데미 홈페이지(<http://artsandletters.org>)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두 기구가 완전히 융합되어 단일 조직으로 개편되고 현재의 이름 ‘미국 예술·문학 아카데미’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 4) 재원근거 및 운영예산 현황

회원은 일 년에 한 번씩 일정 금액의 연회비를 지불해야하며 주된 운영 자금은 기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통합 이전의 예술원으로 운영에 필수적인 금액만 마련될 정도로 미미했으며, 그 후 아카데미에 대한 기부는 부동산 및 금융 자산 투자가 가능할 정도의 규모로 성장했다. 1920년대 당시 아카데미 기부금 규모는 매년 평균 400,000달러이며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오늘날 2300만 달러 정도에 해당<sup>65)</sup>한다. 1976년 기관 통합 이후 아카데미 기부금에 의한 자산을 중심으로 회원 납부금 등을 포함하여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아카데미의 주된 운영 재원은 민간 기부금이며,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없다<sup>66)</sup>.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기는 하나 기부금 액수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대부분 예산이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조성된 재원은 사무국 운영비, 연초와 연말 회원 의례행사진행, 사업 진행 등의 비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 나. 조직

#### 1) 운영 조직 구성

아카데미의 운영은 사무국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무국 임원은 위원회 소집 및 회원 관리사항, 사무국 직원 고용을 담당하며, 두 기관 통합 이후 회계 관리 담당 임원은 단일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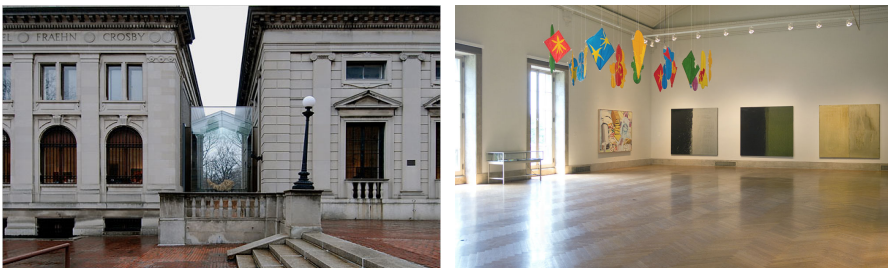
65) American Academy of Arts & Letters(1998), A Century of Arts & Letters ; American Academy of Arts & Letters(2004), Proceedings, 2nd Series.

66) 대한민국예술원(2008),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 책임: 허은영), p 150

두 기관 통합 이후 1993년까지 아카데미의 임원 5명, 예술원의 임원 4명이 해당 기관의 회원시스템을 각각 별도로 관리해 왔으나, 1993년 회원 시스템 단일화 이후 사무국 임원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사무국은 2016년 현재 총 12명으로 아카데미 회장과 8명의 부회장(예술 분과 3명, 문학 분과 3명, 음악 분야 2명), 서기관, 회계담당, 행정담당으로 이루어진다. 사무국 휘하에 13명의 직원(staffs)들이 고용되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2) 청사(부대시설)

아카데미 청사는 Audubon Terrace Historic District의 중앙로를 중심으로 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제3청사와 제1청사(사무국 빌딩) 3층의 갤러리 사이에 유리로 된 연결 통로를 건설하여 청사 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였다. 제1청사에는 사무국, 사무실, 도서관 등이 있으며 제2청사에는 갤러리, 강당이 있고 제3청사에는 아카이브, 도서관,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다.



자료: 미국 예술·문학 아카데미 홈페이지([www.artsandletters.org](http://www.artsandletters.org))

[그림 5-13] 미국 예술·문학 아카데미 전경 및 전시장 모습

## 다. 회원제도

### 1) 선출방식 및 임기

분과회원의 후보자 추천과 총회 비밀투표로 신입회원을 선출하며, 회원 선출은 아카데미 회원만 지명할 수 있다. 아카데미 회원의 임기는 정년이 없는 종신제이며, 결원이 생길 때만 새로운 회원을 지명하고 선출한다.

〈표 5-21〉 회원 분과별 평균 재임기간

(2016. 8)

구분	일반회원	외국 명예 회원	미국 명예 회원
평균 재임기간	16.8년	13.1년	11.7년

자료: 미국 예술·문학 아카데미 홈페이지(www.artsandletters.org)

### 2) 회원의 자격 및 현황

총 250명의 회원을 선출하여 예술, 문학, 음악의 3개의 분과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예술 분과에는 시각 예술가와 건축가가 소속되어 있고, 문학 분과에는 각본가, 시인, 소설가과 비소설가가 소속되어 있으며, 음악 분과에는 작곡가가 소속되어 있다. 1929년부터 외국 명예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983년부터 내부 분과에 속하지 않는 분야에서 업적을 지닌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미국명예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3) 회원 구성

〈표 5-22〉 아카데미 회원 구성 및 현황

(2016. 8)

구분	일반회원 (정원 : 250명)	외국 명예 회원 (정원 : 75명)	미국 명예 회원 (정원 : 10명)
문 학	109명	33명	15명 (분과구분 없음)
예 술	95명	24명	
음 악	45명	13명	
<b>총 인원(현원)</b>	<b>249명</b>	<b>70명</b>	<b>15명</b>

자료: 미국 예술·문학 아카데미 홈페이지(www.artsandletters.org)

회원 구성은 정원은 일반회원 250명, 외국 명예회원은 75명, 미국 명예회원 10명이다. 미술 분과는 회화, 조각 및 비주얼 아트와 건축가 등을 포함하며, 문학 분과는 극작가, 시인, 소설가, 논픽션 작가 등을 포함한다. 음악 분과는 연주가 및 각종 음악 장르의 작곡가 등을 포함한다. 미국 명예회원은 일반회원의 분과 구성에 속하지 못하는 영화, 출판, 발레와 무용, 사진 등 최근 예술 분야로 인식되는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정원은 10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재 15명이 미국 명예회원으로 있다.

유고회원은 일반회원이 1,016명, 외국명예회원이 180명, 미국명예회원이 17명으로 나타났으며, 홈페이지 상에서 유고회원들의 이름을 게시하고 관련 업적을 제공하고 있다.

〈표 5-23〉 아카데미 유고 회원 현황

구분	일반회원	외국 명예 회원	미국 명예 회원
문 학	389명	40명	17명 (분과구분 없음)
미 술	526명	108명	
음 악	101명	32명	
<b>계(현원)</b>	<b>1,016명</b>	<b>180명</b>	<b>17명</b>

자료: 미국 예술·문학 아카데미 홈페이지(www.artsandletters.org)

#### 4) 회원 예우 방식

회원에 대한 특별한 예우는 없으며, 수당 지원 등의 혜택 또한 없다. 회원들은 선거권 및 각종 상의 수상자 선정권을 행사하는 명예와 권위를 가진다.

### 라. 주요 사업

#### 1) 전시 프로그램

아카데미 주최로 1년에 두 차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두 전시회의 관람료는 모두 무료로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 ① 초대 미술전(Invitational Exhibition of Visual Arts)

매 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개최하는 초대 미술전은 현대 미술 작가 30여명 가량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초대되는 작가는 아카데미 주최 시상 수상자이거나 아카데미의 작품 구매 사업 대상자이다.

### ② 신규 회원 및 수상자 작품 전시회

매 해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개최되는 전시로 주로 신규 회원 및 아카데미에서 시상하는 상을 수여한 대상자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미술, 건축 작품, 책, 원본 초고, 작곡가의 자필 악보 등을 전시하고 있다.

## 2) 출판

아카데미의 재원으로 회보, 회원 명부, 아카데미 설립 조항 및 허가서, 아카데미 내규, 아카데미 주최 각종 행사의 연설문, 행사 열람표 등의 출판물을 출간하고 있다. 1988년에는 아카데미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A Century of Arts and Letters〉를 콜럼비아(Columbia) 대학에서 출판했다. 10년 간격으로 아카데미의 역사를 구분하고, 다양한 자료와 회원의 구술을 바탕으로 내용을 엮어 발간되었다.

## 3) 기록물 수집 및 관리사업

회원의 초상화, 사진과 회원 작품인 회화, 조각, 판화, 인쇄물 등을 아카데미 소유로 소장하고 있다. 특히 아카데미 사무국 건물의 사진 전시관에는 1898년도부터 모든 회원의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아카데미 도서관은 회원의 작품이나 회원과 관련된 서적 25,000권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카데미 기록물 보관소에는 과거 회원 관련 사항, 신문 스크랩 자료, 기관에 대한 기록, 음악이나 문학 분과 회원의 자필 악보나 원고 등을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아카데미 소장 자료는 사전 예약자에 한하여 신분이 공적으로 보장된 학자에게 공개하여 연구 기초 자료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

#### 4) 시상 제도

매년마다 아카데미에서는 작곡가, 미술가, 건축가, 작가 등 50명 이상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상금은 상의 종류에 따라 최소 5,000 달러에서 최대 75,000 달러까지 수여된다. 수상자는 아카데미 회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선정되며, 수상 후보자는 반드시 아카데미 회원에 의해 후보로 추천되어야 한다.

시상 제도 중 유일하게 Richard Rogers Awards는 회원의 추천 없이 지원서 제출이 가능한 상이며, 유고회원의 유족에 의한 기부와 회원 본인의 기부로 운영되는 시상제도로는 음악부문의 Marc Blitzstein, The Charles Ives Awards가 있으며, 문학부문의 E. M. Foster Award, Katherine Anne Porter Award 가 있고, 미술부문의 Hassam Purchase Fund, 문학미술부문의 Metcalf Award 등이 있다.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의 기부와 후원에 의해 운영되는 시상제도로는 문학부문의 Benjamin H. Danks Awards, Arthur Rense prize, 재단의 후원 및 기부에 의해 운영되는 시상제도로 음악부문의 Walter Hinrichsen Award, Goddard Lieberon Fellowship, 문학부문의 The Milred and Harold Strauss Living, 문학/미술부문의 Rosenthal Family Foundation Awards 등이 있다.

#### 마. 종합 및 시사점

미국 예술 문학 아카데미가 다른 유사 기관과 가장 큰 차이점과 특징은 시상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상의 종류는 총 27개(비정기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30개 이상)이며, 이들은 기부나 후원에 의한 재원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27개의 시상제도 중 일반 개인, 아카데미 회원, 기타 재단의 기부나

후원에 의해 운영되는 시상제도는 13개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상제도에 후보 선출 및 수상자 선정에 아카데미 회원들이 관여하며, 이러한 시상제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아카데미 회원으로서 큰 영예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아카데미의 특징으로는 전시사업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카데미 운영 시상제도의 수상자 및 신규 회원 작품의 주기적으로 전시하며 미술 작품에 국한되지 않고 작가의 원본 초고, 작곡가의 자필 악보 등 다양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풍부한 자료와 작품을 토대로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작품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카데미는 회원 분과 구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국 명예회원 제도를 신설하였다. 특히 기존 문학, 미술, 음악 분과 외에 예술 장르가 다변화되면서 회원 분과 구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고, 이러한 논의 끝에 사진, 재즈, 출판, 영화 관련 분야를 기존 분과 내로 포함시키지는 못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미국 명예회원’ 제도를 만들어 아카데미 회원으로 포섭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예술 장르 다변화 현실 속에서 아카데미만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타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제2절

## 해외 국가 예술인 예우 사례

## 1. 프랑스의 팡테옹

## 가. 일반 현황

## 1) 설립목적 및 역할

팡테옹은 본래 18세기 루이 15세에 의해 성당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으나, 프랑스 혁명과 정치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비종교적이고 공화주의적인 영예로운 묘지로 기능하게 된 독특한 장소이다. 프랑스의 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의 국가적 기조를 이루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3대 정신을 뒷받침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프랑스 공화국의 민주주의적 지향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67)</sup> 1791년 미라보(Mirabeau, 1749-1791)의 시신이 처음 안치된 이후부터 팡테옹은 지하묘지에 프랑스 사회에 뜻 깊은 기여를 한 인사들이 안치되고 있다.

## 2) 설립근거

1791년 4월 4일 칙령을 기초로 팡테옹은 제헌의회의 결정에 따라 프랑스를 성장시키는데 기여한 위대한 인물들을 안치하는 지하 분묘다.

프랑스 제 1공화국 시기, 팡테옹은 1806년 2월 20일 칙령에 따라 ‘생 제네비에브 성당’으로 명명되고 위인의 매장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예배와 같은 종교적 의식을 하는 장소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1851년 12월 6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칙령에 따라 팡테옹은 카톨릭 종교 예배당이

67) 홍태영(2005),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 제 3공화국과 민주주의의 공고화(1885-1940)」,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3호, pp.59-81

되었고 돔 위에 십자가를 다시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다 제 3공화국 시기가 되어 생 제네비에브 성당의 종교 의식 기능을 규정했던 여러 조항을 폐지하고 1881년 7월 9일 법령의 영향으로 생 제네비에브 성당은 “팡테옹”으로서의 지위를 되찾게 되었다. 이후 1885년 빅토르 위고의 죽음과 팡테옹에서의 장례를 계기로 팡테옹은 종교에서 완전히 분리되었고 그 이후 세속기관으로서 영예로운 묘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인들의 새로운 안치 및 이장 하나하나에 관련된 법령과 세레모니 시행에 대한 법령이 발표되고 있다.

### 3) 기능

팡테옹에 안치되는 인물들은 정치가, 문인, 화가, 과학자 등의 저명한 사람만 아니라 혁명에 참여했던 민중들이나 사병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평범한 프랑스의 시민들 즉, 현재 프랑스 사회 건립에 기여한 무명의 사람들을 대표한다.<sup>68)</sup> 팡테옹은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국민과 국가의 감사를 표하기 위한 묘지로서, 1791년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위대한 위인들에게, 조국의 감사를"이라는 문구가 페디먼트와 코린트식 기둥 사이에 새겨져 현재까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팡테옹은 주로 역대 왕족과 군인들이 안치되는 종교적인 묘지인 생드니 대성당과 대칭되며 프랑스 문화부 산하의 국립 기념물 센터가 관리하는 주요한 국가 기념물 중 하나로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다.

또한 팡테옹은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파리에서도 손꼽는 관광명소인데 프랑스 관광부의 발표에 따르면, 팡테옹의 2015년 방문객 수는 669,331명<sup>69)</sup>으로 파리 내 관광명소 순위 중 25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프랑스 문화관광산업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국내외 방문자들이 방문하는 팡테옹은 문인, 화가, 건축가 등의 여러 예술

68) 창해편집부(2012), 『(지식과 문화예술의 디지털 백과사전)ABC북 맛보기 사전』, 도서출판창해

69) 프랑스 관광부(Ministère du Tourisme), 2016년 8월 23일 발표

가들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잠든 장소로서 프랑스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4) 역사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팡테옹은 고대 로마의 ‘판테온’(The Pantheon) 신전에서 그 이름을 차용한 것으로 오늘날 ‘국가적 영예가 있는 자에게 바쳐지는 건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sup>70)</sup> 팡테옹은 원래 군주제와 카톨릭의 위상을 찬양하기 위해 착공되었으나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서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었다.

1744년 루이 15세가 큰 병을 앓다가 파리의 수호성인인 생 주느비에브에게 기도한 후 쾌차하여 그녀를 기리는 성당을 짓기로 하였으나 왕실 재정 문제로 공사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1791년, 수플로가 죽은 이후 완성되게 되었다. 그 사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혁명 당국은 이 건물을 세속화하여 프랑스 국가 영웅들을 위한 영묘로 삼았다. 1791년 4월 10일 의회는 생 주느비에브 교회는 위대한 인물들의 유해가 안장되는 곳임을 법률로 공식화 하였고, 이후 현재의 팡테옹으로서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팡테옹 전경과 팡테옹 전면 페디먼트 아래 새겨져 있는 문구

“Aux grands hommes la patrie reconnaissante”, David d’Angers en 1837

자료: 구글(<http://google.co.kr/>), 위키피디아(<https://fr.wikipedia.org/>)

[그림 5-14] 팡테옹 전경과 전면부의 글귀

70) 황은승(2006), “팡테옹을 통한 집권세력의 국민 만들기 : 프랑스 혁명기(1789-1799) 위인송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재원 근거

팡테옹은 프랑스의 주요 문화유산으로서 국립기념물센터(CMN: 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 조직에 속해있다. 따라서 CMN의 운영예산을 통해 팡테옹의 연간 활동들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6) 운영예산 현황

CMN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sup>71)</sup>, 2014년도 CMN의 총 예산은 132.2백만 유로였고, CMN의 행정과 조직 운영을 위한 2014년도 실제 지출 예산은 96.8백만 유로로 나타난다.<sup>72)</sup> 이 중에 보조금은 약 13.5백만 유로로 그 중 대부분인 약12.2백만 유로가 프랑스 문화부가 지급한 보조금이고, 보조금 이외에 상품수입 및 서비스 대금이나 비축금액 분과 같은 기타 재정원이 약 80백만 유로로 정부 보조금보다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한다.

팡테옹의 2014년도 총 입장 수입은 약 2.9백만 유로로, 팡테옹과 같이 수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CMN의 기념물들은 그 입장료 수입 역시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료 수익도 재정 구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프랑스 문화재의 보수비용은 정부예산으로 충당해 왔으나, 2012년도 팡테옹의 보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례적으로 국민 모금을 시행하여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나. 조직

### 1) 운영 조직 구성 및 추진체계

팡테옹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이나 장례관련 세레모니 등은 CMN의 5개의 국(Directions)을 통해 이루어지며, 5개의 사업국 이외에도 사무국장 하의 메세나 및 파트너십 관리처에서 모금활동과 전시 및 기념건축물 복원 사업에 핵심적인 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71) 2014년도 초 책정 예산은 99.1백만 유로로 실제 지출 예산인 96.8백만 유로와 비교할 때, 재정 계획의 97.65%를 시행함

72) CMN(2014), "Rapport Annuel 2014", CMN, p.5

또한 각 기념건축물의 티켓판매나 기념품 샵의 직원부터 정원사, 교육담당, 행정직원, 건축물 공사 책임자까지 각 기념물의 관리, 유지, 사업 등을 위한 다양한 인력 역시 CMN의 인력국에서 모집하고 있다. 2014년도 CMN 관련 실 근로자 수는 정규직 424.9명, 계약직 940.9명으로 집계된다<sup>73)</sup>.

## 다. 청사

팡테옹은 국가에 속한 건축물로서 국립기념물센터(CMN: 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의 조직 하에서 관리되고 있다. CMN의 5개의 부서 중 기념건축물에 속한다. 90여개 가까이 되는 기념물은 각자 다른 담당 행정직원 밑에서 관리되는데, 팡테옹의 경우 파리의 개선문과 함께 행정관 파스칼 모네(Pascal MONNET)<sup>74)</sup>에게 속해 있다.

## 라. 주요 사업

### 1) 장례 세레모니 및 위인의 안장

팡테옹은 기본적으로 프랑스 위인들의 영예로운 지하 분묘로서 장례의 식과 고인의 안장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념의식은 대체로 역사적 인물의 위인으로서의 업적을 재인정하고 공표하는 의미에서 그 유해나 흔적을 팡테옹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팡테옹이 영묘역할을 하던 초기, 위인 사후의 역사적 재평가로 인해 안치되었다가 불명예스럽게 퇴출당한 일(혁명가 미라보와 장 폴 마라)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1795년 2월 8일 법령에 따라 입관은 인물의 사후 10년간 프랑스 시민들의 자격 심사 토론 이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sup>75)</sup>. 이를 통해 현재의 프랑스 사회를 만든 인물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공식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프랑스 국민

73) CMN(2014), "Rapport Annuel 2014", CMN, p.5

74) 파스칼 모네는 팡테옹 담당 행정관이자 팡테옹 역사학자임

75) Jean Baptiste Duvergier, Ed Gonjon, Marcel Demonts, Custave Lange, Lucien Bocquet(1834), Collection complète des lois, A. GUYOT, p.26



들에게 자국에 대한 자긍심과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례의식은 또한 방문객에게 특별한 볼거리가 되기도 한다.



자료: SUDOUJEST (<http://www.sudoujest.fr/>), L'OBS (<http://tempsreel.nouvelobs.com/>)

[그림 5-15] 팡테옹에서 이루어진 장례 세레머니 장면

〈표 5-24〉 팡테옹에 안치된 위인 현황

위인 구분	현원
주교	1
병사	1
과학자	6
레지스탕스	5
종교	3
건축가(팡테옹 건축)	1
물리학자	2
화가	1
항해사	1
의학·시·철학	1
군인	10
수학자	3
판사	1
정치가	20
장군	8
금융가	1
문인(및 철학)	6
경제학	1
변호사	2
귀족	2
기타	1
계	77

자료: 위키피디아(<https://fr.wikipedia.org/>)

## 2) 전시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팡테옹에서는 매년 사진, 회화, 동영상을 등을 활용한 전시뿐만 아니라 무용, 음악 등의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에 대중과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팡테옹의 프로그램은 튀니지 출신 프랑스 예술가 JR의 전시 '인사이드 아웃'이다. 대규모의 전시 프로젝트로 인해 팡테옹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프랑스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다.

## 3) 메세나 관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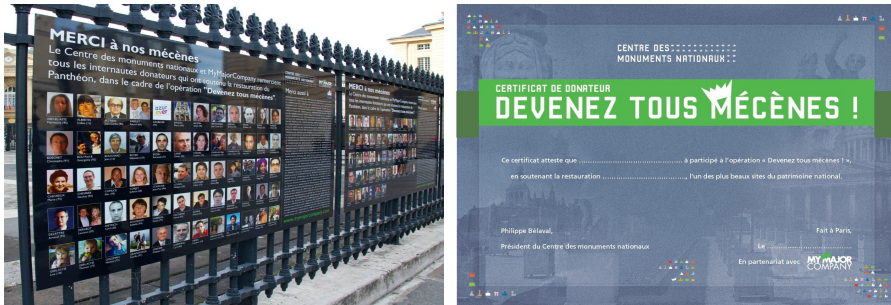
팡테옹의 체계적인 복원을 위하여 2012년도에 처음으로 팡테옹 복원을 위한 모금이 시도되었다. 프랑스 문화부의 주관 하에 CMN이 프랑스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MyMajorCompany'를 통해 진행한 이 사업은 본래 계획했던 5,000유로를 훨씬 넘는 68,565유로를 기부받는데 성공하였으며, 이 모금에는 1,183명의 시민이 참여했다<sup>76)</sup>.

〈표 5-25〉 팡테옹 메세나에 대한 혜택

후원 금액	기부 혜택
1유로 : Compagnon du Panthéon 팡테옹의 이웃	기부자의 페이스북, 트위터에 감사 메시지 전달
5유로: Ami du Panthéon 팡테옹의 친구	팡테옹 앞 기념기둥에 기부자 이름 기재
150유로: Ami bienfaiteur du Panthon 팡테옹의 은인	팡테옹 앞 기념기둥에 기부자 이름과 사진 기재 + 세금 50유로 감면 + 후원 증명서 전달 + 팡테옹 입장권 2매 증정
300유로: Ami mécène du Panthéon 팡테옹의 후원자	팡테옹 앞 기념기둥에 기부자 이름과 사진 기재 + 세금 100유로 감면 + 후원 증명서 전달 + 팡테옹 입장권 2매 증정 + 보수 준공 기념식 초대장 증정

자료: 크라우드산업연구소(2012), 「문화유산 팡테옹을 위해 즐거이 지갑을 여는 시민들」, 크라우드 산업연구소

76) Mymajorcompany(<https://www.mymajorcompany.com/pantheon>)



기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패널(팡테옹 앞 설치)

기부자들에게 수여하는 후원 증명서

자료: MyMajorCompany Facebook(<https://www.facebook.com/mymajorcompany/>)

[그림 5-16] 팡테옹 메세나에 대한 보상

복원공사에 대한 모금사업이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이는 기부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단계적인 보상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팡테옹 앞에 이름을 새긴 기념 기둥을 세워주거나 기부자의 이름과 사진을 기재해주는 것은 기부자들의 메세나 정신에 대한 보상으로써 적절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 마. 종합 및 시사점

팡테옹은 오스트리아 계승전쟁(1740~1748) 중인 1758년에 루이 15세의 서원에 따라 자크 제르맹 수플로가 생트 즈느비에브산 위에 착공하여 세워진 교회로서 현재도 성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인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기 위한 영묘로서의 역할 역시 담당하고 있다.

특히 팡테옹은 사회와 문화에 기여한 위인에게 영예를 부여하고 그들을 기림으로써 대중에게 국가와 국가의 사회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팡테옹에서 정치가나 군인뿐만 아니라 문인, 철학자, 과학자, 예술가, 건축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을 넘나드는 인물들을 사회의 기틀을 세운 위인으로 공식적으로 추대하는 것은 프랑스 사회에서 문화예술의 지위를 그 어느 영역 못지않게 중요히 여긴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팡테옹을 통해 프랑스의 유구한 문화 예술에 대해 후손에게 대대로 교육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면서 세계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위인의 묘를 찾아 참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광 효과도 누리고 있다.

## 2.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시인의 공간

### 가. 일반현황

#### 1) 개요

시인의 공간(Poets' Corner)이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에드워드 참회왕에 의해 1040년대에 착공, 건립되었다. 이 사원은 1560년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 교구 소속이 아닌 왕실 특수교회로 공인되었다. 이후 웨스트민스터는 결혼식, 장례식 등 왕실의 행사가 진행되는 성당이며 모든 왕들의 대관식이 이곳에서 실시된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전경



시인의 공간(Poet's Corner) 전경

자료: 웨스트민스터 사원 홈페이지(<http://www.westminster-abbey.org/home>)

[그림 5-17]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시인의 공간 전경

또한 역대 왕들뿐 아니라 올리버 크롬웰, 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등 유명한 정치인, 학자들이 안장되어 있다. 특히 시인의 공간은 영국을 대표

하는 문인과 예술인의 무덤과 기념비가 모여 있는 곳으로 유명하며 이곳에 위치한 제프리 초서, 찰스 디킨스, 조지 프레데릭 헨델, 제인 오스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묘지와 기념비를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 2) 역사

시인의 공간은 계획 하에 조성된 것은 아니며, 영국의 유명한 작가 제프리 초서(1343-1400)의 무덤이 시초가 되어 조성되었다. 제프리 초서가 켄터베리의 이야기를 쓴 문인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당시 그는 웨스트민스터의 건물보수 담당자로 일한 공을 인정받아 안장되었다.

그로부터 150년 후 영국문학이 가장 번성하던 시기인 16세기에 초서의 무덤이 재조명 받게 되고 니콜라스 브링함<sup>77)</sup>에 의해 현재위치인 남쪽 회랑으로 옮겨져 더 화려한 대리석 무덤으로 다시 조성되었다. 이후 1599년 페어리 여왕의 작가이자 초서의 추종자인 에드몬드 스펜서<sup>78)</sup>의 무덤이 초서의 무덤 근처에 위치하게 되며 시인의 공간의 전통이 생기게 되었다. 두 무덤이 조성된 이후 남쪽 회랑을 중심으로 수많은 시인과 극작가의 무덤과 기념비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시인의 공간이라는 명칭은 1733년 ‘웨스트민스터의 시인의 공간 아래서’라는 시가 널리 알려지면서부터 얻게 되었다. 또한 문인 뿐 만아니라 예술적 업적을 받아 시인의 공간에 안장되거나 기념비를 설립하며 추모하고 있다.

77) 니콜라스 브링함(Nicholas Bringham, ~1558), 그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으나 학자이자 골동품 수집가로 기록되어있다. 글을 쓰기도 하였으나 작가로의 삶을 포기하고 법정 집행관으로 근무하였다. 그가 몇 편의 회고록 및 시를 썼다는 기록을 있으나 작품은 소실되었으며 그가 쓴 글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제프리초서의 무덤에 적힌 글이 전부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Nicholas\\_Brigham](https://en.wikipedia.org/wiki/Nicholas_Brigham))

78) 에드먼드 스펜서(Edmund Spenser, 1552-1599),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영국의 시인. 대표적인 작품은 페어리 여왕(the Faerie Queene, 1590)이 있다.

### 3) 예술인에 대한 존중과 예우

웨스트민스터 사원 내의 묘비와 기념비를 세워 추모하는 문화는 예술인에 대한 영국인들의 존경심을 잘 반영한 사례로 문화 예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인들을 기념하는 만큼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영국 사회가 예술과 문학에 역사가 깊고 관심이 높은 만큼 작가별로 작가와 작품을 둘러싼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 되어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작가 사후에도 작가를 추모하는 활동이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언론 홍보 활동도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근거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청구를 하게 된다.

## 나. 선정 시기

### 1) 사망 직후

동시대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며 도덕적으로도 그 훌륭함을 인정 받은 문인의 경우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 장례식을 치루고 안장된다. 문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를 수렴하여 유가족 또는 문인과 가까운 지인이 웨스트민스터의 주임사제에게 청원을 하고 난 뒤, 최종결정자인 주임사제 승낙이 떨어지면 웨스트민스터에 시신이 안장된다.

#### 관련사례-찰스 디킨스, Charlse Dickens(1812-1870)

-분야: 소설가/시인 /-입관일: 1870.6.14.

찰스 디킨스는 로체스트 인근의 작은 마을인 가즈힐플레이스(Gad's Hill Place)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당시 그는 로체스트 성당에 안장될 계획이었으나 타임즈(The Times newspaper)를 중심으로 한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여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게 된다. 찰스디킨스는 작가로서 문학적 훌륭함과 더불어 노예무역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당시 여론은 '역사에 길이 남을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장례식이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존 포스터(John Forster)와 찰스 디킨스의 이들에 의해 웨스트민스터의 주임사제에게 전달되었다. 웨스트민스터의 주임사제는 즉시 이를 승낙하였고 장례식은 찰스 디킨스의 유언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12명의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참석한 채 장례식이 진행되었고 '묘비에 평범한 글씨체로 이름만 새겨 달라'는 그의 유언에 따라 묘비명 없이 이름과 날짜만이 새겨졌다.



자료: Westminster Abbey 홈페이지(<http://www.westminster-abbey.org/>)

[그림 5-18 찰스 디킨스의 묘비

## 2) 사후 일정기간 이후

사원에 안장되거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사망 직후에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며, 동시대에 문학적 우수성을 인정받더라도 종교적, 윤리적, 사회적 이슈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고 동시대에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후대에 위대한 문인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기념비가 세워지기도 한다. 이밖에도 유족들 또는 지인들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시인의 공간이 형성된 시점과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로 웨스트민스터로 입성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경우, 사후 124년이 지난 뒤 기념비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 라. 종합 및 시사점

웨스트민스터 사원내의 시인의 공간은 예술인에 대한 영국인들의 존경심을 잘 반영한 사례로, 묘비와 기념비를 세워 길이 추모하고자 하는 염원을 잘 보여준다. 예배를 위한 사원으로서의 목적을 지금까지도 잘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인들을 기념하는 시인의 공간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고 방문하는 관광지로, 국내외적으로 영국 문화의 우수성을 드높이고 있다.

하지만 장례식 및 안장, 기념비 설립 등의 모든 절차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주임사제에게 결정권이 있으므로, 공식적인 심사와 절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안치 시 마다 각 사람, 상황마다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은 종교 단체에서 추모할 예술인을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종교적 한계가 있으며, 윤리적으로 논란이 있는 예술인은 선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시인의 공간으로의 안장 여부만으로는 작가의 훌륭함을 평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3. 독일 발할라(Walhalla) 명예의 전당

#### 가. 일반현황

발할라는 독일의 가장 유명한 국가기념관 중 하나이며 통상 세계관광지 Top 100이내에 선정되는 곳으로,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州) 레겐스부르크시(市) 소재로, 다뉴브 강 동쪽 연안의 언덕에 있는 신전이다. 이곳은 독일을 대표하고 독일의 역사를 빛낸 문인, 예술가, 작곡가, 학자, 정치인, 과학자 등 현재 총 195명이 기념되고 있는 ‘명예의 전당’이다. 1807년 바이에른 왕국의 황태자였던 루트비히 1세가 새로운 아테네 건설을 모토로 파르테논 신전을 모방하여 구상하였고 건축가 레오 폰 클렌체가 1830년부터 1842년까지 약 13년 동안 건설했다.



[그림 5-19] 레겐스부르크 시 발할라(Walhalla)전당 전경



길이 413피트, 폭 165 피트, 높이 66피트, 52개 도리아양식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sup>79)</sup> Walhalla(발할라)는 게르만의 신화에 따르면 불멸의 이상향을 그린 ‘사자(死者)의 전당’(Halle der Toten)을 의미한다.

이곳에는 신분과 성별의 관계없이 과거 2000년의 유럽 역사에 걸쳐 게르만민족 역사상 가장 유명한 195명의 인물들을 모셨다. 현재 발할라 내부에는 직업군으로 구분하자면 옛 성군(聖君)으로부터 문인, 작곡가, 성직자, 예술가, 과학자들의 흉상, 전신상과 명판이 전시되어 있다. 파르테논처럼 발할라도 외부에 한 줄로 된 도리아식 기둥만을 세우고, 내부에는 크고 기둥이 없는 공간을 배치했다. 여기에는 유명하고 존경받는 이들의 흉상들이 가볍게 장식한 벽을 따라 전시되어 있고, 커다란 천장을 통해 빛이 투영된다.

〈표 5-26〉 발할라전당에 안치된 주요인물

주요 인물	
문인	괴테(J.W.von Goethe), 실러(F.Schiller), 하이네(H.Heine), 레싱(Lessing), 빌란트(Wieland), 장파울(J.Paul), 괴레스(Görres)
작곡가	바흐(J.S.Bach), 헨델(G.F.Händel), 하이든(J.Haydn), 모차르트(W.A.Mozart), 슈베르트(F.Schubert), 베토벤(L.van Beethoven), 바그너(R.Wagner), 브람스(J.Brahms)
학자	아인슈타인(A.Einstein), 칸트(Kant), 멘델(G.Mendel), 린트겐(Röntgen), 코페르니쿠스(N.Kopernikus), 케플러(J. Kepler)
정치가	비스마르크(O.von Bismarck),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얀(F.L.Jahn), 몰트케(H.G.von Moltke)
성군(聖君)	프리드리히 대왕(Friedrich II), 마리아 테레지아(M.Theresia), 빌헬름 1세(Wilhelm I), 막시밀리안 1세(Maximilian I)
사회 혁명가 외	마틴루터(M.Luther), 구텐베르크(J.Gutenberg), 슐(S.Scholl)

\* 성별의 차이가 없다 하나, 독일의 역사를 빛낸 위인들 195명 중 여성은 불과 12명으로, 6%의 비율만을 보인다.

79) John Dornberg(1988), "Two Temples to the Greats of Germany", The New York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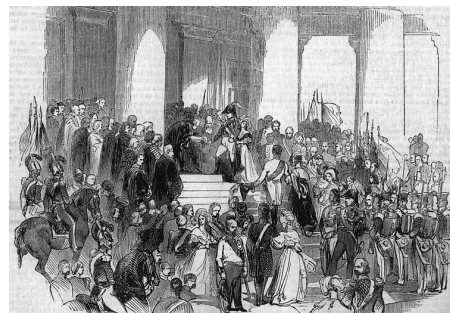
## 나. 사업취지

발할라 신전은 위대한 독일민족의 전당이다. 독일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일 위인들의 흉상을 안치해 놓았으며, 설립근거는 역사적 배경에 기원한다.

1806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프랑스군의 침공으로 신성로마제국은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황제 프란츠 2세는 오스트리아의 황제로 물러났으며, 라인강과 북해에 따라 독일 지역에는 라인 동맹이 결성되기도 하였다.<sup>80)</sup> 바이에른 왕국의 황태자 루드비히 1세는 독일민족의 위대성과 독일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품고 있었고, 유명한 위인들의 흉상을 조각했다.<sup>81)</sup> 1807년에 처음으로 요한 고트프리트 샤도우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흉상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루드비히 1세가 한 구상을 기초로 건축가 레오 폰 클렌체(Leo von Klenze)는 1830년부터 13년에 걸쳐 전당을 건설했다.<sup>82)</sup> 기념되고 있는 인물 중 가장 오래된 사람은 기원 후 9년 로마군을 상대로 토이토부르크 숲 전투에서 승리하여 게르만의 민족적 영웅으로 추앙된 아르미니우스(Arminius)이다. 발할라 신전은 독일의 유명 인사에 대해 65개의 명판과 130명의 흉상을 거두고 있으며, 2천년 독일의 역사를 망라하고 있다.



[그림 5-20] 설립자 바이에른 루드비히 1세 전신상



[그림 5-21] 1842년 발할라 전당 개회식

80) <https://de.wikipedia.org/wiki/Walhalla>

81) Bayerische Schloßserverwaltung(2016), *Walhalla-Donaustauf bei Regensburg*, p.2.

82) <https://de.wikipedia.org/wiki/Walhalla>

바이에른의 루트비히 1세는 건설비로 4백만 굴덴(Gulden)을 내었다. 루트비히 1세가 1825년에 대관식을 했을 때에는 60명의 흉상이 이미 완성되었다. 그는 1842년 발할라 전당의 개회식에서 주춧돌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새겨 넣었다.

“발할라 전당이 독일의 정신을 강건하고 중흥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모든 독일인들이 어떤 혈통이든 통일된 조국을 갖기를 바라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길 원한다(...)”<sup>83)</sup>

찢겨진 조국의 치욕을 극복하고 독일민족성과 조국애를 호소하면서 그는 위대한 독일인들의 기념전당인 발할라를 세웠다.

#### 다. 헌정심사

1842년 10월 18일 발할라 전당은 준공 시점에서 96명의 흉상과 64명의 명판을 담았다. 해당인물에 대한 초상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명판이 제작되었다.

이 전당에 들어오는 위인들의 선정기준은 독일어로 말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게르만족의 오랜 분열로 인해 해당 인물들의 국적은 관여치 않는다. 독일인 기준은 폭넓은 게르만족으로 과거 고트족, 란고바루드인, 앵글로색슨, 네덜란드, 스위스 계 독일인 등도 포함되어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 활약한 인물도 포함되어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국적기준으로 보면 ‘칼 대제(Karl der Große)’는 프랑스와의 공통조상이며,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국적, ‘발렌슈타인(Wallenstein)’은 체코,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스트리아, ‘헨델’은 영국, ‘칼 10세’는 스웨덴, ‘카타리나’는 러시아, ‘에라스무스’는 네델란드, ‘니클라우스(Niklaus)’는 스위스 국적이다. 사실 독일은 1871년에 비로소 비스마르크 재상에 의해 처음으로 통일된 독일 제국이 성립된다. 독일어를

83) Simone Steger(2011), *Die Bildnis sten der Walhalla bei Donaustauf, Von der Konzeption durch Ludwig I. von Bayern zur Ausföhrung(1807–1842)*, München, p.18.

모국어로 사용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스위스, 발트 출신이나 그 나라에서 활약한 사람도 전당의 일원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그림 5-22] 발할라 전당 내부

1853년 뮌헨에 바이에른 사람 전용의 전당인 루메스하레가 건설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4년에 파괴되었으나 재건되지 않았다. 여기에 모셔진 9명은 나중에 발할라 전당에 안치되었다. 명판은 자료에 인물 초상이나 외관에 대한 설명이 없는 대상자에 대해 제작되었다. 시대적으로는 기원전 17년생 ‘아르미니우스(Arminius)’에서 1542년에 사망한 시계 장인 ‘페터 헨라인(Peter Henlein)’까지이다. 2003년 나치 독일에 저항한 다수의 저항자들에 대해서도 명판으로 제작되어서 추가되었다.

발할라에는 오늘날에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독일의 위인들이 추가되고 있다. 현재 전당에 인물의 현액과 관련한 추가 결정은 바이에른 주(州) 정부가 결정한다. 누구나 추천될 수 있지만, 1912년 규칙에 따라 사후 20년이 지나야 현액될 수 있다. 이후 31명의 흉상이 추가되었으며, 추가되는 간격은 통상 5~7년 정도이다. 추가로 현액된 인물에 대해서는 바이에른 주(州) 내각 각료회의에 의해 선정된다. ‘바이에른 학술원’이 관련 인물들에 대해 제안을 하거나 논의에 깊이 관여한다. 최근 가우쓰(C.F.Gauß/ 2007)와 슈타인(E.Stein/ 2009) 그리고 하이네(H.Heine/ 2010)가 현정되었다.

## 라. 관련기관 및 예산운영

발할라는 바이에른 주정부 내 ‘바이에른 궁궐관리부’에 소속되어 행정 조직이 운영된다. 2015년까지 바이에른 궁궐관리부는 주정부 내각에서 ‘교육과 문화, 학술과 예술성(省)’에 편입되어 운영되었다. 2016년부터 바이에른 주정부 내 ‘재정, 지역발전 및 고향성(省)’에 소속되어 관리되고 있다.

〈표 5-27〉 발할라 전당 조직도

수뇌부(Präsidium)				
기획부서 (Präsidial abteilung)	박물관 부서 (Museums abteilung)	건설부서 (Bau- abteilung)	정원부서 (Gärten- abteilung)	복원부서 (Restaurierungs- zentrum)

바이에른 전체 주(州)에는 연간 5백만이 방문하고 6천1백만 유로의 수입이 기록된다. 발할라전당에는 매년 12만 7천명 방문객이 찾아온다고 기록되었다. 바이에른 궁궐관리부와 관련하여 재정관련 예산수입은 23,400,000 유로이며, 출판 수입 632,400 유로가 있고 그 외 기타수익을 합쳐서 2천5백3십만 유로가 수입으로 기록되었다.<sup>84)</sup> 주요부처간 업무이전에 나타난 관련 자료에 따르면<sup>85)</sup> 발할라 전당 전담비용은 연간 1백3십4만 유로로 추정된다. 발할라 전당의 건설비, 수선, 수리, 정비비용으로 2003~2010년 1천3백3십만 유로가 투입되었고 보존비용으로 쓰였다.<sup>86)</sup> 2017년 관련 비용으로 3만3천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84) Freistaat Bayern(2016), *Haushaltsplan 2015/2016*, Einzelplan 06 für den Geschäftsbereich des Bayerischen Staatsministerium der Finanzen, für Landesentwicklung und Heimat, p.112-115.

85) Freistaat Bayern(2016), *Nachtragshaushaltsplan 2016*, p.277.

86) Freistaat Bayern(2016), *Nachtragshaushaltsplan 2016*, pp.620-621.

## 제3절

##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1.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 시사점

국내외 유사 기관 사례를 통해 각 기관들이 자국의 문화예술 전통 보존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흥 사업을 집행하고, 탁월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예우 및 국민 대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현대 예술의 장르, 매체, 예술 문화에 대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역할 모색은 현대인들의 예술 향유에 대한 저변이 넓어질수록 더 강하게 추구될 것으로 보인다.

## 가. 설립목적 및 운영 방식

대한민국예술원과 가장 비슷한 미션 및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대한민국학술원 및 일본예술원으로 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기관으로서 재원도 국가에서 충당된다. 또한 기관의 주 역할은 원로 예술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수당 지급과 수상제도를 통한 원로 예술인들의 명예 존중을 위한 지원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기관이 전개하는 사업의 성격도 원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예술인들이 사회 공헌에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은 민간 설립(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며, 재원도 기부금과 운영수익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예술계 원로들이 여러 사업에 참여하여 예술진흥을 장려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진 예술인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예술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며, 회원이 되는 순간 기관과 국가를 위한 기여를 하는 것이 당연시 된다.

## 나. 회원제도 및 예우 방식

회원의 선출과 관련해서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모든 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현저한 공헌을 이룬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자격의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회원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기관마다 정회원의 권익을 유지하면서 기관 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여러 가지 회원 자격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일본예술원의 경우는 자국민만 회원이 될 수 있으나 독일의 경우에는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정회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프랑스, 미국의 경우 명예회원, 외국인명예회원 등의 제도를 통해 공적이 큰 외국인들을 회원으로 선출하여 자국과의 문화예술 교류와 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회원 선출 제도의 경우 중국예술원, 독일예술원은 자체 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 과정을 통해 회원을 선출하고 대한민국학술원을 포함한 나머지 기관에서는 회원들의 추천과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개는 회원 선출에 관련하여 후보자 추천과 선출 절차에 정회원들의 역할과 결정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 선출 과정에 있어 외부인사는 심사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기관 내부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회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회원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학술원과 일본예술원은 회원 결정권이 각 분과별로 주어지고 총회는 그것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취한다. 프랑스, 미국, 독일은 각 분과, 회원에게서 추천을 받아 회원이 모인 총회에서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하기 때문에 회원 결정권이 총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회원의 예우 방식으로는 정액 수당과 정액수당 외의 지원(회의비, 여비, 장례식 주최)사항이 있었으며, 대한민국학술원과 일본예술원, 중국

예술원 등 동양권의 기관에서는 모두 정액 수당과 정액수당외의 지원 사항이 존재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생활비, 의료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과 미국의 기관들은 정액수당의 지급을 하는 기관은 없었다. 대신 예복, 회의비, 인증서 등의 명예를 강조한 정액 수당 외의 지원이 많았으며 금전적인 지원은 교통비, 회의비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예술원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예술가에 대한 복지 사항이 뛰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우대하는 예우 방식은 없었으며, 미국 예술 문학 아카데미의 경우도 지원 사항은 없었다. 미국의 경우 오히려 일정의 회원 회비를 걷어 기관 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주요 역할 및 추진 사업

대한민국학술원과 일본예술원의 주요 기능은 회원 예우 및 예술에 관한 자문 활동이며, 이에 따라 주요 사업도 회원 수당 지급, 회원에 대한 기록물 제작, 소장 작품 혹은 연구지원, 학술원 상과 예술원 상 시상 등 회원의 예우 차원의 사업들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아카데미 보자르의 주요 기능은 전통을 이어 받아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미래 인재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아카데미의 주요 사업은 예술가들에게 체류기회와 경제적 지원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예술 창작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정부와 협회 등 자문이 필요한 곳에 정책 자문과 컨설팅 역할을 도맡고 있다. 또한 여러 아카데미 내에서 여러 미술관을 운영하며 높은 수준의 예술 작품을 국민과 관광객에게 소개하여 국격을 높이고,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높이고 있다.

독일예술원의 주요 기능은 예술 진흥을 통한 국가의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특히 국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독일예술원의 경우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젊은 예술원’이라는 기구를 설립하여 젊은 예술가들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를 주고,



원로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 및 예술 작품 등을 수집하고 아카이빙 하여 예술 연구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영국왕립 아카데미의 주요 기능은 교육 사업으로 아카데미의 회원들이 직접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젊은 예술가들에게 지식 전달을 하고 더 많은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계를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오픈 엔트리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인 미술행사인 여름전시회를 개최하여 미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미국 예술·문학아카데미의 시상제도는 아카데미의 가장 주요한 기능으로 해마다 27개가 넘는 종류의 시상제도를 통해 미술가, 작곡가, 건축가, 작가 등 50명이 넘는 예술가들에게 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상제도는 일반 개인, 아카데미의 회원, 기타 재단의 기부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전시사업을 활성화 하여, 작품에 한정하지 않고 원본 초고, 작곡가의 자필 악보 등 다양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전시품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다.

〈표 5-28〉 국내 외 문화예술기관 비교

구분	국내		국외						
	대한민국예술원	대한민국학술원	일본예술원	중국예술원	프랑스 아카데미 보자르	영국왕립미술 아카데미	독일예술원	미국 예술·문학 아카데미	
설립년도	- 1954년	- 1954년	- 1947년	- 1978년	- 1795년	- 1768년	- 2005년	- 1838년	
설립형태	- 국가기관	- 국가기관	- 국가기관	- 정부등록단체 - (민간)	- 법인	- 비영리단체	- 국가법인	- 비영리재단법인	
회원	선출방식	- 회원 총회를 통한 선거로 회원 선출	- 회원 총회를 통한 선거로 회원선출	- 회원 총회를 통한 선거로 회원선출	- 이사회와 임직원 회의를 통한 선출	- 회원 총회를 통한 선거로 회원 선출	- 회원 총회를 통한 선거로 회원 선출	- 회원 총회의 동의	- 회원 총회를 통한 선거로 회원 선출
	회원구분	- ① 정회원	- ① 회원 - ② 명예회원 (외국인)	- ① 회원	- ① 회원	- ① 정회원 - ② 준회원 - ③ 통신회원(외국인)	- ① 회원 - ② 상급회원 - ③ 명예회원(외국인)	- ① 정회원 - ② 명예회원(외국인)	- ① 회원 - ② 외국인명예회원 (외국인) - ③ 미국명예회원 (문과 이외의 예술분야)
	회원정원 (정회원 외)	- 100명	- 150명(20명)	- 120명	- 제한없음(현원 4,652명)	- 59명(16명이상)	- 80명	- 500명(제한없음)	- 250명(85명)
	회원임기	- 4년(연임가능)	- 종신제	- 종신제	- 종신제	- 종신제	- 선출 사부터 ~75세까지 정회원 이후 상급회원 전 환(종신)	- 종신제	- 종신제
	예우방식	- 정액 수당 지급 - 활동비 회의참가비 등의 정액수당 외 지원	- 정액 수당 지급 - 활동비 회의참가비 등의 정액수당 외 지원	- 정액 수당 지급 - 시랑시 조의금	- 지원사항 없음	- 각종 위원회 위원 임명 - 특별수당(교통비) - 회원제복 - 공식 장례절차 진행	- 활동비 인종서 전사지격 및 강의 기회	- 지원사항 없음	- 지원사항 없음
	역할	- 정책자문에 참여 - 예술진흥 사업 참여	- 정책자문에 참여 - 예술진흥사업 참여	- 예술가 우대 - 예술진흥사업 참여	- 예술인들과의 교류 및 사업 참여	- 문화유산 작품 보존 및 홍보 - 정부, 관련분야 협회에 정책자문 - 예술교육의 질 향상 기여 - 국외 예술단체와 협력	- 왕립미술 아카데미에서 강의 - 전시 참여	- 국가문화유산 보존 - 문화예술분야 국가 자문	- 예술가들의 지원 - 기념할만한 개인의 작품 활동 - 문학작품의 전통 보존
재원근거	- 국가예산(37억)	- 국가예산(62억)	- 국가예산(34억원)	- 회비와 기관 수익	- 미술관 운영수입과 기부금	- 기관수익(연간 약 39,6백만아파운드)과 기부금	- 국가예산 및 후원 기금	- 기부금과 회원회비	
추진사업	- 대한민국예술원상 - 예술진흥사업 추진	- 대한민국학술원상 - 연구지원 사업 - 연구 서적 발간	- 일본예술원상 - 아린이 대상 아카데미 교육 사업	- 신문사와 잡지사 운영 - 도서발간 사업	- 경연 및 시상제도 - 예술교육 - 아카데미 보자르 주최로 회원 장례 추진	- 아카데미 운영으로 교육 활성화 - 세계적인 미술 전시 유치	- 전시회, 강연회, 낭독회 - 예술가 참여 토론회 등 유치 - 각종 시상제도 운영	- 시상제도 및 예술가 지원 - 신위원회 및 수상자 작품 전시	
현대적 역할 및 기관의 위상	- 회원 예우 및 자원을 위한 기관 운영	- 회원 예우 및 자원을 위한 기관 운영	- 회원 예우 및 자원을 위한 기관 운영	- 민간 등록단체이나 특별한 활동은 아직 미비함	- 예술인 명예와 관련한 정신편 예우에 중점을 두며 실질적으로 정책자문의 역할을 함	- 예술진흥을 위해 회원들의 국가 자문에 참여 - 국가문화유산 보존	- 젊은 예술원 운영으로 세대 교류 추진 - 국제적 예술교류 확대를 위해 활동 지원	- 다양한 시상제도(안7개)를 통한 예술가 자원을 점차 확대	

## 2. 국외 예술인 예우 장례 시스템 시사점

프랑스 팡테옹, 영국의 시인의 공간, 독일의 발할라 명예의 전당은 모두 국가의 가장 저명한 유명 인사들의 영묘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로 예술인에게는 최고의 영예이며,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발할라 명예의 전당은 국가 기념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팡테옹과 시인의 공간의 경우 예배당으로 사용되었으나 팡테옹은 영묘로 역할이 변경되었고, 시인의 공간은 현재 대관식이 열리는 예배당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영묘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세 공간 모두 국가의 문화와 예술 발전에 공헌한 인물들의 묘가 안장되어 있지만, 현재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의 명소로 더 유명하다. 팡테옹은 파리에서 손꼽히는 관광명소로 파리 내에서 25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공간이며, 발할라 명예의 전당은 세계관광지 Top100 안에 선정된 곳이다. 특히 팡테옹의 경우 최근 2015년에도 장례 세레모니가 열려 프랑스 전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여성 위인이 마리 퀴리 이후로 2명이<sup>87)</sup> 추가되어 더 주목을 받았다.

또한 시인의 공간이 위치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경우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장소이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어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장소이며, 박물관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에도 놀라운 결과를 내고 있다.

세 공간 모두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위인들이 안장되는 공간을 만들어 자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며, 국가 위상의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저명 인사들의 예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홍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87) 제르멘 툴리온(1907~2008), 주느베이브 드골 안토니오스(1920~2002)

〈표 5-29〉 해외 예술인 예우 장례 시스템 비교

구분	프랑스 팡테옹 (Pantheon)	영국 시인의 공간 (Poet's corner)	독일 발할라 명예의 전당 (Walhalla)
설립 시기	- 1781년	- 1269년	- 1842년
설립 형태	- 성당으로 설립되어 현재는 영묘로 활용	- 예배당 및 박물관	- 기념관
운영 기관	- 국가(국립기념물센터)	- 국가(국가 소속 교회)	- 국가(바이에른 주 소속)
재원 근거	- 국가 예산 및 입장수익	- 국가 예산 및 박물관 수익	- 국가 예산 및 입장수익
안치 대상	- 정치가, 예술인, 과학자, 혁명 참여자(민중, 사병 등으로 혁명 참여한 시민을 대표)	- 역대 영국의 왕, 정치가, 예술가, 기사	- 독일을 대표하는 문인, 예술가, 작곡가, 학자, 정치인, 과학자 등
안치 방법	- 안장	- 묘 (안장) - 기념비 (안장X)	- 흉상 - 명판
주요 위인	- 마리 퀴리, 빅토르 위고, 루이 파스퇴르, 알렉산더 뒤마, 볼테르 등	- 아이작 뉴턴, 찰스다윈, 조지 프레데릭 헨델, 제인오스틴, 찰스 디킨스, 알프레드 셰익스피어	- 괴테, 샬러 바흐, 헨델, 아이슈타인, 칸트, 비스마르크, 마틴 루터, 프리드리히 대왕 등 198명
주요 특징	- 초기 종교 기관 '생 제네비에브 성당'으로 사용, 1881년 종교와 분리되어 세속기관으로 묘지 역할 수행 - 파리에서 손꼽히는 관광명소 (파리 내 순위 52위) - 메세나 사업을 통해 일반인들의 기부 참여	- 영국 왕들(40명)의 대관식이 이뤄지는 유서 깊은 장소 - 198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 -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중 하나로 뽑힘	- 묘, 기념비와 달리 흉상을 제작하여 전시함 - 사후 20년이 지나야 헌액될 수 있음 - 독일 바이에른 주 각료회의에서 선정
추진 사업	- 장례 세레머니 - 위인 안장 - 전시 문화 프로그램(사진, 회화, 동영상 활용)	- 대관식 - 위인 안장 - 웨스트민스터 스쿨 운영 - 웨스트민스터 뮤지엄(박물관 / 왕실 유물 보유) 운영	- 박물관 운영 - 위인 흉상 전시
위상 및 역할	- 국가의 저명 인사를 안치하여 국가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함 - 프랑스 위인들의 안치 장소로 국가 최고의 영예의 공간	- 주로 문인들이 안치되어 있으나 이외에 저명인사들도 함께 안치됨 - 영국 왕실의 대관식과 위인들의 안식 장소로 국가 최고 영예의 공간 - 박물관 운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명소	- 국가를 빛낸 저명 인사들을 통해 독일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함 - 독일 위인들의 안치 장소로 최고의 영예 공간 - 위인들의 흉상 전시로 관광명소의 역할도 함

제6장 ●●

## 대한민국예술원 인식 및 의견조사





## 제1절

## 조사개요

## 1. 조사 목적과 필요성

대한민국예술원의 현황 및 연관된 국내외 사례 등에 관한 문헌조사만으로는 객관적 판단은 가능하지만, 예술원에 대한 예술계와 국민들의 인지도와 만족도 그리고 현재의 수요 등을 포함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술원에 대한 인식, 만족도, 성과 및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예술원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예술원 내부와 외부의 의견을 골고루 담을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술원 소속의 내부 회원과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및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의 범위는 예술원 내부인식 조사를 위해 예술원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외부 인식 조사를 위해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로 그 범위를 구체화 하였다. 예술원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회원들의 응답을 통해 개선된 의견을 중심으로 예술원의 현재 운영 상황을 검토하고, 내부자의 시선에서 향후 해결되어야 하는 선결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회원들의 인식과 의견을 종합하여 수렴한 뒤 정량적 분석방법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근거로 삼았다.

또한 예술원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의 예술원에 대한 객관적 인식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의 예술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등

운영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예술원의 중장기 정책 및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근거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 2. 설문조사 개요

〈표 6-1〉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인식조사 개요

구 분	예술원 내부 인식조사	예술원 외부 인식조사
조사대상	예술원 회원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조사대상	89명(27명 응답)	50명(17명 응답)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예술원 회원대상 배포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 진행
조사내용	예술원 회원 기본 정보, 예술원 회원 만족도, 예술원 미션 및 기능 수행에 대한 인식,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참여 동기 및 경로, 기대 및 만족도, 효과성, 인문학 사업 향후 참여의향, 정책수요 등 사전 설문지 및 사후 설문지 2종(기본 프로그램)
목표 유효표본	예술원 회원 전체(89명)	전문가 집단 전체
조사기간	2016. 9. 26 ~ 10. 24	2016. 10. 17 ~ 10. 31

## 3. 설문조사 내용 및 조사표

〈표 6-2〉 예술원 회원 대상 만족도 및 활동인지도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 지표	지표별 내용	문항 수	지표 내용별 의미
A. 발전 가능성 (필요도)	1. 예술원의 미션	기능 인식수준	5	회원의 미션에 대한 기능수행 인지 정도 파악
		미션 달성도	1	예술원 사업의 미션 달성 여부 파악
	2 사업 중요도	사업 평가	1	추진 사업별 중요도 파악
	3. 예술원의 정책 및 사업 운영 평가	적절성	1	예술원 사업이 미션에 적절한지 파악
		전달력	1	예술원 사업의 외부 전달력 파악
		효과성	1	예술원 사업의 내외적 효과성 파악
		관리·운영	1	전문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
		예산 지원	1	예술원 운영에 맞는 예산 지원인지 파악
	지속가능성	1	사업 및 정책의 지속 가능 파악	



평가항목	평가 지표	지표별 내용	문항 수	지표 내용별 의미
	4.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발전방향	2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선결과제 파악 발전을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정부 지원 파악
		의견수렴	1	발전을 위한 의견 및 건의사항 파악
B. 회원제도 만족도	1. 회원제도 만족도	회원 구성	1	현재 정원 수에 대한 의견 파악
			1	회원제도(정회원)에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의견 파악
		회원 선출제도	1	회원선출 제도에 대한 평가 및 의견
		회원 연임제도	1	회원 연임 제도에 대한 만족 및 의견 파악
	2. 회원 예우 및 지원 만족도	예우 및 지원	2	국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에 대한 만족도
				예술원 회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
3. 분과 구성	분과 구성	2	4개 분과에 대한 만족도 및 분과 구성에 개선에 대한 의견 파악	
			추가적으로 필요한 분과에 대한 의견 파악	
C. 역할 인식 정도	1. 회원의 역할과 의무	책임감	3	예술진흥과 발전에 대한 책임감 파악
				자부심과 긍지 등을 느끼는 정도 파악
				예술원 회원 활동에 대한 책임감 파악
		역할 인식수준	3	파약국가를 위한 회원의 역할 고민 정도 파악
				현재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역할
				미래에 중점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역할 파악
D. 인적 특성	1. 회원별 성/연령/분야 인력 구성 현황	인구통계학적 인적사항	5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소속 분과
				예술원 회원 활동 기간
	2. 인력활동현황 및 특성	예술 창작 활동	1	예술 창작 활동 현황 파악
				창작 외 활동

〈표 6-3〉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대상 만족도 및 활동인지도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 지표	지표별 내용	문항 수	지표 내용별 의미
A 인지도	1. 예술원 인지도	기관 인지도	1	예술원 기관에 대한 인지도 파악
		추진 사업 인지도	1	예술원 추진 사업에 대한 인지도 파악
	2. 회원 인지도	회원 및 제도	1	예술원 회원에 대한 인지도 파악
		회원 예우	1	예술원 회원에 대한 예우 인지도 파악
B 발전 가능성 (필요도)	1. 예술원의 미션	미션 수행	5	회원의 미션에 대한 가능수행 인지 정도 파악
		미션 달성도	1	예술원 사업의 미션 달성 여부 파악
	2. 사업 중요도	사업 평가	1	추진 사업별 중요도 파악
	3. 예술원의 정책 및 사업 운영 평가	적절성	1	예술원 사업이 미션에 적절한지 파악
		전달력	1	예술원 사업의 외부 전달력 파악
		효과성	1	예술원 사업의 내외적 효과성 파악
		관리·운영	1	전문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
		예산 지원	1	예술원 운영에 맞는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지 파악
	4.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지속가능성	1	사업 및 정책의 지속 가능 파악
		발전 방향	1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선결과제 파악
		지원 방향	1	발전을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정부 지원 파악
	의견수렴	1	발전을 위한 자유 의견 및 건의사항 파악	
C. 분과 구성	분과의 구성	추가 분과 의견	1	추가적으로 필요한 분과에 대한 의견 수렴
D. 역할 인식 평가	1. 회원의 역할과 의무	인식수준	2	회원이 중점적 수행해야 하는 역할 파악
				국가를 위한 회원의 역할 고민 정도 파악
E. 인적특성	1. 전문가별 성/연령/분 야 현황	인구통계학적 인적사항	1	성별
			1	연령
			1	거주 지역
			1	활동 분야

##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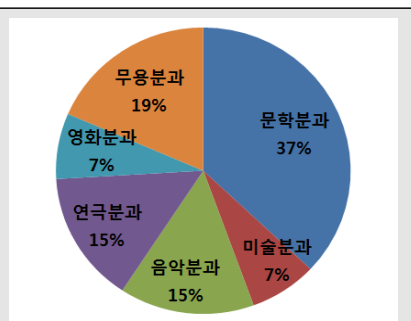
## 설문조사 결과

총 89명의 회원 중 환우 중이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설문에 응답하지 못한 회원을 제외한 27명과 문화·예술 전문가 17명이 응답했다. 응답한 회원의 경우 남성 59%, 여성 41%로 남녀비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지만 전문가의 경우는 남성 88%, 여성 12%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 평균 나이는 회원 79세, 전문가 52세였으며 회원과 전문가 대부분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표 6-4〉 설문 응답자 인적사항

(단위: %)

인적사항		회원	전문가
성별	① 남성	59%	88%
	② 여성	41%	12%
나이	회원, 전문가 각 평균연령	79세	52세
	거주지		
	① 서울특별시	74%	70%
	② 경기도	19%	18%
	③ 전라북도	7%	-
	④ 광주광역시	-	6%
	⑤ 인천광역시		6%



[그림 6-1]

회원 설문 응답자의 소속 분과

회원의 설문 응답자의 37%는 문학분과로 가장 많았으며 무용분과 19%, 연극분과 15%, 음악분과 15%, 영화분과 7%, 미술분과 7%가 응답했다. 이들의 경우 89%가 현재 예술 창작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문화예술 교육 및 강의(후학양성), 문화예술에 관한 자문, 문화예술 연구, 문화예술 기관 및 사업체 운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1. 예술원 발전 가능성 (회원, 전문가 공통)

### 가. 미션(기능)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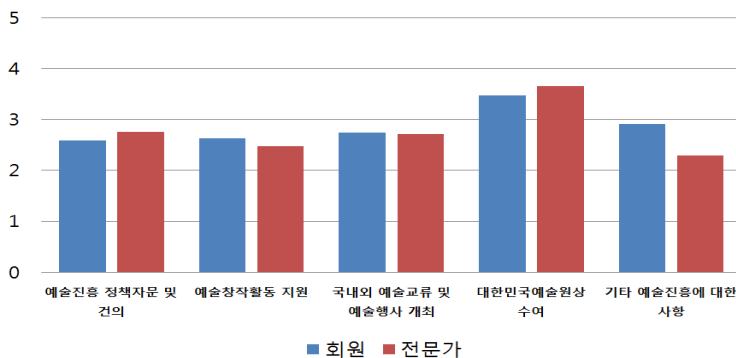
#### 1) 미션(기능) 수행정도

〈표 6-5〉 미션(기능)의 수행정도 평가

(단위: 1-5점)

문항	회원	전문가
1.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2.59	2.76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2.63	2.47
3. 국내외 예술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2.74	2.71
4.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3.48	3.65
5. 기타 예술진흥에 대한 사항	2.91	2.29

예술원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항목은 예술원 회원과 외부 문화·예술 전문가 대상으로 평가되었다. 예술원의 미션은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내외 예술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기타 예술진흥에 대한 사항 총 5개의 문항으로 평가되었는데 그 중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가 회원 3.48점과 전문가 3.65점으로 대체로 잘 수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6-2] 미션(기능) 수행정도 평가

## 2) 미션(기능)의 달성정도

〈표 6-6〉 미션(기능)의 달성정도 평가

(단위: 1-5점)

문항	회원	전문가
1. 예술원의 미션(기능)들이 종합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3.29	2.71

위의 5가지 미션(기능)에 대한 달성정도는 회원 3.29점, 전문가 2.71점으로 보통의 수준으로 달성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전문가의 서술 응답에서는 예술원 회원의 활동 상황과 시행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대표적인 사업은 대한민국예술원 상의 수여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예술원의 정체성에 맞는 명확한 미션이 새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나. 예술원 사업 평가

## 1) 현재 추진 사업의 중요도

〈표 6-7〉 현재 추진 사업의 중요도 평가

중복응답포함 (단위: %)

	문항	회원	전문가
예술 진흥 사업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15%	28%
	예술원회원 세미나	13%	5%
	예술원회원 국제교류	10%	11%
	예술 창작 활동 지원	20%	14%
	예술 강연회	9%	3%
	분과별 예술진흥 사업	13%	14%
일반 사업	예술도서 발간	7%	22%
	예술원 미술관 운영	9%	3%
	예술원 도서관 운영	4%	-

예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회원은 예술 창작 활동 지원이 20%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금이 15%로 높았다. 전문가의 경우는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금이 28%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는 앞서 미션(기능) 수행정도 평가에서도 가장 높았던 항목으로 예술원 예술진흥사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원과 전문가 모두 전반적으로 일반 사업보다 예술진흥사업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전문가의 경우 예술도서 발간사업의 중요도는 회원보다 월등히 높게 평가되었다.

## 2) 정책 및 사업의 수행정도

〈표 6-8〉 정책 및 사업의 수행정도 평가

(단위: 1-5점)

문항	회원	전문가
1. 예술원에서 추진하는 각 정책 및 사업이 기관의 미션에 맞게 적절히 추진된다고 생각한다.	3.11	2.71
2. 예술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이 외부로 잘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2.33	1.76
3. 예술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이 예술원 내·외적으로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89	2.53
4. 예술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이 전문적으로 관리 및 운영된다고 생각한다.	2.81	2.53
5. 예술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에 맞게 예산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2.50	2.76
6. 예술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2.88	2.94

예술원의 정책과 사업의 수행정도는 회원과 전문가 모두 적절성, 효과성, 관리·운영, 예산 지원, 지속가능성의 면에서 약 3점으로 평가하면서 보통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회원과 전문가 모두 전달력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점수로 대체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예술원의 정책 및 사업이 대·내외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말해주며 전문가들은 서술 응답에서 회원들의 활동 현황 뿐 만 아니라 예술원 시행 정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3)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표 6-9〉 발전을 위해 예술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

(단위: %)

문 항		회원	전문가
예술 진흥 사업	① 문화예술 교육 기능 확대	6%	8%
	② 회원 자료 및 기록물의 수집 및 아카이브 기능 확대	4%	12%
	③ 대한민국예술원상의 공정성 및 위상 제고	6%	18%
	④ 문화예술 분야 연구 기능 강화	7%	10%
	⑤ 예술창작 활동의 지원 강화	21%	14%
회원역할 강화	⑥ 예술원의 유사 기관 및 국제 교류 및 협력체계 강화	5%	4%
	⑦ 정책 자문 역할의 확대	11%	10%
회원 지원	⑧ 예술원 회원 대상(인원) 확대	3%	4%
	⑨ 회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지원 확대	15%	8%
운영 시스템	⑩ 예술원의 회원 및 추진 사업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 강화	2%	10%
	⑪ 청사 공간 확보(이전)	14%	0%
	⑫ 후원회 등의 자금 지원 시스템 개선	6%	2%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예술원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과 정부 지원 사항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했다. 예술원 내에서 진행되어야 할 3가지 사항에서는 회원의 경우 예술창작 활동의 지원 강화(21%), 회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지원 확대(15%), 청사 공간 확보 또는 이전(14%) 순으로 응답했고, 전문가는 대한민국예술원상의 공정성 및 위상 제고(18%), 예술창작 활동의 지원 강화(14%), 회원 자료 및 기록물의 수집 및 아카이브 기능 확대(12%)에 응답했다.

〈표 6-10〉 예술원 발전을 위해 뒷받침 되어야 할 정부 지원 사항

(단위: %)

문 항		회원	전문가
운영지원	① 예술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	13%	23%
	② 예술원 기관 사업 및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	9%	6%
재정지원	③ 청사 이전(확충) 등의 공간 확보	41%	-
	④ 예술원 재원의 확충 및 마련	14%	18%

문 항			회원	전문가
예술 전수 기 능 강화	⑤	문화예술 교육 기능 확대	9%	12%
	⑥	문화예술 분야 연구 기능 강화	14%	23%
회원지원	⑦	회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	13%	18%

예술원 발전을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정부 지원 사항은 회원의 경우 청사 이전(확충) 등의 공간 확보가 41%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가는 예술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과 문화예술 분야 연구 기능 강화가 각각 23%로 가장 많았다. 회원은 서술의 제언 및 건의사항에서도 예술원 내부 모임과 연구의 공간으로 새로운 예술원 청사 및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 다. 전문가의 예술원 인지도 (전문가 문항)

〈표 6-11〉 예술원 인지도 평가

(단위: 1-5점)

문 항	전문가
1. 나는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3.29
2. 나는 예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2.29
3. 나는 예술원 회원과 회원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2.76
4. 나는 예술원 회원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3.29

예술원에 대한 인지도는 외부 전문가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기관정보와 ‘예술원 회원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에서는 각각 3.29점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예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회원과 회원 제도에 대해서는 2점대로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앞서 미션(기능)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이외의 예술원 추진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효과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한편 ‘예술원 회원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항에서는 3.29로 ‘보통’으로 응답되었다.



## 2. 예술원 회원제도의 만족도 (회원 문항)

### 가. 회원제도 평가

#### 1) 회원구성

〈표 6-12〉 회원구성에 대한 평가

(단위: %)

문 항		회원
①	현재 정원수 100명은 적절하다.	81%
②	현재 정원수보다 인원을 늘려야 한다.	15%
③	현재 정원수보다 인원을 줄여야 한다.	0%
④	기타의견	4%

(단위: %)

문 항		회원
①	현재 정회원으로 운영되는 회원제도는 적절하다.	96%
②	예술원 회원구성 체계를 세분화(정회원, 준회원 등)하는 것이 필요하다.	0%
③	명예회원제도(외국 유명 예술인, 해외동포 예술인 대상) 신설이 필요하다.	4%
④	기타의견	0%

회원구성의 경우 현재 정원수 100에 만족하며 적절하다는 응답이 81%로 가장 많았다. 15%는 정원수보다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평균 135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타의견에서는 각 분과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과 사무능력을 갖춘 젊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서술했다.

또한 정회원 단일 제도 평가는 현재 정회원으로 운영되는 회원제도가 적절하다고 96%가 응답했으며 명예회원제도(외국 유명 예술인, 해외동포 예술인 대상)신설이 필요하다고 4%가 응답했다.

## 2) 회원 선출제도

〈표 6-13〉 회원 선출 방식 평가

(단위: %)

문 항		회원
①	현재 회원 선출제도는 적절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한다.	70%
②	공정성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심사 참여가 필요하다.	0%
③	공정성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만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0%
④	예술원 회원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30%
⑤	기타의견	

현재 회원 선출 방식은 내·외부 추천을 받아 회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이에 회원선출제도는 현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70%가 응답했으며 30%는 예술원 회원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외부 전문가만 심사한다는 문항이나 외부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찬성의 응답이 전혀 없어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회원 연임제도

〈표 6-14〉 회원 연임제도 평가

(단위: %)

문 항		회원
①	현재 회원 연임제도(4년마다 재신임)는 적절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한다.	31%
②	재신임 시 심사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4%
③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심사 참여가 필요하다.	0%
④	'종신제' 로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	65%
⑤	기타의견	-

현재 회원의 임기는 4년마다 재신임을 통한 연임제이다. 이에 대한 평가에서 현재 연임제도가 적절하게 운영된다고 31%가 응답했고 ‘중신제 제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65% 과반수 이상이 응답했다. 이외 재신임 시 심사요건 강화는 4%로 응답했다. 전문가는 회원제도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지만 서술식의 건의 사항에서 예술원 회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건이 있었다.

## 나. 회원 예우 및 지원 만족도

### 1) 회원 수당 지원

〈표 6-15〉 회원 수당 지원 평가

(단위: %)

문 항		회원
①	월별 정액 수당(월 180만원)의 금액은 적절하다.	37%
②	월별 수당의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	59%
③	월별 수당의 지급액을 줄이고 다른 지원 사항들을 늘려야 한다	0%
④	기타의견	4%

예술원 회원의 정액수당은 180만원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한 회원은 37%였으며 59%는 지급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평균 지급 금액은 240만원이었다. 기타의견에는 불가상충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지급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2) 회원 수당 외 지원

〈표 6-16〉 회원 수당 외 지원 평가

(단위: %)

문 항		회원
①	예술원 회원으로서 받는 수당외의 지원(회의수당, 입원 및 장례비 지원)은 적절하다.	69%
②	수당외의 지원 사항(명예직 지원)들을 더 늘려야 한다.	27%
③	수당외의 지원 사항을 줄여야 한다.	0%
④	기타의견	4%

예술원 회원의 수당 외 지원 사항에는 회의비, 입원 및 장례비 지원이 있는데 69%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명예적 지원을 수당 외 지원으로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7%였다. 기타의견 4%는 기본 회의수당, 입원 및 장례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 3) 회원의 예우 및 자부심과 긍지 평가

〈표 6-17〉 회원의 예우 및 자부심 긍지 평가

(단위: 1-5점)

문항	회원
1. 예술원 회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적절한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3.11
2. 예술원 회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	4.08

예술원 회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적절한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다 문항에 회원들의 평균 점수는 3.11점으로 보통이다로 나타났다.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는 평균 4.08점으로 대체로 그런 편이다로 응답했다.

## 3. 예술원 회원의 역할 인식 정도

### 가. 회원 역할 평가

#### 1) 회원의 책임감(회원 문항)

〈표 6-18〉 회원의 책임감에 대한 평가

(단위: 1-5점)

문항	회원
1. 예술원 회원으로서 국가예술 진흥 및 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4.38
2. 예술원 회원으로서 예술원 활동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	4.19

회원의 책임감에 대한 평가에서 예술원 회원으로서 국가예술 진흥 및 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항목은 평균 4.38로 대체로 그런 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예술원 회원으로서 예술원 활동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항목에서도 평균 4.19점으로 대체로 그런 편이라고 응답했다. 책임감과 책임의 실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약간의 차이를 상쇄하고 일치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나 사업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 2) 회원의 역할 인식수준 (회원, 전문가 공통)

〈표 6-19〉 회원의 역할 인식수준 평가

(단위: %)

문항		회원	전문가
①	국가가 예술인을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48%	59%
②	예술원 회원으로서 국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52%	41%

국가와 예술원 회원의 수행 역할에 대한 문항은 회원과 전문가의 평가가 있었다. 회원의 경우 예술원 회원으로서 국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52%, 국가가 예술인을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48%로 응답했으며 두 문항이 크게 차이하지 않았다. 전문가의 경우는 국가가 예술인을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59%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예술원 회원으로서 국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항은 41%로 응답했다.

## 3) 회원의 수행 역할

〈표 6-20〉 예술원 회원의 현재 중점 역할(회원, 전문가 공통)

(단위: %)

문항		회원	전문가
①	예술창작을 통한 기여	44%	21%
②	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역할	4%	26%
③	국가 대표 예술인으로서의 예술 교류 및 홍보	4%	42%
④	후학 예술인 교육 및 양성	36%	11%
⑤	예술원 추진 사업에 적극적 참여	12%	-

〈표 6-21〉 예술원 회원이 기대하는 중점 역할(회원 문항)

(단위: %)

문 항		회원
①	예술창작을 통한 기여	31%
②	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역할	15%
③	국가 대표 예술인으로서의 예술 교류 및 홍보	15%
④	후학 예술인 교육 및 양성	23%
⑤	예술원 추진 사업에 적극적 참여	12%
⑥	기타의견 (정책자문역할)	4%

회원이 현재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예술창작을 통한 기여가 44%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후학 예술인 교육 및 양성이 36%로 응답했다. 앞으로 예술원의 발전을 위해 회원이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싶은 역할은 동일하게 예술창작을 통한 기여가 31%가 가장 많았으며 후학 예술인 교육 및 양성이 23%, 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역할과 국가대표 예술인으로서 예술교류 및 홍보가 각각 15%로 응답했다.

#### 4. 분과구성 (전문가 문항)

##### 가. 분과 세분화 구성

〈표 6-22〉 추가 분과구성 평가

(단위: %)

문 항		전문가
①	희극	0%
②	대중음악	29%
③	만화 및 애니메이션	18%
④	사진	24%
⑤	기타의견 (디자인, 디지털 문화예술 등)	29%

추가 분과 의견에 대한 설문은 전문가에만 시행되었다. 만약 분과구성을 세분화 할 경우 추가가 필요한 분과로 가장 많이 차지한 분야는 29%로 대중음악과, 기타가 있었다. 기타에는 디자인, 디지털예술, 건축이 대표적이었으나 신중하게 고려하여 추가 분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밖에 사진 분야가 24%, 만화 및 애니메이션이 18%로 뒤를 이었다.

## 제3절

## 의견종합 및 시사점

## 가. 예술원의 발전 가능성

예술원의 발전 가능성 문항에서는 주로 미션(기능),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주목할 것은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는 회원과 전문가 모두 5점 만점에서 3점대로 어느 정도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지만 그 외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내외 예술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기타 예술진흥에 대한 사항은 모두 2점대로 만족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추진 정책 및 사업의 수행 정도에서 외부 전달력이 회원 2.33점과 전문가 1.76점, 전문가의 예술원 추진 사업 인지도 2.29점을 봤을 때 외부와의 소통 활성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전문가의 예술원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평가와 서술식의 건의 사항을 보면 예술원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국가에서 주요 예술인을 예우하고 영예를 부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어떻게 예우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회원들의 활동 현황 뿐만 아니라 예술원 시행 및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회원 자료 및 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브 기능 확대, 대중과 소통의 장 마련 등을 통해 인지도와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예술원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회원의 경우 청사 공간 확보(이전)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뒷받침 되어야 할 정부 지원 사항 문항에서도 청사 공간 확보(이전)가 41%로 가장 높았으며 회원의 서술식의 건의사항에서도 회의 공간 사용에 있어서도 분과 전체 인원 수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예술원에서는 문학행사, 미술전시,



공연행사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접근성이 낮은 상태다. 회원의 연구, 회의, 모임, 전시 및 행사 등을 위한 적절한 규모의 접근성이 높은 공간의 확보는 예술원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나. 예술원 회원제도의 만족도

예술원 회원제도의 만족도 문항에서는 회원제도 평가와 회원 예우 및 지원 만족도가 평가되었다. 정원수 100명에 대한 평가나 회원 선출 방식에 대한 평가는 기존체계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원 선출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높이지 예술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회원 연임제도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한민국 학술원, 일본예술원 등 유사기관들의 제도처럼 종신제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5%로 과반수 이상이 응답했다.

회원 예우 및 지원 만족도에 있어서는 월별 수당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59%가 응답했다. 기타 서술의견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지급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듯이 공적이 현저한 예술인에 대한 우대·지원이라는 예술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회원 예우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임무는 유지하고 확대·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예술원 회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예술의 위상을 높이고 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다. 예술원 회원의 역할 인식 정도

회원의 역할 인식 정도는 회원으로서 국가예술 진흥 및 발전의 책임감과 예술원 활동의 책임에 대해 평가되었다. 각각 4.38점과 4.19점으로 대체로 '책임감을 갖고 있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회원의 중점 역할과 앞으로 회원이 기대하는 중점 역할의 비교 문항에서는 모두 예술창작을 통한 기여와 후학 예술인 교육 및 양성이 가장 많았다.

이는 회원들이 예술창작을 통해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과 후학 예술인을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이는 대중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예술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 예술가로서 더 큰 역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분과구성

분과 구성에 대한 문항은 다양화되는 예술의 변화를 담아낼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가로 분과 세분화가 이루어질 시 필요한 분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대중음악과 기타의견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의견에는 디자인, 디지털 문화예술, 건축 등이 문화·예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신설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만약 세분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현재의 분과 구분은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분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대중음악, 사진, 건축, 디자인, 디지털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를 수용하여 자연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외 유사기관을 보면 대한민국예술원보다 분과 범위가 넓은 편이다. 일본예술원의 경우 제 3부 제 16분과로, 프랑스 아카데미 데 보자르의 경우는 9개 분과로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가가 속해 있다. 대한민국예술원도 미국의 문화·예술 아카데미처럼 일반 분과에 소속되지 못하는 분야의 예술가들을 명예 회원으로 임명하는 등 유연하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수용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7장 ●●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목표 및  
발전전략 방향





## 제1절

## 대한민국예술원의 미션 및 비전 수립

## 1. 대한민국예술원 미션 재정립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 창작과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예술인을 우대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어 지난 60년 동안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예술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정책자문, 국내외 예술행사 개최 등 많은 사업을 펼쳐왔다.

앞서 제 2장에서 대한민국예술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지만, 대한민국예술원은 해방직후 예술원 설립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초대회원을 선출하였고, 60년대와 70년대 근대화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현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때 조직의 외연도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다양한 경향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고 서로 다른 역량을 포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예술원이 설립되고 60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당시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 발전을 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2000년 이후 한류로 대변되는 융복합 엔터테인먼트로 그 패러다임이 이동되면서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예술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따르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고 원로 예술인들이 모인 최고의 문화예술인 기관이라는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예술원은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며 예술원 회원들이 가진 대한민국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미션과 연구 성과를 살펴본 후, 보다 실리적이고 구체적인 미션을 통해 대한민국예술원이 국내·외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동시대 문화적 패러다임의 이동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주요 미션으로 「예술인 예우」를 「예술문화의 전승·보존」으로, 「창작활동 지원」을 「예술활동의 나눔」 그리고 「생활문화예술 시대를 선도」하는 예술원이라는 보다 거시적이고, 새로운 미션으로 대한민국예술원의 미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 가. 문화예술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예술원

예술원은 과거 문화보호법을 통해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예술원의 설립 후에는 국가가 예술을 보호함으로써 예술가는 국가에 의해 관리, 지도되는 것이라는 오해를 낳기도 하였다. 하지만 예술의 가치가 상승하고 예술을 통해 국가의 이미지가 해외에 긍정적으로 소개됨은 물론, 예술적 가치 향상을 통해 그 나라의 위상이 정립되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국가가 예술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예술원은 대한민국 예술에 공헌한 예술인의 공적을 공공의 기준으로 기리고, 이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함으로써 예술인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고, 이를 실현해내기 위해서 예술원의 미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예술인을 우대하고, 예우하는 현재의 미션은 예술원을 지탱하는 근간이기에 매우 중요하지만, 원로 예술인을 예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예술적 가치와 역량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에 대한민국 예술의 가치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르면, 예술원은 “예술창작 활동 지원 사업을

행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미션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예술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예술원의 현재의 지원제도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루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리적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술원 회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리적인 예술 진흥 시스템을 만들어 후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예술원 회원은 대개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30년 이상을 활동해온 이들로, 경험과 연륜은 무형문화재 못지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가치를 배우고 익히는 장을 예술원의 미션으로 삼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예술을 보존하고, 지속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대한민국 예술원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 나. 생활예술 시대를 대변하는 대한민국예술원의 대중지향적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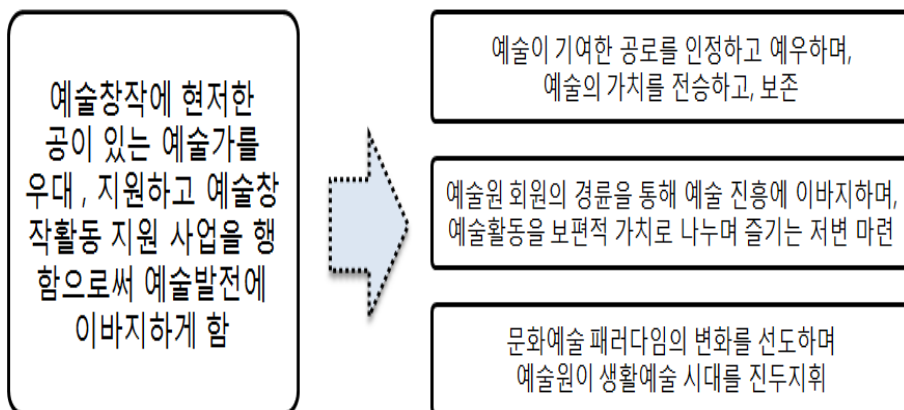
예술은 그 자체로 인간 삶의 한 형태이자 인간됨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의 양식이다. 예술은 사회가 만들어 내는 힘을 구현할 수도 있고, 인간은 예술을 바탕으로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만족감도 얻을 수 있다.

2000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문화를 수동적으로 즐기는데 익숙했었다. 이를테면 공연장 객석에 앉아 연주자와 배우가 제공하는 예술 콘텐츠를 그대로 흡수하는 형태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력이 증대되고, 문화의 가치가 삶의 척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국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춰 문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지역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여 이제 언제 어디서든 문화를 즐기고 싶을 때는 누구나 자신이 속한 지역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문화 향유자들은 예술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예술 콘텐츠를 흡수하기보다 스스로 예술활동을 영위

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안에서 본인의 예술적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이른바, “인터랙티브-사피엔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터랙티브-사피엔스”는 자신이 하고자는 예술 활동을 본인의 시간을 직접 투자하여 내가 목적했던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내가 향유하고 있는 행위를 소셜미디어 등 SNS를 통해 타인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스스로의 열정을 평가받고 과시하기도 하는 등의 문화가 생활이다. 즉, 생활이 문화가 되는 그야말로 ‘생활문화예술의 시대’를 만드는 장본인으로써 활약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나 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자신의 예술적 기질을 나누는 역량의 공유를 통한 자아발현을 목적으로 삼는 “인터랙티브-사피엔스”들에게 원로 예술원 회원들의 가치는 무한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의 예술적 표현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예술원의 미션으로 자리 잡는다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예술원의 가치 상승은 물론, 급격히 변화하는 문화 환경 속에서도 예술원 회원들이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을 굳건히 하고, 예술이 개인의 삶과 사회 구성에서 근간이 되는 중요한 부분임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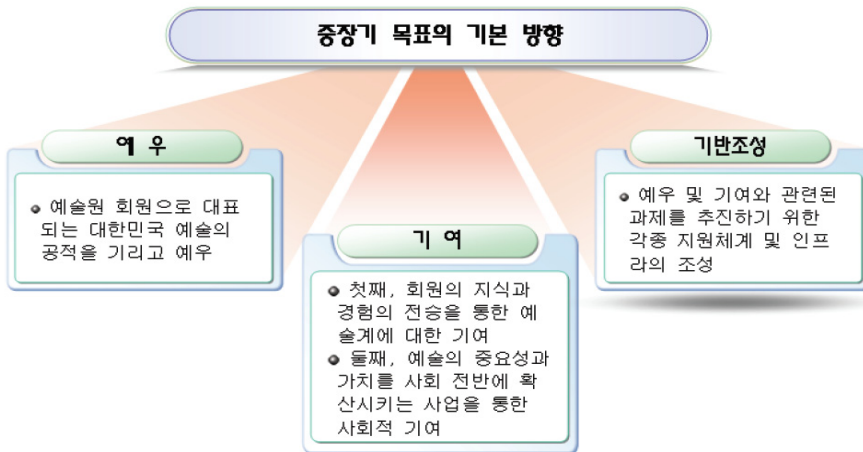
[그림 7-1] 대한민국예술원 미션 재정립



## 2.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적 비전 수립

대한민국예술원은 해방 이후 우리 근현대 예술사에서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대표적인 원로 문화예술인들의 업적을 기리는 기관이다. 대한민국예술원의 의의 및 역할을 반영한 기존의 비전은 크게 ‘예우’와 ‘기여’ 그리고 ‘기반 조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우’는 예술원 회원으로 대표되는 원로 예술가들의 공적을 기리고 이들을 적극 예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예술의 격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여’는 원로 예술인들의 행적과 예술 업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예술의 중요한 가치를 알리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원로 예술인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보다 대중과 가깝게 소통하는 매개자의 역할도 당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기반 조성’은 ‘예우’와 ‘기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기 위해 예술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립하고 예술원이 중장기 계획의 방향을 수립하여 우리 사회에서 예술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7-2] 예술원의 기존 중장기 목표의 기본 방향

위와 같은 중장기 목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예술원은 ① 회원 아카이브를 통한 예술의 사회적 기여 ② 회원 예우 내실화로 예술원의 위상 강화 ③ 정책 자문 및 시상 제도 강화로 예술 진흥에 이바지 ④ 현장 예술인 및 대중과의 격이 없는 소통 등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통해 예술원 사업과 회원제도,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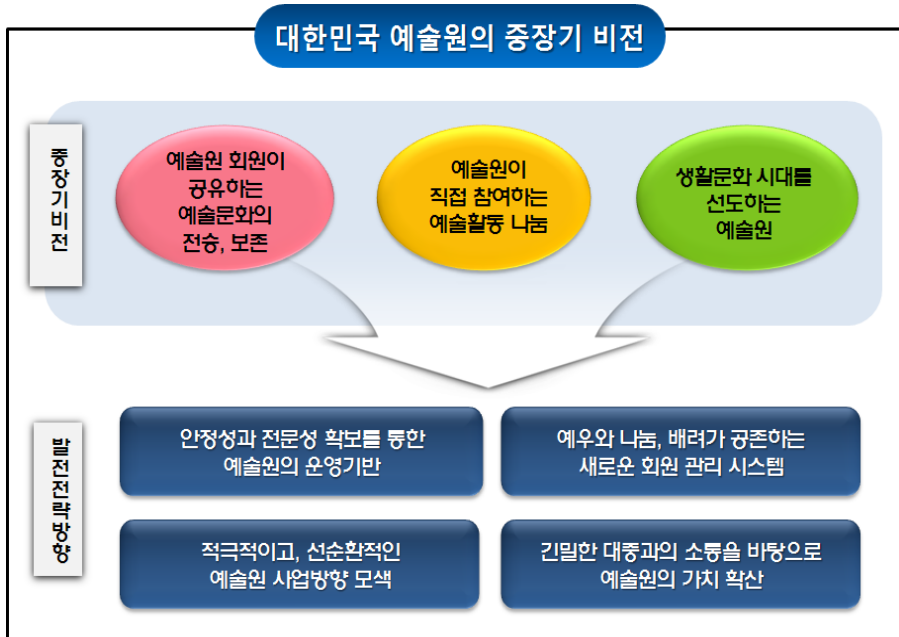
하지만, 예술가들이 쌓아온 지난날의 역량과 업적이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 저변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예술원이 원로 예술가의 자료 보존 및 기록을 저장하는데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예술원 회원들의 발자취와 업적을 적극 발굴하여 전승하는 것은 젊은 신진 예술인과 현장의 예술인에게 대한민국 예술의 전통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에 이러한 작업은 꼭 필요하다.

회원의 예우 방식도 과거에 있었던 경제적 지원보다는 다양한 측면의 회원 선출 방안 마련, 예술원이 주관하는 다양한 시상에 있어 심사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회원에 대한 권위를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술원이 전통을 기반으로 동시대와 미래의 문화를 연결시키는 매개자로서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중과 현장 예술가의 소통의장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의 공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술원의 공간은 지금과 같이 학술원과 함께 공존하며 단순한 사무공간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원로 예술인이 후학을 양성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수반되는 별도의 청사 마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경제 및 문화예술의 환경변화에 시의적절히 대응하는 예술원의 역할 정립과 더불어 예술원 회원의 명성에 맞는 예우와 친밀한 대중과의 소통, 그리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지탱하는 원로 예술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예술원 회원이 공유하는 예술문화의 전승·보존」과 「예술원이 직접 참여하는 예술활동의

나눔」 및 「생활문화예술 시대의 선도하는 예술원」하는 예술원이라는 새로운 미션을 바탕으로 중장기 비전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7-3] 대한민국예술원의 중장기 비전

### 3.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

대한민국예술원의 미션은 ‘예술문화의 전승과 보존 및 직접 참여하는 예술 활동 나눔을 통해 생활문화시대를 선도하는 예술원’이다.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은 현재 현저한 업적이 있는 최고의 예술가들이 국민들의 삶과 다소 거리가 있는 측면에 주목하여 그 거리를 좁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예술원의 가치와 위상을 회복하고 명실상부하게 국가의 예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민이 즐겨 찾는 예술의 명소, 대한민국예술원’으로 수립하였다.

이러한 중장기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첫 번째

전략은 예술원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기반이다. 예술 활동을 주체적으로 즐기며 참여하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공간, 접근할 매력이 있는 예술사업의 전문적인 기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전략은 예우와 나눔, 배려가 공존하는 새로운 회원 관리 시스템이다. 단순히 수당 지급을 통한 예술원 회원들의 생활유지가 주요한 관리 방식이며 관리 목적이 아니라, 사후의 회원 업적 관리와 그러한 업적들을 국민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해주는 방안, 사후 예술인 묘지에의 안장 등을 포함한 사후 명망에 대한 배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원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전략은 적극적이고 선순환적인 예술원 사업방향 모색이다. 지금까지의 예술원 운영이 예술원 회원들의 최소한의 품격 유지를 위한 수당 지급에 역점을 두는 방식에 만족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최고의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모여 있는 예술원에 기대하는 예술계 현장과 국민들의 요망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방식의 사업을 기획할 시점이다. 국제교류도 관행적으로 2건씩 이루어져왔다면 이제는 국제적인 감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키워나가도록 비용을 절감하되 정례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사업 전략은 일반 국민 중에서도 우리나라 예술의 미래를 대표할 수 있는 미래의 예술원 회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에의 참여일 것이다. 회원 자신의 예술적 기량도 계속 연마하고, 젊은 세대와의 공유 경험을 통해 새로운 예술창작의 자극을 받는 등 개인과 사회가 공통으로 예술발전의 계기를 맞는 선순환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략은 긴밀한 대중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예술원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계 전문가들에게도 예술원상 수상이라는 사업에 의해서만 인지도가 약간 있는 편이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대한민국예술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이는 일반 국

민들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려는 국가 전반적인 정책방향과도 유리되어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의 예술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예술원의 법적 취지의 만족을 위해서라도 미래 예술의 발전을 감당할 후학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자체 공연이나 전시, 현장 예술계와의 협업을 통한 공연이나 전시 등의 기획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추구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의 고유한 축제나 문화원 등의 소규모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에의 참여들도 권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현장과 만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은 회원 예술가들의 전문성이 사회로 확산되고, 거시적으로는 예술의 가치가 사회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 제2절

## 예술원 운영 기반 확보

## 1. 예산 및 재원 마련

현재 예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정부 기구로서 예술원 운영 및 사업에 관련한 모든 예산은 정부 예산에 계상·집행되고 있다. 재원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예술원법』과 『대한민국 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 수당 지급규정』으로, 2015년 기준 예술원 예산 총액은 36억8천1백만 원이었으며, 그 중 예술원 회원에게 수당의 개념으로 전체 예산의 약 56%인 20억5천9백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밖에 예술원상과 창작 및 교류활동 지원 사업으로 예산의 10% 정도를, 회원 예술세계 기록화 사업에 3%를, 분과별 예술진흥 사업에 5% 등을 사용하여 총 18%를 예술원의 창작지원 사업과 예술 진흥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예산이라 할 수 있겠다.

예술원의 전체 예산 규모는 국립 문화예술기관 예산 전체를 통틀어서 비교해보아도 1%의 예산에 불과하여, 국고를 통한 사업 운영으로는 회원에 대한 수당 이외 대한민국예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예술진흥 사업을 지탱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위와 같은 예산의 규모로는 자칫 국가의 지원을 받은 소극적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문화예술기관은 문화를 담당하는 국가의 중앙부처가 직접 나서서 예술적 기준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하고 있는 이른바, “건축가 국가<sup>88)</sup>”에 속한다. 하지만, 문화예술을 장려하고 예술가와 기획자, 공무원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이후, “건축가 국가”를 넘어 공공의 재원이 과감히 축소되고, 세금 정책 및 자체 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원의 폭을 결정하는 “축진

88) 서민수(2010), 「문화예술 조직 비교 연구」, 『문화정책논총』 25집 1호, pp.121-147

자 국가”나 팔 길이 원칙을 적용하여 전문 지원가 그룹에 대한 지원과 예술 전문가 패널의 평가를 통해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자 국가”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예술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더 나아가, 운영재원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예술원의 기존 사업을 활성화하고, 신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사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국내의 비슷한 사례로는 대한민국 학술원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학술원은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체 재단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여 연구 재단의 연구비로 활용하고 있으나, 기관의 성격상 특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만 해당 재원을 사용할 수 있어 조직의 세부적인 사업집행까지 아우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사례로는 연방정부 소속의 독일예술원을 들 수 있는데, 연방지원금을 기본적인 재원으로 하고 있고, 예술원 입장료 수입 등을 통해 자체 수입 -전체 예산의 3.7%- 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큰 도움을 주진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프랑스의 경우, 예술원이 다수의 동산 및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어, 유증과 기부를 통한 수입과 마르모탕, 지베르니, 에프루시 박물관 등의 운영 수익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원은 개인 재력가의 기부이며, 이러한 기부금에 의한 자산을 중심으로 회원 납부금으로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민국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상과 회원 세미나,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 및 예술원 회원들의 창작 활동 지원 (논문, 공연, 출판, 전시회, 작품 제작)과 강연회, 별도의 분과별 지원 사업 등 다채로운 사업을 운영중이나, 회원에 지급되는 수당 외의 잔여예산으로는 보다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쉽지 않다. 기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담인력을 확보

하거나, 외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지만 현재 예술원의 주요 사업들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외부의 전문 인력을 거의 활용하지 못한 채 수행되고 있다.

특히 예술원 주최의 미술전 개최나 도서출판 시,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이 제반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예술원 회원이 전시기획, 컨설팅 그리고 집필, 감수, 편집 등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타깝다. 회원의 업적을 정리하고, 예술원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청사를 확보하는 등 신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체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거나, 현재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엔 국가의 통제와 딱딱한 내부 조직 구성으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현재 고려해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이 보유한 자료관과 미술관을 유료로 전환하여 입장료 수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나, 100여명을 넘지 않는 적은 규모의 예술원 회원으로는 지속적인 콘텐츠 유지가 어렵기에 쉽지 않다. 대한민국 학술원과 같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기부금과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도 방안으로 모색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조직 구조로는 이 또한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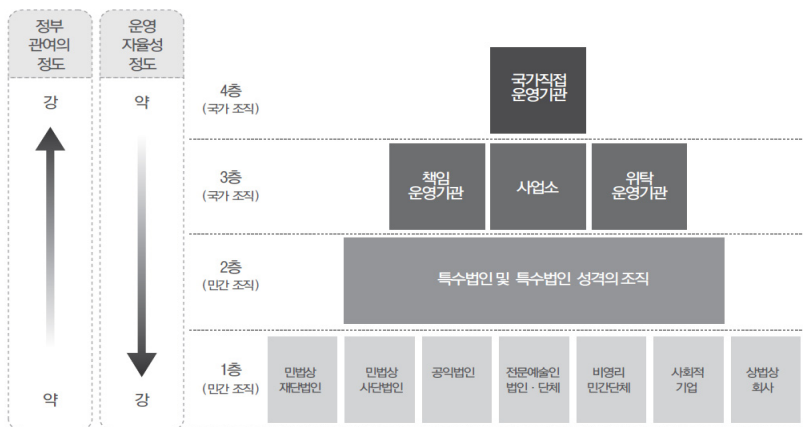
## 2. 예술원 운영조직 개선

대한민국예술원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재원도 국가에서 충당하는 일본예술원을 벤치마킹해 조직되었다. 초기 예술원은 원로 예술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기에 별도의 사업 운영이 필요 없었다.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수상제도를 통해 원로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의 성격이 강하였기에 기관 성격도 원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하지만, 현재의 예술원이 예술인들의 사회 공헌과 더불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선구자로서 동시대 예술을 아우르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예술원의 운영 형태 역시 국가의 중앙 부처가 직접 나서서 예술적 기준과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하는 이른바 “건축가 국가”의 모델에서, 점차 복지국가의 형태에서의 지원하는 모델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서민수(2010)는 현존하는 문화예술 조직을 법률적 성격에 의해 분류되던 기존의 방식과 별도로 ‘정부 관여의 정도’와 ‘운영 자율성 정도’에 따라 4가지 층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 중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정부 행정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유지하되 기관장에게 어느 정도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비슷한 국내 기관으로는 현재 국립극장과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조직구성원은 공무원 인력이며, 국가 예산지원으로 운영되지만, 인사 및 조직, 예산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다.



[그림 7-4] 현존 문화예술 조직의 4층 모형

또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기에 일반 행정 기관과는 다르다. 구체적으로 사업적·집행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 성과

측정이 가능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혹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술원의 경우 설립목적 자체가 예술원 회원의 예우에 있기에 경쟁원리의 적용이 불가능하기에 회계상 일반회계의 적용을 받는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이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원이 정부의 관여를 피할 수 없다면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조직구성의 변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원 회원의 선임과 예술원상 수상자 등을 결정하고, 기타 운영 필요한 규정 제정 및 개정, 기타 중요사안 등 예술원의 주요 의결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회원을 대표할 회장과 부회장이 있어 전문 경영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현재 고위 공무원이 맡고 있는 사무국장 정도가 유일하다는 내부적 한계도 가지고 있다.

〈표 7-1〉 책임운영기관 관리 방식

구분		책임운영기관
설치근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조직관리	정원관리	총 정원만 대통령령에 규정, 계급별 정원은 부령
	하부조직	모든 하부조직과 직급은 기본운영규정에 규정
인사관리	기관장 채용 (사무국장)	공개 모집(5년 이하의 계약직)
	직원 인사	기관장 : 계약직 계급별 정원의 3% 이내(기능직 5% 이내)
	성과 상여금	소속 장관이 별도 책정 가능
	직원 신분	공무원(일부 계약직)
예산 회계	회계방식	행정형 기관으로 일반회계 적용
	예산집행자침	관계기관의 의견을 물어 별도 작성 가능
	초과 수입금	작간집 비용에 사용가능(사후 통보) 기획재정부 사후 협의 한도
	예산 아전용	기획재정부 협의(단, 인건비와 일부 물건비는 자체전용 가능)
	예산 이월	경상적 경비 20% 이하
성과 관리·평가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해당 사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 3. 청사 및 부대시설 공간 확보

현재 예술원은 국유 재산인 학술원 사무국 건물의 일부(328.4평)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무국 사무실 및 회의실, 미술관, 자료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술관의 경우, 130평 규모로 예술원 회원 미술전 및 예술원 소장 작품전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에, 일반인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미술관 수장고의 경우 겨우 10평 남짓 되는 공간이어서 규모나 소장품의 보관 환경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향후 소장 작품의 증가 추이를 고려했을 때, 수장고의 확충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향후 예술원이 일반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각종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청사 공간의 확보가 요구된다.

예술원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물음에 회원들은 청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를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정부의 지원 사항 역시 청사 공간 확보에 대한 지원이 41%로 가장 높았다. 예술원의 자료관, 작품 전시공간, 세미나실, 강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사 공간을 마련하여 일반인의 예술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원과 일반인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예술담론을 형성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해외 예술원의 경우, 사무국이 위치해 있는 청사 외에도 미술관 및 박물관 등의 부속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이러한 청사 및 부속 건물들은 대부분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것이거나,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서, 각 기관은 이들 청사를 전시 및 창작활동 지원 사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술원에서는 과거 광화문에 위치한 덕수궁 내 석조전을 예술원의 새로운 청사로 건의한 적이 있었지만, 미술관으로 활용중인 석조전의 안정적인 현재의 운영 현황과 내부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새로운 예술원의 청사는 무엇보다 일반인과 현장 예술인이 만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기 위한 소통의 공간이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점은 바로 접근성이다. 일시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국악원 인근, 대학로 등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시설과 지역으로의 이전도 검토되었으나 무산되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을 통해 많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공지가 된 기관을 별관 개념의 청사로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접근이 쉬울지라도 새로운 청사 내에 예술원이 주최하는 행사(문학, 미술, 공연 등)를 진행할 수 있는 대중속의 예술원이 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술원만의 독립적인 청사를 고민할 때 좋은 사례로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은 강남구 선릉에 위치한 한국문화재단이 입지해있는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다.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한국문화재단이 한국의집, 한국문화의집 및 각종 문화재 연구관련 기관을 통합하기 이전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운영되다가, 2014년 8월 한국문화재단으로 통합 발족되었다. 현재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는 재단 사무국을 비롯해 상설 전시장 및 기획전시실을 비롯해 '전통 공예관' 및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 공예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전통 공예품 상설 전시판매장, 세미나실, 예능연습실, 공예교육실 시설을 비롯해 상설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풍류극장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업적을 일반인과 공유하고, 전수조교의 문화강좌와 신진 국악 예술인을 위한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바, 새로운 청사를 열망하는 예술원 회원에게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의 예술원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면적인 청사 이전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면밀한 부지 검토를 통해 그동안 예술원이 쌓아온 자료와 작품 보관이 가능한 공간을 선정해야 한다. 더불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술원 회원과 현장 예술가 그리고 이들을 지지해줄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시범적으로 마련하여 후에 독립적인 예술원만의 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제3절

## 회원 관리 시스템의 보완

## 1. 체계적 예술 원로 예우 시스템 구축

예술원 회원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가 집단으로 이들의 공적에 맞는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을 인정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예술원 회원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예술원법에는 예술원의 설립목적에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 ‘지원’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자칫 국가가 예술가를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근본적인 예우로 설명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예술원은 예술이 우리 사회의 삶과 문화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최고 예술인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공적을 일반인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징적인 예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예우의 방법이나 방식에 있어서 현재는 수당 지급이라는 경제적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기에 향후,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회원들이 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예술인이라는 인식과 일반인의 존경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로 예술인에 대한 정책적 예우와 사회적 존중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예술원 역시 이들과 명성을 함께 나누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원로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업적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예우 방식은 회원에 대한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보상 외에도 예술 공적에 대한 존경과 이를 기리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술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회원들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예술원 회원은 분명히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이끌고 있는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낮은 인지도가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기에, 보다 대중지향적인 회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 이는 예술원의 회원으로서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이다.

원로 예술인의 위상을 강화하는 노력은 예술원 회원의 수당 인상, 원로 예술인에 대한 정기적인 연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예술인에 대한 서훈 확대, 예술인 회원들이 선출하는 문화예술 유공자 훈장 및 표창, 젊은 예술가상, 한국을 빛낸 예술가상, 대한민국 예술인 대상 등 다양한 상훈 프로그램에 예술인 회원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정신적인 예우의 한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훈 제도는 비영리 민간 예술단체인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와(이하 예총, 1962년 창립)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에도(이하 민예총, 1988년 창립) 존재하고 있어, 대한민국예술원이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상제도를 선도하여, 회원이 직접 민간 예술단체의 시상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생전 예우보다는 예술원 회원의 사후 예우에 더욱 중요한 방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례로 제시되었던 프랑스 팡테옹과 영국의 시인의 공간과 같은 사례는 모두 국가의 가장 저명한 유명 인사들의 영묘를 통해 예술원 회원을 예우하고 있는 사례로 이는 예술인에게는 최고의 영예를 제공하고, 문화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관광객에게는 여행에서 꼭 들러보아야

할 장소로 기능할 수 있는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데에서 문화를 통해 국가를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같은 해외 사례를 통해서 대한민국예술원 역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유고회원 추모제 등을 추진하고, 예술원 청사 내 작고한 유고 회원들의 기념 조형물을 구역을 나눠 설치하는 방안과, 예술원 회원의 생가 보존,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예술원 회원의 유적지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사후 예우에 대한 예술인 회원들의 만족도 또한 동반 상승할 것이다.

국내의 비슷한 사례로는 노무현 정부까지 대통령 별장으로 활용되었던 청남대를 들 수 있다. 청남대는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시절 영춘재라는 이름으로 준공되어 1986년 지금의 청남대로 개칭되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 충청북도로 이관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휴식을 책임진 공간으로서 2015년 현재 관람객 900만 명을 돌파하는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변모하였다. 특히, 청남대를 역대 대통령을 상징하는 길로 포지셔닝하여 각 입구에 동상을 건립하고, 업적을 기리는 스토리텔링으로 둘레길을 조성한 부분은 예술원이 회원의 예우를 위한 사업 영역에도 좋은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5] 대통령의 이름을 딴 둘레길



[그림 7-6] 대통령길

## 2. 예술원 회원제도 운영 방안 개선

현 시대의 예술 환경은 그 경계가 모호하고, 상호간에 장르를 넘나들며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신한류를 통해 세계의 대중예술을 선도하고, 교류의 매개자로서 그 위상을 점점 높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예술원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예술원의 운영에 있어 세대를 아우르고, 장르간의 경계를 파괴하는 소통의 틀을 갖추어 나간다면 회원과 현장 예술인 그리고 일반인과 장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사안으로 회원 간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예술원 회원 선출제도는 회원 스스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후보자 추천(예술원 회원 및 외부 추천기관)과 후보자 선출위원회 심사 후 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되면 예술원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회원 선출에 있어 대중과 예술계, 기존 회원의 온도차가 크기에 회원 선발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학 교수 중심의 특정 직군에 편중되어 있다는 측면과 기존 회원을 중심으로 그와 연을 가진 예술인에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예술원 회원의 자격에 대한 시비를 묻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예술원 회원이 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예술계 내에서 예술원 회원이 가지는 위상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회원 선출은 예술원 회원의 고유한 권한이며, 그들을 예우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자율성과 독립성의 토대 아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원 선출은 그들의 명예와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회원 선출에 있어 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되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많다. 해외 예술원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회원 추천의 권한과 선출



권은 기존 회원에게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며, 회원 선출의 권리가 회원의 핵심 권한이다.

현재 예술원 회원의 정원은 100명으로 1988년 87명에서 증가한 이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원로화되고 있는 예술원 정수와는 별도로 젊고 유능한 신진 예술가, 연구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성과가 예술원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바탕으로 회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국내의 예술 장르의 변화와 문화예술 분야 예산지원의 확대 등 전반적인 문화 저변의 여건 변화와도 연관된다. 따라서 새로운 장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해체되는 현시대 예술 분야의 흐름을 직시하여 예술원의 분과도 현재의 보수적인 틀을 깨고 다양한 해석을 통해 문호를 넓혀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자유 분과 제도를 통해 전문 문화예술인 아닌 비전문 문화예술인이라 하더라도 예술원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분과는 기존의 분과는 그대로 둔 채, 시대 상황에 따라 축소되거나 증대될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예술원은 각 부 안에서 새로운 분과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분과를 독립시킬 수 있는데, 대한민국예술원의 현실적 여건에 비추 본다면, 전통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 시 새로운 분과를 신설하는 일본예술원의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술원 회원제도에 있어 또 하나의 쟁점은 예술원 회원의 자격에 대한 구분이다. 현재 예술원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자격의 범위가 대한민국 영토로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 즉, 재외 동포까지 넓힐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기존 예술원의 회원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재외 동포를 포괄하고 있기에 이제는 회원에 대한 문호를 해외로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해외 동포 예술인들이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예술성을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사례가 이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외국인에 대한 회원 확대는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외국인 예술인을 회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관련 예산이 충분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대부분은 대한민국 예술원의 정체성 차원에서 외국인 예술인에게까지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 제4절

## 예술원의 단절적 사업방향 개선

## 1. 대외적 사업 확대 및 외부 예술활동 지원

현재 예술원의 사업은 예술진흥 사업과 일반 사업으로 구분되며, 예술진흥 사업에는 대한민국예술원상과 예술원 회원 세미나, 예술원 회원 국제교류, 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술강연회과 분과별 예술진흥 사업이 있다. 일반 사업에는 예술도서 발간, 예술원 미술관 운영, 예술원 도서실 운영이 있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예술원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회원의 정액 수당 및 위로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사업적 영역은 운영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술원은 기존 국가의 지원 예산만으로는 사업적 영역을 개척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유연한 조직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예술진흥 사업이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사업 운영 방식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술원의 예술창작 지원 사업은 1년에 각 분과별 2인을 선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회원의 창작활동 지원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분할방식의 현재의 지원금 배분 제도보다는 가치 있는 창작활동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으로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 예술원의 미션 부분에서 예술원 회원의 예술세계와 경험을 후대에 전승하는 것은 일반인 및 신진 예술가에게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원로 예술인들의 오랜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현장 예술인 및 일반 대중에게 전승함으로써 예술적 영감과 꿈을 키워주고 창작의욕도

고취시키는 효율적인 방안은 대중지향적 예술 인식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해외 예술원의 경우에도 회원 강연회, 세미나 등을 통한 직접적인 전승과 회원의 작품 전시, 공연, 정책자문 등을 통한 간접적인 전승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박물관과 유고회원의 자택을 공개하거나 신진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에 활용함으로써 회원의 업적과 예술세계가 간접적으로 후대에 전승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기존 사업 이외에 예술원 회원과 함께하는 예술콘텐츠 개발 및 나눔 지원 사업, 예술원 공간 지원 사업, 정책제안 사업 등 총 3가지 분야의 사업을 제안한다.

#### 가. 회원과 함께하는 예술콘텐츠 개발 및 나눔 지원 사업

예술원 회원 및 회원과 예술적 방향을 함께하는 후학, 그리고 이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함께 참여하여 회원의 업적을 공유하여 창작활동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술창작 활동의 지원이 회원의 문화예술 창작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대중과 함께하는 창작활동을 통해 회원이 보유한 역량을 보다 넓은 차원에서 강화할 수 있고, 일반인도 고급 문화를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인과 함께하는 영광 속에서 그들과 함께 시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예술원의 위상을 높이고 대중에게 회원의 업적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나. 예술원 공간 지원 사업

현재 예술원의 음악회와 시·소설·낭독회 등의 행사는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사 내에 미술관을 운영 중에 있으나 일반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일부 전시회는 도심지로 이동하여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사 내 미술관의 실리적인 가동률

제고와 더불어 예술원 회원의 역량을 나눌 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창작 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과 후학이 함께 연습하는 공간, 회원과 일반인이 함께 토론하는 공간, 더 나아가 예술원 회원을 기리고 후원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대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다. 정책 제안 사업

현재 예술원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및 각종 정책 결정 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자문을 지속해왔다. 또한 정부의 다양한 문화 유관기관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평생을 예술에 기여해온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자문 및 제언 등에 그치고 있어 예술원 회원의 위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회원 스스로 예술원의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 예술의 구심점으로써 국가에 대한민국의 문화가치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예술 역량 재창조를 위한 예술원 회원 모임’을 발족해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TFT를 구성하여 대한민국예술원과 예술원 회원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미래가치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지정된 날짜에 예술원 회원이 주도하는 문화포럼을 정례화하여 대한민국 예술에 대한 토론과 정책 제안을 담론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테이블을 지속해나가는 것도 제안한다.

## 2. 국내외 문화예술교류 사업 활성화

지금까지 예술원은 국제 교류 활동에 매년 2명의 회원에게 국제 교류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면서 국제예술회의 및 주요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여

국제 예술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 예술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또한 2008년까지 국제적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이후 국제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예술원은 이러한 국제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의 사조와 경향을 파악하고, 예술원의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 예술계에서의 한국 예술 및 한국 예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교류 활동에 일임된 인원의 수가 너무 작고, 국제적 행사에 참여하는 예산의 규모도 만만치 않은 만큼 효과적인 문화예술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내로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교류를, 국외로는 해외 유사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대한민국예술원의 사업 내용과 방법, 회원의 업적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술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그들이 초청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 예술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학술원의 경우, 교류 사업으로는 해외 유사기관과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NAS, 영국 학술원 및 로얄 소사이어티 등 9개국 12개 기관과의 교류협약을 맺고 있다. 특히 중국과학원 및 사회과학원, 일본학사원과 정기적인 간행물 송부, 방문교류 등을 통한 정기적인 학술교류를 통해서 학술원을 국외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은 벤치마킹할만한 사례가 된다.

또한 후학이나 국민 대중들과의 공유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도 회원들이 국제사회의 최근 예술동향들을 교감할 수 있는 작업이 선행되어 뒷받침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국제교류 활동의 기회는 예술원 회원들의 국제 감각 유지 및 새로운 자극 수용에 기여할 것이고, 그 예술적 감각과 가치는 그대로 우리 사회에 환원될 수 있을 것이다.

### 3. 예술원 아카이브를 활용한 대중의 정보접근성 확대

예술원은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예술원의 회원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예술인들의 집단이고 예술원 회원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최고라 자부할 수 있는 권위와 명예를 얻는 일로 예술인에게는 매우 값진 자리이다. 예술원의 회원은 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 예술의 역사이기 때문에 회원의 생애를 정리하고, 업적을 기록으로 남기는 아카이브 작업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이기에 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예술원은 예산 및 인력의 부족, 그리고 회원과의 명확한 소통체계 미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와 같은 아카이브 작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단, 미술 분과의 경우에는 회원이 되었을 시에 작품을 기증하도록 되어있어 소극적이거나 아카이브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술원과 성격이 유사한 국내 문화예술 기관인 대한민국 학술원은 아카이브 작업이 사회를 위한 봉사라는 점에 착안하여 정기적으로 학술원 회원들의 작품을 선별하여 대중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고 이 강연회 자체를 아카이빙하고 있다. 학술원은 강연회를 위해 학술원 내에 상설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연중 논의를 거쳐 강연 주제와 강연자를 선정하게 함으로써 강연이 지나치게 강연자의 전문적인 주제나 취향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강연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가령 생활과학, 첨단과학의 이해, 철학, 인문학, 고전 강좌 등 평소 대중이 접하기 어려운 분야도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원회에서 연중 내내 논의하고 개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카이빙이 이루어지는 여건을 마련한 것은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미국, 독일 등 예술원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아카이빙을 예술원과 대중을 만나게 하는 접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회원과 관련한 기록을 예술원이 직접 수집하여 연방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전역을 돌며 전시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한편, 예술인의 위상을 국민에 적극 알리는 계기로 삼고 있다.

현재 예술원 회원들의 연령은 대체로 80세 안팎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10년~20년 내외이다. 따라서 예술원은 단계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통해 그 자체가 대한민국 근현대 예술사인 예술원 회원의 역사를 기록하는 아카이빙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공식적이고 대표성을 갖춘 예술원이 자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국내 근현대 문화예술의 역사적 사료들을(회원 사진, 연설문, 작품, 보도자료 스크랩, 영상, 음원, 리플렛, 소장품 등) 수집하여 회원들의 유고 전에 정리해야 할 것이다. 자료의 수집이 완료되면 아카이빙 전집과 도록 등 관련 서적 및 간행물을 제작하여 전국의 도서관 및 미술관, 박물관뿐만 아니라 공공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에 적극 비치하는 작업도 함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중예술의 경우는 그 역사가 짧고, 회원의 규모가 작아 우선적으로 아카이빙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력이 닿는다면 수집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영구보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디지털화 작업을 통한 영구보존은 청사 내에 보관 자료실의 규모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자료 열람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 열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대중과 예술원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적극적인 장치가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예술원 서버는 2004년 버전으로 용량이 부족하여 아직은 디지털화 작업을 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에 예술자료원을 보유하고 이미 예술인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 중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와 co-work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술원 회원의 업적을 공유하는 생애사 수집채록 작업의 완성은 그야말로 원로 예술가를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뿌리를 찾고, 예술인을 정성으로 예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5절

## 예술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구축

## 1. 예술원상 권위 확보 및 시상식 활성화

대한민국예술원이 주관하는 가장 큰 사업인 대한민국예술원상은 예술에 관해 사회적으로 현격하게 기여한 자와, 창작한 작품의 품격이 현시대를 선도하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술원 회원 분과나 예술기관장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회원의 심사를 거쳐 선출하는 예술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초기 예술원상은 회원 중에서 선발하여 오던 것을 2008년부터 「예술원 회원은 수상에서 제외」 하면서 일반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수상자 추천 이후 최종 결정을 예술원 총회에서 결정하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위주로 수상자를 결정하다보니 예술원상에 대한 권위와 정당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술원상의 권위를 되찾는 작업은 상을 예술원 회원들이 독식한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한 이후 2008년 예술원 회원이 수상에서 배제되고 그 이후로 계속되어 왔는데,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경쟁의 원리를 통해 보다 양질의 예술콘텐츠를 사회에 제공한 예술인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창작이 중심인 예술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참여를 원치 않는 예술인도 있기에 예술원의 정책 방향과 현장 예술인 사이의 견해차를 좁히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최고 예술인인 예술원 회원에 의해 수여되는 상 자체가 현장 예술인 및 젊은 예술인들에게

는 최고의 영예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예술원상은 내·외부적으로 여러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최고 예술가 집단이 주는 최고의 명예임은 분명하다. 가까운 예로 청룡영화제와 대중상 시상식 등 각종 영화제도 수상자 선정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 영입 이전에 시상식 자체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위원회를 열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상 검증을 진행한다. 대한민국 예술상 역시 각 계 각 층으로 구성된 예술원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 워크숍, 사전 포럼을 통해 예비 후보자를 선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바탕으로 일반 대중이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절차 등 투명한 선정 절차로 예술원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술원상의 인지도 제고와 권위 회복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꼭 예술원 회원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술원상의 최종 선정 절차이다.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 예술원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는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지만, 최종 수상자 결정은 예술원 회원을 통해 선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예술원 회원으로서 예술원의 가장 권위 있는 사업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회원으로서의 명예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 2.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대한민국예술원이 발표한 <2016 주요 사업보고>에 따르면, 예술원은 예술원 회원들의 풍부한 인적 역량을 활용, 예술 및 인문학 강연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기관, 지방문화원,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협력하고자 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공립 기관이 대부분으로, 이는 현재 예술원이 조직운영과 예산 운용, 사업영역 구성에 있어서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기관 이기에 독립적인 사업영역을 구축에 있어 내부적인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예술원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고, 예술원의 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한다면 청사가 협소한 예술원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술원 회원의 창작활동으로 대중과 소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및 민속박물관 등과 업무협약(MOU)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예술원 회원으로 하여금 오랜 시간 쌓아온 자신들의 업적을 나누며, 원로 예술인임이도 불구하고 높은 예술 창작 의욕을 후학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종합학교 및 국립국악중고와 국립전통예술중고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 3. 대한민국예술원의 대내외적 홍보 강화

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및 회원 대상 세미나 주관, 국제교류, 회원의 창작활동 지원(논문, 공연, 출판, 전시, 작품 제작 등)과 더불어 강연회와 분과 별 지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일반인은 물론이고 현장 예술인에게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및 홍보 콘텐츠와 인력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sup>89)</sup> 하지만, 예술원이 예술원 회원의 예우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 예술 집단을 선도하는

89) 예술원 내 홍보인력은 사무국 진흥과에 1명이 총괄하고 있다.

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예술원의 위상 정립과 회원들의 지속적인 명예 신장을 위해서라도 예술원 사업에 대한 대내외 홍보는 필수적이다.

현재 예술원은 홍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콘텐츠 모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방위적 홍보 방식보다는 적시적소에 대응하는 사업별 영업 홍보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대한민국 예술상 시상식의 경우 사업의 규모와 권위를 감안하여 예산 집행이 일정 부분 가능하기에 방송과 미디어에 사업의 내용이 적극 노출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배너를 제작 배치하고, 예술원 홈페이지로 링크하도록 탭을 제작하여 예술원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홍보 타겟인 대중과 현장 예술인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외 세미나 및 국제교류, 창작 활동 지원과 강연회 등 예술원의 일반적 행사성 프로그램은 예술원의 온라인 회원을 대상으로 월별 이슈를 정리한 뉴스레터를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는 한편, 행사가 임박했을 시에는 SNS, 문자메시지를 통해 별도의 공지로 안내를 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편리한 홍보 방법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술원이 온라인 회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 예술원의 해외 홍보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문 홈페이지의 개설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제8장 ●●

결 론





대한민국예술원은 예술창작과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예술인들을 우대·지원하고 이들의 식견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되어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현존하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인 기관이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 장르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융복합되는 환경 변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예술에 대한 열망과 수요 및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한 새로운 기대에 따라 예술원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미션과 비전수립을 재정립하는 등 중장기 목표 및 발전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예술원이 설립되었던 60여 년과 달리 21세기 예술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장르가 다양해졌고, 예술의 축적된 역사와 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및 관점의 통합 등으로 공급의 측면에서 예술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예술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수요의 측면에서는 삶의 질과 문화 향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향유자들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대중문화가 주목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예술의 본질과 순수예술의 전통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예술원 역시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원로 예술인들에게 대한 예우는 그러한 위상에 비례하고 있지 않아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원로 예술인의 위상 강화는 예술원 회원의 수당 인상, 정기적인 연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예술원 회원의 사후 예우 및 사회공헌 활동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지원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국외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프랑스 팡테옹과 영국의 시인의 공간, 독일의 발할라 명예의 전당이 모두 국가의 가장 저명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영묘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처럼 대한민국예술원의 사후 예우 구축은

예술인에게는 최고의 영예를 제공하고, 문화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관광 명소로 방문객들이 찾게 될 때, 문화를 통한 국가 홍보라는 부대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술원은 한국 예술의 상징 기관이지만 예술인 및 일반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예술원의 명예와 국가의 예술발전을 선도하는 지도력에 부합하는 사회적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가장 큰 사업으로 대한민국예술원상이 있는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예술원상 선정위원회를 구성, 온/오프라인 홍보를 바탕으로 대중이 참여하는 등 투명한 선정 절차를 예술원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면서 예술원상의 인지도를 제고하여, 예술원상의 권위와 대한민국예술원의 위상 회복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예술원의 홍보 및 사업예산, 그리고 홍보콘텐츠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예술 강연회, 공연, 전시 등을 통해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예술인과 대중들과의 활발한 공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등 대중친화적인 이미지도 제고되어야 한다.

청사 및 부대시설 공간 확보도 향후 예술원이 일반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각종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다. 예술원 회원들의 의견조사에서도 예술원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청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예술원의 청사는 예술원 회원들의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며, 대중들과 예술원 회원 및 예술인이 만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기에 우선적으로 고려될 점은 접근성이다. 하지만 현재 예술원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청사 이전은 시기상조이지만 예술원이 쌓아온 자료, 작품 보관이 가능하고 모든 이들의 소통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예술원의 단절적인 사업방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술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조직 구성으로 변화, 예술콘텐츠 개발 및



나눔 지원 사업, 예술원 공간 지원 사업, 정책제안 사업들이 수용되어야 하며,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대중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예술원은 단계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 예술사인 예술원 회원의 역사(회원 사진, 연설문, 작품, 보도자료, 영상, 음원, 리플렛, 소장품 등)를 기록하는 아카이빙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원로 예술가를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뿌리를 찾고, 예술인을 정성으로 예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대한민국예술원의 중장기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이러한 중장기 계획 연구가 3~5년 단위로 필수적인 만큼, 매년 예술원의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와 문화예술계 현장 전문가들의 인지도 조사 등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대규모 조직이 아니므로 매년 조사할 경우, 연도별 추이 등을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모니터링의 정례화는 돌연한 평가연구에 비해 조사 응답률을 높일 수 있어서, 성과 진단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과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은 개선방안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조직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외부 전문가 그룹의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예술원이 국가의 대표적인 예술인 기관으로서 국가의 문화적 품격을 대표하는 탁월한 예술인들의 가치와 위상에 맞는 명성과 인지도를 얻고, 시민 및 미래의 예술가들과 활발하게 소통을 하며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Abgeordnetenhaus Berlin(2007). *16. Wahlperiode. 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 2007. Vertrag über die aus der Hauptstadtfunktion Berlins abgeleitete, Kulturförderung und die Abgeltung von Sonderbelastungen der Bundeshauptstadt.*
- American Academy of Arts & Letters(1998), *A Century of Arts & Letters*, American Academy of Arts & Letters
- American Academy of Arts & Letters(2004), *Proceedings, 2nd Series*, American Academy of Arts & Letters
- Bayerische Schlösserverwaltung(2016), *Walhalla–Donaustauf bei Regensburg.*
- CMN(2014), “Rapport Annuel 2014”, CMN
- Dornberg, John(1988), Two Temples To the Greats Of Germany, *The New York Times*
- Freistaat Bayern(2016), *Haushaltsplan 2015/2016, Einzelplan 06 für den Geschäftsbereich des Bayerischen Staatsministerium der Finanzen, für Landesentwicklung und Heimat*
- Freistaat Bayern(2016), *Nachtragshaushaltsplan 2016*
- Gesetz zur Errichtung der Akademie der Künste vom 1. Mai 2005 (BGBl. I S. 1218)"
- Jean Baptiste Duvergier, Ed Gonjon, Marcel Demonts, Custave Lange, Lucien Bocquet(1834), *Collection complète des lois*, A. GUYOT.
- John Dornberg(1988), “Two Temples To the Greats Of Germany”, *The New York Times*.
- Royal Academy of Arts(2015), “Report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for the year ended”, Royal Academy of Arts.
- Steger, Simone(2011), *Die Bildnisbüsten der Walhalla bei Donaustauf, Von*

- der Konzeption durch Ludwig I. von Bayern zur Ausführung(1807-1842), München.*
- The Guardian(2015. 5. 11), “Royal Academy of Arts redevelopment plans revealed”
- 거제시 안전행정국 문화공보과(2013), 「거제시 문화예술인 발굴 및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지방정책발전연구원(연구책임: 김상규)
- 김태주, 김종원, 김태원(2014), “창조적 ‘문화융성’의 구체적 실현방법이 없다”, 『공연과리뷰』 통권86호, pp.14, 현대미학사
- 대한민국예술원(2004), 『예술원 50년사』, 대한민국예술원
- 대한민국예술원(2005), 『대한민국예술원 50년사』, 대한민국예술원
- 대한민국예술원(2008),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대한민국예술원(연구책임: 허영은)
- 대한민국예술원(2014), 『예술원 60년사』, 대한민국예술원
- 대한민국예술원(2015), 『예술원 50년사』, 대한민국예술원
- 대한민국예술원(2015), 『예술원요람 2015』, 대한민국예술원
- 문화관광부(2014), 『2014 문화예술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07), 「2007 문화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조현성)
- 문화체육관광부(2014), 「해외 문화예술 융복합사업의 트렌드 파악을 통한 국내 융복합 문화예술사업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연구책임: 이재학)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각년도), 「예산·기금 운용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 소병희(2008),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문화예술 향수증대를 위한 정책 제안」, 『문화정책논총』, 통권 20호
- 양효석(2010), 「아르코 비전 2010의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용호성(2010), “민간공연예술단체의 경영환경 변화와 재원조성”, 『예술경영연구』 통권 17호, 한국예술경영학회

- 예술경영지원센터(2014), 「2014년도 미술시장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 월간미술(1999),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 이헌숙(2012), “문화예술 정책이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 지원제도에 따른 인식도 제고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국경제인연합회(2014), 「2014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
- 정보람(2014),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문화정책논총』, 제28집 2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철현, 황소화(2007), “문화예술향수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공연예술 수용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통권 6호, 한국행정학회
- 창해편집부(2012), 『(지식과 문화예술의 디지털 백과사전)ABC북 맛보기 사전』, 도서출판창해
- 최영진(2015),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클라우드산업연구소(2012), 「문화유산 팹테용을 위해 즐거이 지갑을 여는 시민들」, 클라우드 산업연구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8),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1998), 『미술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 홍태영(2005),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의 형성- 제 3공화국과 민주주의의 공고화(1885-1940)」,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3호, pp.59-81
- 황은승(2006), “팹테용을 통한 집권세력의 국민 만들기 : 프랑스 혁명기(1789-1799) 위인송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뉴스기사 및 보도자료〉

동아일보(2013.05.22.), “예술원 새 등지 어디 없소”  
 매일경제(2014.07.06.), “대한민국예술원 그들은 누구?”  
 서울신문(2009.01.16.),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김수용” 인터뷰  
 연합뉴스(2006.10.01.), “예술원 예산, 회원 사업비에 치중”  
 한국일보(2012.07.26.), “예술원상 ‘해프닝’ 올리는 3명뿐 왜?”

## 〈웹사이트〉

Mymajorcompany(<https://www.mymajorcompany.com/pantheon>)  
 MyMajorCompanyFacebook(<https://www.facebook.com/mymajorcompany/>)  
 SUDOUEST(<http://www.sudouest.fr/>), L'OBS (<http://tempsreel.nouvelobs.com/>)  
 Westminster Abbey 홈페이지(<http://www.westminster-abbey.org/>)  
 대한민국예술원 홈페이지(<http://www.naa.go.kr/>)  
 독일예술원 홈페이지 <http://www.adk.de/de/akademie/>  
 미국 예술·문학 아카데미 홈페이지(<http://artsandletters.org>)  
 법제처(<http://www.law.go.kr>)  
 아카데미 보자르(<http://www.academie-des-beaux-arts.fr>)  
 연합뉴스 홈페이지(<http://www.yonhapnews.co.kr>)  
 웨스트민스터 사원 홈페이지(<http://www.westminster-abbey.org/home>)  
 일본예술원 홈페이지([www.geijutuin.go.jp](http://www.geijutuin.go.jp))  
 청와대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  
 카인즈홈페이지(<http://www.bigkinds.or.kr/search/totalSearchChart.do>)  
 프랑스 국가법령(<https://www.legifrance.gouv.fr/>)

## ABSTRACT

###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RYOO, Jeung-Ah

The study aims to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and strategies that can strengthen the competence and competitiveness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at end, it analyses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that the institution is facing, its mission, as well as the perception survey of the institution members and external specialist and case studies of similar institutions abroad.

After analys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udy presents the development strategies and direction by examining the issues related to the management system, membership system, privilege and support system, and its role and stature. The five main directions for development are stated below.

First, the study developed the mid-long term visions based on the new mission statements: 'transmission and preservation of the arts and culture shared by the members', 'sharing of artistic activities participated by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leading institution of the era of living arts and culture'. It proposed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leading the future of culture and arts" as the new mission statement.

Second, it pointed out that in order to secure the basis of management, it is essential for the junior artists of the doyen and field artists to participate and that the institution should be transformed into the one with autonomy. In addition,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he space where the members, field artists and the public can meet.

Third, the study suggests the measures for enhancing the membership management system in two aspects: 'privilege' and 'discipline'. For the privilege, it can reinforce the honors of the members by various plans aside from providing allowances such as posthumous care. It can also consider creating the new department of various disciplines along with the changes of art paradigm.

Fourth, it also proposed 'arts contents development and sharing support program',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space arrangement support program', and 'policy proposal program' to ameliorate the cliquishness of its program. Those can be the measures for active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nd honoring the members at the same time.

Lastly, the study presented the measures to construct the social image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The biggest undertakings of the institution, recovering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Prize', creating a forum for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training junior artists, and promotion of various culture and arts advancement programs, are vital for improving the public awareness.

The study can be used as the resource data for suggesting the development policy direction and improving the management environment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adequate for domestic circumstances. Also, it is an important study in establishing the policy for the doyen of the artists which will be the main resource that will shed new light on the role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and establish its new long-term vision.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will support the public in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of the unfamiliar institution, National Academy of Arts, and how the institution can contribute to the standard of the art environment. Moreover, the study expects it to be the forum for public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Academy of Arts.

## 부 록

〈표 부록-1〉 2016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현황

(2016년 8월)

분과	정원(명)	현원(명)	회 원 명
문학	28	27	김윤성(金潤成), 김남조(金南祚), 이호철(李浩哲), 김종길(金宗吉), 문덕수(文德守), 이어령(李御寧), 유종호(柳宗鎬), 김윤식(金允植), 최일남(崔一男), 신경림(申庚林), 김우창(金禹昌), 황동규(黃東奎), 이근배(李根培), 김원일(金源一), 서정인(徐廷仁), 한말숙(韓末淑), 김후란(金后蘭), 김주연(金柱寅), 김화영(金華榮), 오세영(吳世榮), 유안진(柳岸津), 정현중(鄭玄宗), 정연희(鄭然喜), 김주영(金周榮), 오정희(吳貞熹), 신달자(愼達子), 윤흥길(尹興吉),
미술	25	19	이준(李俊), 백문기(白文基), 문학진(文學晉), 전뢰진(田雷鎭), 권순형(權純亨), 오승우(吳承雨), 이광노(李光魯), 윤영자(尹英子), 이신자(李信子), 민경갑(閔庚甲), 최중태(崔鍾泰), 조수호(趙守鎬), 이수덕(李壽德), 윤명로(尹明老), 이종상(李鍾祥), 유희영(柳熙永), 박광진(朴洸眞), 서세옥(徐世鈺), 엄태정(嚴泰丁),
음악	22	22	안형일(安亨一), 황병기(黃秉冀), 이인영(李仁榮), 황영금(黃英金), 이경숙(李慶淑), 이재숙(李在叔), 서계숙(徐桂淑), 한명희(韓明熙), 박노경(朴魯慶), 나인용(羅仁容), 권오성(權五聖), 나덕성(羅德成), 신수정(申秀貞), 이경숙(李慶淑), 강석희(姜碩熙), 김민(金旻), 백병동(白秉東), 이영자(李英子), 장혜원(張惠園), 김성길(金聖吉), 윤미용(尹美容), 김남윤(金南潤),
연극 · 영화 · 무용	연극 · 영화 · 무용	8	김정옥(金正鈺), 박현숙(朴賢淑), 임영웅(林英雄), 이병복(李秉福), 박정자(朴正子), 윤대성(尹大星), 오현경(吳鉉京), 손숙(孫淑),
		6	김수용(金洙容), 김기덕(金基惠), 임권택(林權澤), 변장호(卞張鎬), 남궁원(南宮遠), 김지미(金芝美),
		9	김백봉(金忠實), 김문숙(金文淑), 조흥동(趙興東), 최청자(崔淸子), 김숙자(金淑子), 김학자(金學子), 정승희(鄭承姬), 김민희(金民嬪), 박명숙(朴明淑),
합계	100	91	

자료: 대한민국예술원(<http://www.na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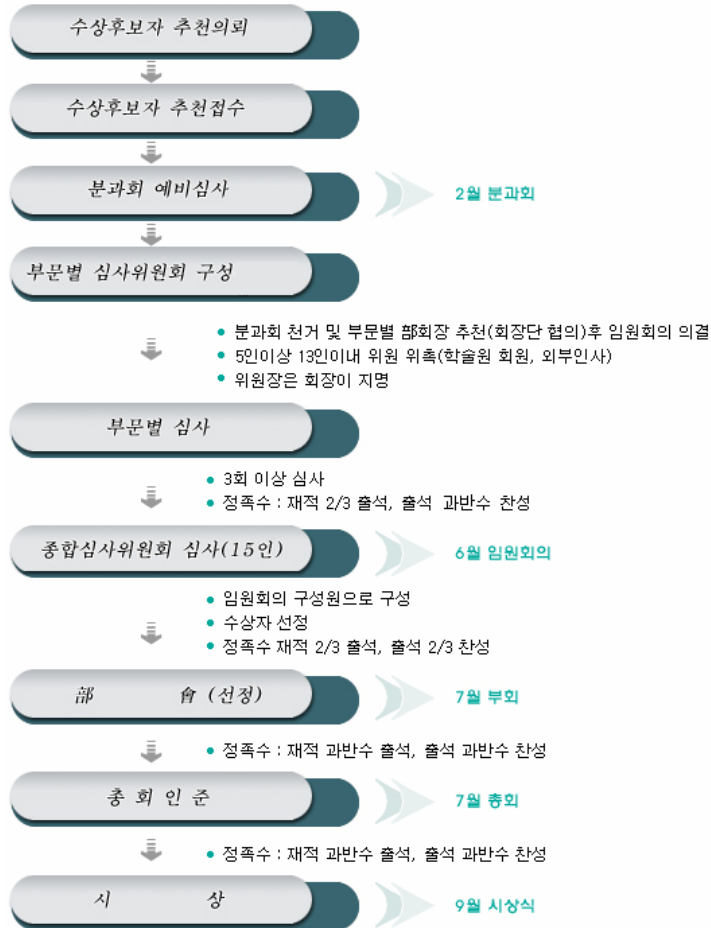
〈표 부록-2〉 예술원상 수상자 심사 절차

시상요강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상부문 및 인원, 수상자격요건, 시상내용, 추천자격, 심사위원 구성, 추천일정 등 수립</li> </ul>
수상 후보자 추천의뢰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일간지에 시상요강 공고</li> <li>- 예술원 회원, 예술단체의 장, 대학교 총장의 추천</li> </ul>
부문별 심사위원회 구성 (시상규정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후보자를 부문별로 심사하기 위해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부문 심사위원회를 둔다.(15인 이내로 구성, 외부인사 포함 가능)</li> <li>- 위원은 예술원회장이 위촉,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예술원회장이 지명</li> </ul>
부문별 수상후보자 자격심사 (시상규정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 자격심사</li> <li>- 부문별로 수상후보자 선정</li> </ul>
선정 수상후보자 종합심사 (시상규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선정후보자의 적격 심사</li> </ul>
수상후보자 선정 (시상규정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재심사하여 수상후보 선정하여 총회에 제출</li> <li>- 위원장이 종합심사위원회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li> </ul>
총회의결 (시상규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회는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li> </ul>
시상 (시상규정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원상은 매년 9월 5일에 수여한다. 다만 공휴일인 때에는 익일로 한다.</li> <li>- 제1항의 시상시기는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li> </ul>

〈표 부록-3〉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규정 총칙의 세부 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3조에 의하여 예술의 향상발전에 기여하고자 예술원이 시상하는 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상은 “대한민국예술원상”이라 한다(이하 “예술원상”이라 한다).
제3조(수상후보자 자격)
① 예술원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하였거나 작품을 제작한 자 또는 이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예술원회원은 예술원상 수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조(상의부문)
예술원상은 문학부문, 미술부문, 음악부문, 연극부문, 영화부문, 무용부문으로 구분한다.
제5조(정상과 부상)
예술원상은 예술원에서 정하는 정상과 부상으로 수여한다.
제6조(수상후보자 결정과정)
① 예술원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매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예술원상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예술원 회원, 예술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의 총장 및 예술원 회장이 지정하는 해당분야의 예술단체의 장에게 의뢰한다. ② 회장은 추천을 받은 수상 후보자를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에 심사요구 한다. ③ 예술원상은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종합심사위원회의 선정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자료: 대한민국예술원 홈페이지([http://www.naa.go.kr/intro/intro06\\_04.asp](http://www.naa.go.kr/intro/intro06_04.asp))



자료: 대한민국학술원 홈페이지(<http://www.nas.go.kr/intro/org/org.jsp>)

[그림 부록-1] 대한민국학술원상 선정절차

(회원 대상)

「대한민국예술원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예술원 만족도 및 인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예술원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조사입니다. 예술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문에 옳고 틀린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된 문항에 충분히 고민하신 뒤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조사에서 밝혀주신 내용은 대한민국 통계법 제8조와 제9조에 의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귀하의 의견은 귀중한 정책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설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연구책임: 류정아 선임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 담당자: 허준영 연구원 (전화: 02)2669-6960 / E-mail: heojoy@kcti.re.kr)

**A 예술원 발전 가능성**

A1] 다음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규정된 예술원의 주요 기능입니다. 예술원의 기능들이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하는 정도를 번호에 맞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잘 수행되지 못함	대체로 잘 수행되지 못함	보통 이다	대체로 잘 수행됨	매우 잘 수행됨
1.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①	②	③	④	⑤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국내외 예술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①	②	③	④	⑤
4.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예술진흥에 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A2] 다음 문항에 대해 해당하는 정도를 번호에 맞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예술원의 미션(기능)들이 종합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A3] 다음은 예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귀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	①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예술진흥 사업
( )	② 예술원회원 세미나	
( )	③ 예술원회원 국제교류	
( )	④ 예술 창작 활동 지원	
( )	⑤ 예술 강연회	
( )	⑥ 분과별 예술진흥 사업	일반 사업
( )	⑦ 예술도서 발간	
( )	⑧ 예술원 미술관 운영	
( )	⑨ 예술원 도서관 운영	

A4]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예술원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문항에 대해 해당하는 정도를 번호에 맞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예술원에서 추진하는 각 정책 및 사업이 기관의 미션에 맞게 적절히 추진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예술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이 외부로 잘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예술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이 예술원 내·외적으로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예술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이 전문적으로 관리 및 운영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예술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에 맞게 예산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예술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A5] 예술원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강화 및 추진되어야 할 사항을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① 문화예술 교육 기능 확대	예술 진흥 사업
( )	② 회원 자료 및 기록물의 수집 및 아카이브 기능 확대	
( )	③ 대한민국예술원상의 공정성 및 위상 제고	
( )	④ 문화예술 분야 연구 기능 강화	
( )	⑤ 예술창작 활동의 지원 강화	
( )	⑥ 예술원의 유사 기관 및 국제 교류 및 협력체계 강화	회원 역할 강화
( )	⑦ 정책 자문 역할의 확대	
( )	⑧ 예술원 회원 대상(인원) 확대	회원 지원
( )	⑨ 회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지원 확대	
( )	⑩ 예술원의 회원 및 추진 사업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 강화	운영 시스템
( )	⑪ 청사 공간 확보(이전)	
( )	⑫ 후원회 등의 자금 지원 시스템 개선	
( )	⑬ 기타의견 ( )	

A6] 예술원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가장 뒷받침되어야 할 정부 지원 사항을 1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① 예술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	운영지원
( )	② 예술원 기관 사업 및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	
( )	③ 청사 이전(확충) 등의 공간 확보	재정지원
( )	④ 예술원 재원의 확충 및 마련	
( )	⑤ 문화예술 교육 기능 확대	예술 전수 기능 강화
( )	⑥ 문화예술 분야 연구 기능 강화	
( )	⑦ 회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	회원지원
( )	⑧ 기타의견( )	

A7] 대한민국예술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제언 및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사례비(30,000원)을 지급해드립니다.

(            은행/계좌주:            ) 계좌번호:

---

귀한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대상)

「대한민국예술원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예술원 만족도 및 인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예술원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조사입니다. 예술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문에 옳고 틀린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된 문항에 충분히 고민하신 뒤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조사에서 밝혀주신 내용은 대한민국 통계법 제8조와 제9조에 의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귀하의 의견은 귀중한 정책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설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연구책임: 류정아 선임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 담당자: 허준영 연구원 (전화: 02)2669-6960 / E-mail: heojy@kcti.re.kr)

## A 인지도

A1] 귀하께서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다음 문항에 대해 해당하는 정도를 번호에 맞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한민국예술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예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예술원 회원과 회원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예술원 회원이 국가와 국민 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B 예술원 발전 가능성

B1] 다음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규정된 예술원의 주요 기능입니다. 예술원의 기능들이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하는 정도를 번호에 맞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잘 수행되지 못함	대체로 잘 수행되지 못함	보통 이다	대체로 잘 수행됨	매우 잘 수행됨
1.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①	②	③	④	⑤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국내외 예술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①	②	③	④	⑤
4.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여	①	②	③	④	⑤
5. 기타 예술진흥에 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B2] 다음 문항에 대해 해당하는 정도를 번호에 맞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예술원의 미션(기능)들이 종합적으로 잘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B3] 다음은 예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귀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	① 대한민국예술원상 시상	예술진흥 사업
( )	② 예술원회원 세미나	
( )	③ 예술원회원 국제교류	
( )	④ 예술 창작 활동 지원	
( )	⑤ 예술 강연회	
( )	⑥ 분과별 예술진흥 사업	
( )	⑦ 예술도서 발간	일반 사업
( )	⑧ 예술원 미술관 운영	
( )	⑨ 예술원 도서실 운영	

B4]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예술원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문항에 대해 해당하는 정도를 번호에 맞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예술원에서 추진하는 각 정책 및 사업이 기관의 미션에 맞게 적절히 추진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예술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이 외부로 잘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예술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이 예술원 내·외적으로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예술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이 전문적으로 관리 및 운영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예술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에 맞게 예산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예술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B5] 예술원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강화 및 추진되어야 할 사항을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① 문화예술 교육 기능 확대	예술 진흥 사업
( )	② 회원 자료 및 기록물의 수집 및 아카이브 기능 확대	
( )	③ 대한민국예술원상의 공정성 및 위상 제고	
( )	④ 문화예술 분야 연구 기능 강화	
( )	⑤ 예술창작 활동의 지원 강화	
( )	⑥ 예술원의 유사 기관 및 국제 교류 및 협력체계 강화	회원 역할 강화
( )	⑦ 정책 자문 역할의 확대	
( )	⑧ 예술원 회원 대상(인원) 확대	회원 지원
( )	⑨ 회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지원 확대	
( )	⑩ 예술원의 회원 및 추진 사업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 강화	운영 시스템
( )	⑪ 청사 공간 확보(이전)	
( )	⑫ 후원회 등의 자금 지원 시스템 개선	
( )	⑬ 기타의견 ( )	

## B6] 예술원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가장 뒷받침되어야 정부 지원 사항을 1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① 예술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	운영지원
( )	② 예술원 기관 사업 및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	
( )	③ 청사 이전(확충) 등의 공간 확보	재정지원
( )	④ 예술원 자원의 확충 및 마련	
( )	⑤ 문화예술 교육 기능 확대	예술 전수 기능 강화
( )	⑥ 문화예술 분야 연구 기능 강화	
( )	⑦ 회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	회원지원
( )	⑧ 기타의견 ( )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사례비(30,000원)을 지급해드립니다.

(            은행/계좌주:            ) 계좌번호:

---

귀한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자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김 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복길화 (마포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주임)

### 연구참여

이정은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허준영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

박주미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한설아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

## 대한민국예술원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발행인** 김 정 만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j.re.kr>

**인쇄일** 2016년 12월

**발행일** 2016년 12월

**인쇄인** 크리홍보(주)

ISBN : 978-89-6035-655-9



[www.kcti.re.kr](http://www.kcti.re.kr)

